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공동체주택 생활 문화
학습 과정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우희정

공동체주택 생활문화
학습 과정 연구

지도교수 한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우 희 정

우희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전통적인 교육학은 학령기의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과목을 학습하는 현상에 주로 주목하였으나 평생교육학은 나이에 상관없이, 전 연령대의 학습자가 학교를 넘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주목함으로써 ‘교육’과 ‘학습’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평생교육학자들은 성인학습자들이 자신이 속한 환경 가운데 학습하는 과정을 관찰하였으며 특히 “마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현대사회의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통해 개인과 집단이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학습’이 개인의 인지적인 차원을 넘어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상임을 밝히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학습 과정을 주목하고자 “공동체주택”이란 사례를 선택하였다.

공동체주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나치게 개별화되어 버린 주거 개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 생태, 의료, 경제 등 여러 마을 공동체운동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인구 중 77%가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의 물리적으로는 ‘공동’주택에 사는 반면 독거노인과 1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와 핵가족 형태의 주거 문화로 인해 인간소외,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인구수는 늘어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 주거문화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주택에 주목함으로써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공동체주택은 서울시 마포구 내 성미산마을에 위치한 8개의 “함께 살아 행복한 집(함살집, 가칭)” 중 가장 최근에 지어진 “따뜻한 공간(따공, 가칭)”이다.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주택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공동체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공동체주택 구성원들은 그들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학습하게 되는가? 이들은 “공동체성”을 형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배우기보다 공동체주택의 삶 그 자체를 통해 배운다. 그렇다면 공간을 공유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배우는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될까?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의 무형식학습을 다루므로 질적연구인 문화기술지(Ethnography)적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동체주택의 공식적인 회의, 공동체활동, 행사, 비공식적 모임 등을 참여관찰하였고 참여관찰하며 생겨나는 의문들을 기록하여 심층면담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이 작성한 공동체규약을 중심으로 공동체주택 생활과 관련된 개인의 SNS 글, 합살집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현지자료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4장과 5장은 첫 번째 연구 문제인 “공동체성”의 의미에 대한 답이다. 4장에서는 연구자가 관찰한 공동체주택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상세히 서술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공동체주택의 생활문화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장에서는 함께 사는 삶의 양면성과 모순 속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공동체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따공 주민들에게 있어서의 공동체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둘째로, 따공의 공동체성의 의미는 “따로 또 같이”, 즉 ‘느슨한 공동체’이다. 연구자는 구성원들이 개별성과 공동성 사이에서 “공동체성”을 조율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동체성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6장은 두 번째 연구문제인 주민들이 “공동체성”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지에 관한 답이다. 우선, 따공의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배우는 학습 과정을 밝혔다. 첫째로, 구성

원들은 비형식적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배운다. 둘째로, 공식적으로 일부 구성원은 대표, 회계, 서기, 시설, 환경의 임원진이며 비공식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보며 각자 역할을 자발적이고 책임감있게 담당하며 학습하고 있었다. 셋째로, 성미산마을 주민들과 인근에 위치한 함살집 1~7호 선임자들로부터 경험을 전수 받는다. 넷째로,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삶을 통해 생활 학습한다.

또한,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통해 따공 주민들의 공동체성 학습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첫째로, 엥게스트롬이 설명한 4가지 모순의 징후를 서술하고 따공의 주민들이 각 징후에 적합한 모순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엥게스트롬의 4가지 차원의 모순의 의미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각 차원의 모순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주택 주민들이 함께 살기 위해 공동체주택에 입주하였지만 개별적인 삶을 동시에 존중받기를 원하는 1차 모순의 처했음을 서술하였다.

둘째로, 목표의 충돌을 바탕으로 활동체계 내 활동요소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따공의 구성원들은 ‘함께사는 삶’과 ‘따로 또 같이’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 모순을 경험한다.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주체, 매개물, 규칙, 분업, 공동체 등을 재조정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공동체성” 학습을 한다. 이를 연구자는 주민들의 “확장학습”이라 명명하며 여기서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셋째로, 이러한 확장학습을 통해 ‘공동체문화의 성장’이란 결과를 만들어냈다. 활동체계의 요소들이 조정되고 변화하며 공동체문화는 ‘따로 또 같이’라는 목표를 이루며 함께 더 잘 살 수 있도록 성장한다. 주체가 객체를 이루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아닌, 구성된 매개물, 규칙, 분업, 공동체라는 요소와 모순을 만나며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활동체계에 내던져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

간적/비인간적 요소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확장하면서 재창조된다는 점이다. 이는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며 공동체가 학습한다는 증거이다.

넷째로, 따공은 재미 모델이므로 확장학습의 인식론적 순환 과정에 적합한 형태로 해석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평생교육학계에서 확장학습 모델을 통해 분석한 사례들은 주로 관 주도의 의미 모델이다. 따공은 삶 그 자체를 위해 모였으며 재미와 낭만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체이므로 재미 모델이다. 따라서 따공은 리좀적인 판이며 수평적으로 연결, 접속되기 때문에 확장학습의 순환과정에 적절히 대응되지 않음을 밝혔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동체주택’이란 특수한 주거 환경 속에서 구성원들이 상호학습하는 경로 및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공동체학습’ 개념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공동체주택 주민들에게 있어서의 “공동체성”의 의미인 “따로 또 같이”가 이중구속 상황임을 발견함으로써 이들의 목표가 앙게스트롬이 주장한 1차 모순임을 드러내었다.

둘째로, 따공은 평생교육학계가 그동안 주목해온 관 주도의 의미 모델과는 다른 재미 모델이므로 확장학습의 순환과정에 완벽하게 대응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공동체의 본질은 재미 모델적 측면이 강하므로 이러한 공동체를 면밀히 살펴보며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학습을 미시적으로 밝힌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마을공동체, 공동체주택, 공동체학습, 문화역사적 활동이론, 공동체성, 문화기술지

학 번 : 2021-21767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6
1. 공동체성	6
1) 공동체운동	11
2) 마을교육공동체	12
3) 공동체주택과 성미산마을	15
2. 공동체학습	18
1) 성인학습이론과 공동체학습	19
2) 문화역사적 활동이론	24
2) 확장학습이론	28
III. 연구절차 및 방법	33
1. 연구현장 및 연구참여자	34
2. 자료수집과 분석	37

IV. 공동체주택 주민들의 삶	39
1. 공동체주택이 만들어진 과정	39
2. 공동체주택 생활 문화	42
1) 공동체주택의 제도	42
2) 별명 부르기	51
3)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	53
V. 모순을 통해 발견한 공동체성의 의미	59
1. 공동체주택 생활의 명암	59
1) 함께 교제하는 기쁨	59
2) 시간과 에너지 소모	61
2. “행복도 불안도 그만큼 늘어나는 삶”	64
1) 소외감	64
2) 페미니즘	67
3. 공동체성의 의미	71
1) “포기해 버리지 않는 마음”	73
2) “따로 또 같이”	78

VI. 공동체주택 주민들의 공동체성 학습	81
1. 상호작용을 통한 함께 배우기	81
1) 비형식적 교육 수강	81
2) 자신의 역할 찾기	85
3) 경험의 전수	88
4) 생활 학습	91
2. 활동이론 관점에서 분석한 공동체성 학습	94
1) 공동체주택에서 직면한 모순들	94
2) 확장학습을 통한 활동 요소의 변화	99
3) 공동체문화의 성장	114
4) 확장적 순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재미 모델	117
VIII. 요약 및 결론	120
1. 요약	120
2. 결론	126
참고문헌	130
부록	143
Abstract	153

표 목 차

<표 1> 계마인샙프트와 계젤샙프트 비교	7
<표 2> 서울시 자치구 별 마을 사업 정의 비교	14
<표 3> 연구자가 임의로 재구성한 호수와 별명	37
<표 4> 따공의 2022년 연간 계획	44
<표 5> 모순의 4가지 징후 특징	95

그림 목 차

[그림 1] 1세대 활동이론 모형	25
[그림 2] 3세대 활동이론 모형	27
[그림 3]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활동체계	29
[그림 4]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진행 절차	43
[그림 5] 따공의 4가지 가치	67
[그림 6] 따공 공동체성의 제도, 문화, 환경	71
[그림 7] 균형을 찾아가는 따공의 공동체성	78
[그림 8] 따공의 활동체계	100
[그림 9] 상호작용하는 따공과 성미산마을의 활동체계	113
[그림 10] 확장학습 순환의 인신론적 행위들	118

사 진 목 차

[사진 1] 따공 외부	36
[사진 2] 따공 내부	36
[사진 3] 따공 공동체공간	36
[사진 4] 갖춰진 쉼터의 모습	48
[사진 5] 쉼터 내 냉장고	48
[사진 6] 방음실 내 악기	49
[사진 7] 보드게임	49
[사진 8] 옥상에서 모종을 심는 아이들	51
[사진 9] 쉼터 내 사용할 의자를 함께 만드는 아이들	51
[사진 10] 어린이날 개최한 폴리마켓	55
[사진 11] 우먼스데이	5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적 교육학의 주된 연구는 학교 교육 내에서 특정한 교과를 학습자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법론에 있었다. 교육 활동이 ‘학교’, ‘학생’을 넘어서 모든 영역과 전 연령대에서 이루어진다는 평생교육 패러다임의 출현에 따라 교육학의 관심은 학교 밖과 성인 학습자들까지 확장되었다. 새로운 차원의 연구는 인간이 언제, 무엇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느냐를 다루었다.

새로운 학습이론은 보다 확장된 차원에서 인간의 인지적인 변화를 넘어 전인적인 변화를 설명하였다. 연구를 통해 인간이 학습-성장-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결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 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이동하였으며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포착하기 위해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 그룹학습(Group Learning), 집단학습(Collective Learning), 공동체학습(Community Learning),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팀학습(Team Learning), 네트워크 학습(Network Learning),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등 다양한 개념을 사용하였다(김경애, 2007).

공동체적 학습의 개념을 통해 드러난 학습 과정은 개인이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양상(학습동아리, 학습공동체, 협동학습), 조직·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경영학적 차원에서 조직 내 공동체에서 학습을 이용하는 양상(조직학습, 학습조직), 지역사회 내 마을공동체·마을교육공동체에서 주민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함께 소통하며 공동체를 성장시켜가는 시민성 학습의 양상(공동체학습)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까지 다루었지만 그 핵심에는 여전히 공동체 내의 구성원의 학습-성장-변화에 초점이 있었다.

학습의 주체는 개인에 한정된 것일까? 공동체 자체가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할 수는 없는 것일까? 유민선과 강대중(2013)은 학습의 주체로서 집단에 주목하며 성미산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집단 수준의 학습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효율적인 교과 교육을 위한 연구, 개인의 전인적인 변화에 관한 연구,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 혹은 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연구의 흐름과 함께 “공동체 학습”이란 개념을 확장, 발전시키고자 “공동체주택”이란 현상에 주목하였다.

대한민국 인구의 77%는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에 사는 인구는 62.9%,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사는 인구는 14.9%로 총 77.8%를 차지하였다. 공동체주택은 공동주택과는 다른데,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따르면 공동체주택은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이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주택은 서울시 조례의 개념 정의를 따르며 “공동체공간”, “공동체규약”, “공동체활동”을 중요하게 다룬다.

기존에 수행되었던 주거공간에서의 공동체성과 관련된 연구는 공동주택에서의 공동체성 증진의 관련한 연구가 있으며(은난순, 2020; 조이브, 강순주, 이경훈, 2015; 오용준, 윤갑식, 2013; 이라영, 2010; 정해경, 김승희, 장희순, 2017; 김순은, 권보경, 2016; 박성복, 2018) 건축학, 조경학, 실내디자인학의 차원에서 공동공간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강연주, 박종완, 임승빈, 2009; 임해원, 이현수, 2018). 공동체주택 관련 연구로는 공동체주택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장용준, 유석연, 2017), 공동체주택의 사회·경제적인 효과(김진경, 정석, 2017; 신유진, 이연숙, 2018; 이경미, 2020) 공동체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이명아, 이연숙, 2019, 2020) 등이 있으며 공동체주택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프로그램의 특성 및 실태를 분석한 연구(김용, 황한선, 오세규, 2018; 이진

우 외, 2015; 김란수, 2019)가 있다. 또한 고시원 거주자, 장애인, 1인 노인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공동체주택 참여계획에 관한 연구(이연숙 외, 2018; 이연숙 외, 2018; 박재현, 이연숙, 김혜연, 2018; 이연숙 외, 2019; 이연숙 외, 2019; 임예지, 이연숙, 2019)가 있으며 임대주택단지의 공동체활성화에 관련한 연구가 있다(김란수, 2021; 임재현, 한상삼, 2011; 황갑복, 장희순, 2020).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주거 공간에서의 공동체성 증진에 관한 연구이며 교육을 중심으로 마을 전체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학습 과정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양병찬, 2015, 2018; 신기왕, 2021; 지희숙, 2015; 은주희, 정홍인, 이성, 2016). 주거 공간에서의 학습 과정을 다룬 연구는 흔치 않지만 이윤진 외(2016)는 서울 중랑구 D아파트 책올더공동체를 대상으로 통시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유기적인 학습 과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미성 외(2020)는 제로에너지주택단지인 A주택 주민들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시민들이 어떻게 학습하며, 독자적인 시민 지식을 학습해내는지를 탐색하였으며 성기정(2019)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집 없는 사람들’이 마을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사회교육을 실천하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공동주택의 공동의 공간이 공동체성 혹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동체주택”이라는 제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사회적 약자에게 공동체공간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마을공동체·마을교육공동체에서의 학습 과정을 분석한 연구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평생교육차원에서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한 연구는 관 주도의 “마을만들기” 연구이다.

관 주도의 마을만들기의 문제는 의미 모델에 사로잡혔다는 것이다. 의미 모델이 성과를 중시하는 효율성의 모델이라면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는 여러 특이점을 오가는 탄력성의 모델인 재미 모델이다. 재미 모델에서 공동체의 장(Field)은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다양하게 배치된 리좀적(Rhizome)¹⁾인 판이다. 재미 모델의 공동

1) 20세기 말에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가 이론화한 ‘리좀적 사유’는,

체에선 양적인 성과가 아닌 질적인 성숙을 강조하며 지금-여기(Here and Now)를 중시한다(이태영, 신승철, 2022).

본 연구는 평생교육학계에서 주로 주목해왔던 관 주도의 마을만들기 제도가 아닌 의미보다 재미를 추구하는 공간인 공동체주택에서 긴밀하게 공동의 생활을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형태의 학습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필수 불가결하게 물리적인 측면인 “공동체공간”이 갖추어 있으며 사회적인 측면인 “공동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제도적인 측면인 “공동체규약”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공동체주택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공동체주택의 구성원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어떻게 구성해가는지, 그들이 정의하는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주목한다.

2. 연구문제

첫째, 공동체주택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공동체성”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공동체성”은 편재성, 무시간성, 무장소성, 무역사성의 보편성을 지닌 공동체성이 아닌 역사성, 장소성, 국지성을 지닌 공동체성이다. 즉, ‘공동체주택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전통적 농경사회의 마을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터득되었던 공동체성은 산업사회 이후 20세기 기술과 물질문명의 대가로 맞이하게 된 인간소외 현상으로 치환되고 현대사회에서 이웃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으며 고독사, 독거노인 등의 문제²⁾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주거

위계적으로 성층화된 나무 구조에 대립하여, 하나의 통일된 구조 혹은 시스템 내에 통합되지 않는 비위계적이고 수평적인 복수성을 의미한다.

2)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27만 5316명이던 독거노인 수는 2021년 167만 416명으로 30.9% 늘었으며 ‘65세 이상 인구 사망자 수 및 무연고 사망자 수’에 따르면,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2015년 666명에서 2020년 1331명으로 약 2배(99.8%) 가까이 급증했다. 2021년 혼자 죽

형태인 공동주택은 이러한 현상을 대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에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를 담은 공동의 규칙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관심, 소통, 나눔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파트 주민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자신들의 가족에 한정되어 관계하고 타인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다(홍두승·이동원, 1993; 박철수 외, 1993). 아파트의 생활은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와 공동체 삶의 상실을 드러낸다. 공동주택이란 주거 형태를 통해 주민들은 물리적 편리함과 자유로움은 느낄 수 있겠지만 사회적 관계망이 주는 혜택, 공동체 공간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최병두, 2000).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공동체주택 주민들은 보다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공동의 시간, 공간, 비용을 사용하며 “공동체성”을 배운다.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기 위해 배워가는 공동체성이란 무엇일까? 이 공동체성은 공동주택에서 서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배우게 되는 소극적인 공동의 규칙과는 무엇이 다를까?

둘째, 공동체주택 구성원은 그들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학습해가는가?

공동체주택에서는 공동주택과는 다른 시간, 공간,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체주택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육아, 회의, 취미 모임, 여행 등 이들이 함께하는 활동과 언어 속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포착할 수 있다. 이미 형성되어 고착된 문화도 있고 변화하는 문화도 있으며 새롭게 생성되는 문화도 있다. 주도적으로 문화를 생성하는 구성원도 있으며 이에 반발하며 협상을 하기도 하고 뒤늦게 참여하여 학습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화 학습 과정은 구성원마다 양상이 다르다. 연구자는 공동체주택만의 문화가 무엇인지 관찰하고 구성원마다 공동체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문화에 동화하며 적응해 나가는지를 포착하고자 한다.

음을 맞은 무연고 사망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3159명으로 2017년 2008명에 비해 57.3% 증가하였다. 특히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 늘어났다.

II. 이론적 배경

1. 공동체성

공동체의 기원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농업혁명 이전 선사 시대에 인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이었다. 오늘 하루 사냥을 해서 먹잇감을 찾지 않으면 굶어 죽었어야 했다. 사냥감은 작은 동물부터 큰 동물까지 다양했는데 맘모스 같은 큰 동물은 일대일로 사냥해서는 잡지 못하였다. 그래서 20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사냥을 갔고 그렇게 사냥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사냥 같은 위험한 활동뿐만 아니라 채집이나 어로 같은 활동도 함께 모여서 같이 수행하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공동체의 기원이다.

공동체의 역사는 기원전 6세기 불교 승가공동체부터 유대교의 근본주의 율법공동체, 기독교 초대교회 공동체로 기록한다. 19세기 공동체 운동은 유태피아를 지향했던 종교공동체가 세속에서 고립되어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를 시도하였으며 한편으로 사회주의자나 ана키스트들은 협동조합이나 대안적인 사회를 이루려는 시도를 하였다(김성균, 2010).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기, 반전운동과 세계적인 학생운동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에 협동조합주의적 접근, 시민사회 운동적 접근, 코하우징과 같은 ‘대안가족운동형태’의 다양한 공동체가 구성되었다.³⁾ 퇴니스는 전통사회의 공동체(게마인샤프트)와 현대사회의 공동체(게젤샤프트)를 비교하였다. 농촌에 상점이 들어서며 도시화되는 현상을 몸소 체험하였던 퇴니스가 대비한 두 가지 공동체 개념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Tonnies, 1957). 퇴니스는 산업화를 기존 질서의 해체로 보았으며 전통적 가치와 도덕의 약화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다(강대기, 2001).

3)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MMUNITY

<http://www.ic.org>

<표 1> 계마인샤프트와 계젤샤프트 비교

	계마인샤프트	계젤샤프트
개념	전통적 농경사회의 자연적 인간결합	산업사회의 계약적 결합관계
의지	본연의지; 유기체의 뇌세포와 같이 인간의 타고난 사고능력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희생 정신이나 함께 자란 형제간의 친밀함 같은 것	합리적인지; 의도적이며 목적 지향적. 가장 합리적이고 상황 조건적인 사고.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동기. 행위 결과에 대한 손익 계산. 본능적인 희생이나 비합리적 감정발동 억제
삶의 장	가정, 농촌부락, 소도시	관료제 조직
사고	감정적	이성적
태도	과거에 기초	미래에 기초
성질	상호작용하며 상대방의 내면적 세계를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해 동정적 태도를 보임	공식적이고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 하거나 상대방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음. 합법적이고 규칙에 의한 업무수행

공동체(共同體)는 함께할 共, 한 가지(서로 같게 하는) 同, 몸 體로 이루어진 단어로 즉 “함께 서로 같게 되는 몸”이라는 의미이다. 이진경(2011)은 공동체를 가리키는 코뮤니타스(Communitas)라는 말은 ‘증여’, ‘의무’를 뜻하는 무누스(Munus)에 ‘함께’, ‘결합’을 의미하는 Com(cu)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라고 서술한다. 공동체가 증여의 의무를 통해 개인이 타자와 결합된 관계, 증여를 통해 타자에 자신을 여는 관계, 그리하여 타자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관계를 표시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증여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선물’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받고 싶지 않은 것, 예컨대 ‘폐’ 같은 것도 포함한다. 선물을 주고받으며, 혹은 폐를 끼치고 끼침 당하며 서로를 향해 존재를 열 때 공동체가 된다.

공동체성(共同體性)은 공동체의 성질, 성품을 의미한다. 공동체성의

공(共)은 “함께하다, 같게하다”의 의미로 연대의식, 소속감, 유대감과 관련이 있고 “공변되다”, “숨김없이 드러내 놓다”, “공적인 것” 등과 관련 있는 공공(公共)의 공(公)과는 다르다. 후자의 공공성은 영어로 Publicness로 번역된다. 이는 집합성, 집단성, 공동성의 의미를 가진 Collectivity와는 다르게 사용되며 “여럿 사이에 공통되는 성질”의 공통성(共通性), 공용성(共溶性), 공유성의 영어 번역인 Commonality, Commonness와도 다르다.

공동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커먼즈(Commons)이다. 커먼즈는 공동체에서의 “공유자산, 공통-부, 공통재, 공유재, 공유 활동 자체”(이태영, 신승철, 2022: 114) 등을 말한다. 커먼즈는 우리 주변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공기, 물, 햇빛, 바람, 산 등 생명과 자연을 더불어 집단지성, 생태적 지혜, 일반 지성 등 비물질적인 공유자산을 포함한다. “공유지의 비극”⁴⁾은 개인이 사유재산으로서의 양이나 소를 키우기 위해 공유지를 무한정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면서 초원이 불모지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태영과 신승철(2022)은 이러한 규율, 처벌이 없는 시스템은 엄밀히 따지자면 공유[재]가 아니며 진정한 공유[재]에는 “양심이 있는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동체로 철저히 분리된 개인으로서만 가능하지만 공동체는 공유지와 분리될 수 없으며 공동체가 풍요로워지는데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커먼즈의 사상적 배경에는 스피노자의 공통관념(Common Concept)이 있는데 스피노자 철학의 특징은 ‘특이성(Singularity)을 사랑하는 공통성(Common)’을 가진다는 점이다. 즉, “사랑할수록 같아진다”는 동일성이 아닌 “사랑할수록 달라진다”는 원리이다. 연대하고 사랑할수록 다양하고 특이해지며 이러한 특이성이 공통성을 풍부하게 한다. 커먼즈 사상에서

4) 공유지의 비극은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은 개방적인 자원에 개인이 이익에 따라 행동할 시 자원의 고갈을 일으키는 경제 과학적 상황을 설명한다.

공통성은 “편재성, 무시간성, 무장소성, 무역사성”을 지니는 보편성(Universality)이 아닌 “역사성, 장소성, 국지성”을 지닌 공통성을 특징으로 하여 지금-여기(Here and Now)를 강조한다. 국가주의가 보편성을 추구하며 현실에 적용한다면 공동체성은 현실을 복잡계(Complex Systems)로 보고 특정한 환경과 상황을 공동체로 만든다(이태영, 신승철, 2022).

공동체성은 공동체 의식(Communal Spirit), 공동체 정체성(Community Identity) 혹은 공동체 문화(Community Culture)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각 단어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공동체성과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김대건(2019)은 Communityness가 우리의 언어인 공동체가 가지는 다양한 요인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Communityness로 상호 번역한다.⁵⁾ Communityness가 본 연구의 공동체성의 의미와 유사하지만 Communityness는 한 웹사이트에서 정의했을 뿐,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상태(특징); 공동체적인 일치(조화); 연대감, 단결심”⁶⁾의 의미를 가진 Communalität를 사용하고자 한다.

Communalität는 옥스퍼드 학습자용 학술영어사전(Oxford Learner's Dictionary of Academic English)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1. 공동체적으로 되는 상태(the state or condition of being communal), 2. 공동의 관심과 목표로 유발되는 협력과 소속감의 정신(a feeling or spirit of cooperation and belonging arising from common interests and

5) Communityness is the feeling that people experience when they feel connected to the place they live. It is the feeling of being a part of something larger, connected to your neighbors and fellow community members, a feeling of engagement and th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community at large. Cities and towns that foster a sense of “communityness” benefit in a myriad of ways including more engaged citizens, healthier politics, and increased talent retention and attraction(Heritage Ohio, www.heritageohio.org).

6) 네이버 영어 사전

goals)”이라는 의미가 있다.⁷⁾ 본 연구에서 공동체성은 연대감, 연대의식, 협동 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Communality로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다.

공동체성의 이점은 타자와의 교류, 상호작용, 관계성을 통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술하였듯, 선사시대의 인간들은 혼자서는 사냥감을 잡지 못하여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현대사회 역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확연히 떨어짐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과 그의 배우자인 오노 요코는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반면 공동체성의 집단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처럼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무리와 군중에 휩쓸려 주체성을 잃고 집단의 구성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게젤샤프트적 공동체에서의 현대인들은 개인이 없고 일방적으로 집단에 희생하는 것을 거부한다. 개인이 있으며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가운데 협력하는 형태의 관계성이 나타난다. Buber(1947)은 “개인주의는 인간을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고 집단주의는 인간 일반을 보지 못하고 단지 사회만을 볼 뿐이다”라고 말하였다(장원섭, 장지현, 2012).

본 연구에서 공동체성(Communality)은 개인의 개성, 특성의 의미인 Individuality 혹은 특이성(Singularity)과 집합성, 집단성, 공동성의 의미인 Collectivity 혹은 보편성(Universality)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고자 하는 변증법적 성질을 갖는 개념이다. 공동체와 관계 맺는 것은 공동체의 규칙, 제도, 문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망을 통해 단절과 고립으로 이루어진 현대인들에게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점들을 보여줄 수 있다(이태영, 신승철, 2022).

7) <https://www.dictionary.com/>

1) 공동체운동

공동체운동은 서구화·산업화·도시화를 지나며 자본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시류가 된 세태 속에 공동체가 해체되어 자연과 인간소외가 만연한 상황을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운동이다. 과거 전통적 마을공동체로의 회귀는 불가능하지만 그로부터 지혜를 얻고 일상의 삶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이러한 공동체운동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비롯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과 의료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생활협동운동은 모든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협동과 연대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생협은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여 유통하는 살림 운동이다. 식사, 세탁 등 주거 생활의 일부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공동 주거 운동, 자동차를 공유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복하려는 자동차 공유 운동 등도 유럽에서 활발하며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공동체운동이나 담장 허물기 운동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조합원이 의사와 동등한 주체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을 만든 의료생협, 공동육아를 비롯한 기존 학교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시작된 대안학교, 자유학교, 홈스쿨링 등의 교육운동이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주류가 되었던 사회운동에서 생활세계 운동인 공동체운동으로 확장되었으며 둘의 차이는 사회운동이 사회제도·정책적 차원의 개혁을 추구하는 반면 공동체운동은 시민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구체적 삶의 터전에서 맺어진 관계적 힘이 제도와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이근행, 2005).

사회운동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학습의 차원을 분석한 연구는 다양하다. 김민호(1998)는 인천 ‘노동자대학’ 합법화 운동을 사례로 노동교육 운동 관련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노동교육의 의미와 노동교육 운동 발전 전망을 해석하였다. 그는 또한 제주 화북주공아파트 주민운동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사회운동 과정 속에서 길러지고 지역

주민들이 자치 의식을 무형식적으로 학습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교육의 형식과 의미를 재발견하고 사회운동을 학습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다(김민호, 2003).

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수평적, 수직적 확장학습을 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김민호, 2014). 허준(2006) 역시 핵폐기장 유치 반대 운동에 참여하였던 전라북도 부안 주민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로 사회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동체학습의 특성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온라인 사회운동 출현에 따라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뿐 아니라 온라인 역시 사회운동학습 공간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허준, 2012).

사회운동에 더하여서 공동체운동의 학습적 차원을 분석한 연구 역시 다양한데 이혜영(2000)은 한국의 홈스쿨링 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였으며 정경순(2014)은 사회적 경제와 평생교육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 외에도 사회운동 참여를 통해 학습하는 양상에 대한 연구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운동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 관한 연구(정혜령, 2006), 사회운동경험을 가진 여성정치인들의 학습 과정에 관한 연구(김수정, 2013), 노동운동 출신 지역활동가의 학습 활동 연구(신민선, 강대중, 2021)가 있다.

2) 마을교육공동체

공동체운동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와 교육, 의료 분야에서 펼쳐졌으며 특별히 교육학계의 관심은 ‘마을’과 ‘교육’이었다. 공동체운동이 이루어지는 적절한 규모는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만큼 크고, 얼굴을 대하는 관계와 직접적 소통이 가능할 만큼 작은 수준을 제시한다. 인류 역사상 마을공동체의 규모가 현재의 ‘면’ 단위 정도의 수준에서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끼도록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이근행, 2005). 국내 마을공동체 운동은 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시작으로 각 지역에 속한 주민,

시민 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를 자발적으로 활성화하고 작은 규모의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소통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지자체도 이러한 움직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지지를 보냈으며 시민사회로의 성장을 위해 공동체 구현에 힘쓰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주요한 과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선정되어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였고 정부와 주민, 중간 조직의 협력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정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류가 다소 상이하다. 하지만 공통 키워드를 살펴보면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개념이며 사업 유형으로는 마을카페, 공동육아, 마을생협, 마을기업, 마을미디어, 마을축제 등을 실현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의 배경에 “마을만들기 운동”, “마을공동체운동” 등이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과거 전통사회의 마을에서 아이가 마을 어른들에게, 형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웠던 삶에 필수적인 지식, 예컨대 마을 내 다양한 어른들, 형, 누나들, 동생들과 소통, 협력, 배려하며 함께 사는 방법이 현재는 전수되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현대사회에서 교육의 주체는 지나치게 학교에 치우쳐 있어 교과 지식과 일상생활간의 유리가 생겨났기 때문에 마을을 교육의 주체로 바꾸고자 한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역시 각 지자체의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르다.

〈표 2〉 서울시 자치구 별 마을 사업 정의 비교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성북구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 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
마포구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 공동체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돕는 일체의 활동
서초구	골목이 놀이터이고 옆집 아줌마가 이모가 되어 아이를 돌보고 나눔과 협력이 자연스레 이뤄지던 곳이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지역주민 스스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 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반면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 주민 등이 협력·지원·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의 주체를 단순히 학교, 교사, 학령기 학생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마을과 지역사회로 시선을 돌렸고 그로 인해 많은 평생교육학계 연구자들이 “마을”,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마을교육공동체”, “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도시” 등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병찬(2018)은 학교와 지역의 관계 재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교육 운동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현상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신기왕(2021)은 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학습공동체 정책사업을 비교, 분석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마을학습공동체가 제한된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삶 전체를 통해 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배경을 가진 운동이었으며 마을교육공동체는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신념에서 비롯됨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교육청 주도의 교육공동체 사업과 지자체 주도의 학습공동체 사업이 마을교육공동체로 결합 됨에 따라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공유된 철학과 가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교육부는 “평생학습도시”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는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마을 등에 관련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양병찬(2007)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였던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지역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풀뿌리 주민교육 운동을 통한 실제적인 학습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지희숙(2015)은 평범한 주민에서 평생교육 활동가로 성장한 평생학습매니저의 학습경험의 실재를 기술하고 학습 활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양병찬(2015)은 시흥시 학습 마을 사례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과 주민의 평생학습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의 사회참여형 학습을 특징을 연구하였다.

3) 공동체주택과 성미산마을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공동체주택”은 핵가족화되고 파편화된 개인주의의 도시 생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주거라는 방식의 공동체운동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공동체주택의 개념은 1980년대 초반 덴마크에 사는 몇몇 사람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덴마크에서 나이

가 들면 자신의 집에서 혼자 쓸쓸히 죽어가거나 요양원에 가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지내는 방법뿐이었는데 이들은 스스로 거주지를 선택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살고자 하였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 알아가며 가까워졌고 함께 살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의 움직임은 지방정부, 주택조합,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1987년 코펜하겐 내 노인용 코하우징(Co-housing)을 만들었다(Moulvad, 1994).

기존의 주거 방식을 바꾸고자 하였던 민간 실수요층의 작은 모임이 덴마크의 노인 복지 체제에 대안적 주거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북유럽에서 시작된 코하우징은 1990년대 GEN(Global Ecovillage Network)⁸⁾ 설립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하우징의 사례가 생겨났으며 미국에서는 매카멘트(Mc-Cament)와 듀렛(Durrett)에 의해 도입되어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에 가장 많은 코하우징이 설립되어 있다(최정신, 2009). 미국 코하우징협회는 “계획과정의 주민 참여, 주민교류를 위한 환경 디자인, 개별주거를 보완하는 공유시설, 주민에 의한 관리, 비계층적 구조,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동경제 활동을 목표로 하지 않음”(김란수, 2019) 6가지를 코하우징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공동체주택 출현은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 첫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독거노인과 만혼·비혼 인구의 증가로 1인 가구가 늘어났으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1인가구에게 인간관계망 구축뿐 아니라 안전한 주거환경이 공급될 필요가 있었다. 둘째, 2010년대 들어서 서울의 전세가가 폭등하게 되며 예전과는 달리 가격이 싼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져 주거비 부담 확대에 따라 주거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경제적 측면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와 핵가족 형태의 주거문화가 주류가 되며 공동체의식 약화로 인간소외, 고독, 육아 등의 사회적 측면의 생활문제가 발생했다.

국내 공동체주택은 서울시 성미산마을 내에서 안정된 거주 공간을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마련하기 위해 2001년부터 10여 가구가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2010년 “함께 살아 행복한 집(함살집, 가칭)”⁹⁾이라는

8) GLOBAL ECOVILLAGE NETWORK <http://www.ecovillage.org>

공동체주택 전문 시행사를 창업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동체주택이자 연구자가 사례로 설정한 함살집은 2011년 4월 성미산 일대에 1호가 완공되어 마을기업 3곳과 9가구가 입주하였다. 2022년 현재 함살집은 성미산 일대에 8호, 화곡동, 성북동, 삼각산, 홍은동, 신내동, 부천, 과천, 부산 등 총 19개가 있다.

공동체주택은 공급방식에 따라 3가지로 나눈다. 입주자들이 스스로 입주자를 모으고 건설 및 시공한 후 자가주택으로 소유하는 “자가소유형”, 공공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는 대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민관협력형”, 임대사업자가 임대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임대형”이 있다. 연구자의 배경이 되는 성미산 함살집 8호 “따공(따뜻한 공간, 가칭)”은 민간임대형으로 시작하여 10년 동안 대출이 상환되면 자가소유형으로 바뀌는 형태이다.

가장 많은 함살집이 위치하며 연구자의 사례인 함살집 8호 따공이 위치한 성미산마을은 서울시 마포구 내에 성산 1동, 성산 2동, 망원동, 연남동 방향의 성미산을 중심으로 연결된 크고 작은 70여 개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일컫는다. 2001년도 서울시에서 성미산 배수지 개발 계획을 발표한 후 주민들의 반대 활동과 투쟁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성미산마을”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웃의 존재, 마을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민들 간의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주민들의 반대 운동은 성미산마을 내 커뮤니티 활성화의 시발점이 된다.¹⁰⁾

성미산마을은 과거 전통 마을과는 다르게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과거 끈끈했던 공동체성에 비해서 도시 공간의 폐쇄성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을 일일이 확인 할 수 없다. 마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활동, 축제, 단체에 참여하여 스스로를 드러낸 후 성미산마을의 일원임을 확인하게 된다(유민선, 강대중, 2013). 함살집 성미산마을에서 시작된 이

9) 연구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체주택 시행사인 “함께 살아 행복한 집(함살집)”과 함살집 8호 “따뜻한 공간(따공)”은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가칭이다.

10) 성미산마을 <https://sungmisan.org/>

유는 공동육아를 하고자 하였던 마을 내 활동가들의 의지였다.

성미산마을에는 1994년 설립된 “우리어린이집”을 비롯해 5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있으며 “도토리 방과 후 학교”, “풀잎새방과후” 등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04년 초중고 장애-비장애 통합 12년제 학교 성미산학교가 개교하였다. 공동체주택이 터를 잡고 지속하는데 있어 성미산마을은 교육뿐 아니라 문화·경제적 차원에서 역시 다양한 활동, 모임 등을 통해 대안적인 시도를 지속하고 있어 마을 내의 각종 물적·인적 인프라를 누리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2. 공동체 학습

1장 1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개념은 협력학습, 그룹학습, 집단학습, 공동체학습, 조직학습, 팀학습, 네트워크 학습, 협동학습 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에서도 집단학습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학습하는 개념이며 공동체학습은 공동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하나의 가치관, 공동체성 체득을 강조한다. ‘함께 배우기’는 집단학습과 공동체학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학습하는 동시에 각자가 하는 배우의 과정을 의미한다(장원섭, 장지현, 2012).

함께 배우기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관점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해석적 관점으로 나뉜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선 보다 효율적으로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을 강조한다. 조직 내 개인들이 주어진 과제들을 처리하며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집단학습의 목표가 된다. 즉, 여기서 학습은 수단적으로 기능한다(Argyris, Schon, 1996; Wenger, McDermott, Snyder, 2002; Wilson, 2007; 장원섭, 장지현, 2012).

해석적 관점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함께 배우는 과정을 통한 공동체 정체성 형성을 중요시한다. 구성원의 개별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성장을 통한 공동체성을 습득하고자 한다. 학습은 그 자체로

함께 배우기의 과정이 된다(Brown, 2000; Lave, Wenger, 2000, 장원섭, 장지현, 2012).

함께 배우기에는 모순을 강조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선 긍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 갈등, 타협, 협상의 과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입장은 함께 배우며 나타나는 갈등과 문제를 직면하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으로 본다(Engestrom, 2001; 2008).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해석적 관점과 모순과 갈등을 직면하며 이를 해결해 나가며 학습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다.

1) 성인학습이론과 공동체학습

현대사회에서 학습은 “성숙의 과정을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책임”(Jonassen, Land, 2000/2012: 4)이다. 과거 행동주의자들은 행동의 변화를 위해 학습하고 그러한 행동은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가정하였다. 1970~1980년대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학습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교육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진 못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학습의 상황적,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적 개념에 토대를 두고 대안적 학습이론들이 등장했다(Jonassen, Land, 2000/2012).

듀이는 경험의 본질적 속성은 상호작용성이며 교육은 경험의 재구성 혹은 재조직, 경험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교육적 경험은 역사성(연속성)과 상호작용성을 포함하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Dewey, 1938). 노울즈는 성인 학습자는 특정한 경험의 축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며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정체성을 이끌어낸다고 하였다(Knowles, 1980).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 이론에선 개별 학습자와 상황, 공동체와의 관계는 경험을 통해 연결된다. 경험학습은 의미 있는 기술 습득과 인간 발달을 위해 필요한 기초는 실제 학습경험에 있다고 보는 학습에 대한 관점이다.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 이론은 학습자가 더 넓은 세상을

만나며 기존에 믿고 있었던 가치관, 신념, 인식에 전환을 꾀하는 과정이다. 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건에 의해서 학습된다. 이는 아이의 출생, 결혼, 이사 긍정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사별, 질병 등 부정적 경험도 포함한다. 일상에서 늘 발생하는 경험과 각 사람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건을 주목한다. 극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한 사람에게 중요한 학습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양적인 확대를 넘어 질적인 성장을 위해 주목한 개념은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이다. 학습조직이 주목받은 이유는 학습시스템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던 Faure(1972)의 주장보다 구체적이며 관리하기 수월했기 때문이다(송영선, 이희수, 2011). 서구사회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유행하고 있었던 개념을 Senge(1990)가 시스템이론에 기반하여 논의하면서 자리 잡게 되었다(차갑부, 1997).

Senge(1990)는 학습조직을 “종업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요구를 끊임 없이 창출시켜주는 조직, 종업원들의 창의적 사고를 새롭게 전향시켜주고 확장시켜주는 조직, 집단적인 열망으로 가득찬 조직, 종업원들이 함께 학습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조직”(차갑부, 1997: 195)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Watkins와 Marsick(1993, 1996, 1999: 10)은 학습조직을 “계속적인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스스로를 변혁하라 수 있는 능력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으로 정의하였다.

Senge(1990)는 학습조직에서 세 가지 학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다섯 가지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세 가지 핵심 학습 능력은 “열망(Aspiration)을 키우고, 성찰적 대화(Reflective Conversation)를 발전시키고, 복잡성(Complexity)을 이해하는 능력”(Senge, 1990/2014)이다. 다섯 가지 규율은 각각 열망에는 “개인적 숙련(Personal Mastery)”과 “공유비전(Building Shared Vision)”이, 성찰적 대화에는 “정신모델(Mental Models)”과 “다이얼로그(Dialogue)”가, 복잡성 이해에는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가 포함된다. 각각의 규율을 진정으로 학습하는 것은 조직에서 목표를 지속적으로 성취할 능력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다.

시스템사고는 시스템의 개별 부분에만 집중하고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전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사고하는 세계관이다. 개인적 숙련은 스스로 비전을 심화하고 몰두하며 인내심을 기르고 현실을 직면하는 규율이다. 이는 학습조직의 정신적 토대가 되며 개인은 이러한 숙련을 통하여 평생학습을 하게 된다. 정신모델은 개인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일반화, 편견, 이미지를 의미한다. 이를 다루기 위해 내부로 시선을 돌려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드러내 분석하여야 한다. 공유 비전 구축은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공유하는 목표, 가치, 사명감을 만들어 공동의 정체성과 유대감으로 구성원을 결속시키는 것이다. 팀 학습(Team Learning)은 다이얼로그에서 시작되는데 다이얼로그는 개별적인 사고를 넘어 ‘함께 생각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능력을 말한다. 현대 조직은 개인이 아닌 팀이 학습의 기본 단위가 되어서 팀이 학습하지 못하면 조직도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Senge, 1990/2014).

공동체 내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 혹은 공동체의 성장을 설명하는 개념은 “공동체학습”이 있다. Falk(1997)는 공동체의 well-being을 재개념화하기 위해 공동체학습이란 개념을 도입한다. Falk에 따르면 공동체의 well-being 지수를 측정할 때 주로 실업률 같은 경제적인 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공동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학습이 미래지향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공동체학습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발생하며 주민들에게 공유되는 가치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Zhu와 Baylen(2005)은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ies),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공동체학습(Community Learning)을 구분함으로써 성인교육에 있어서 지식 습득과 구성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교육과 학습의 혁신적인 접근으로써의 학습공동체는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학문적 성취를 향상하도록 한다. 즉, 학습공동체는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디자인되었고 따라서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는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Lave와 Wenger(1991)에 따르면, 학습은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CoPs)에서 학생들의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참여를 강화해야 하는 사회적 행위이다. 실천공동체에서 학생들은 일을 함께함으로써 서로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사회를 향한 그들의 관계를 통해 배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천공동체에서의 학습은 “학습공동체”에서의 학습만큼 중요하다. 학생들은 실천공동체에서 실용적인 지식, 즉 직업과 관련되어 있지만 분명하지 않고 복잡한 상황을 다루는데 유용한 지식을 얻는다.

공동체학습은 교육기관이 아닌 무형식적인 공간에서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동체학습은 직업을 다시 얻기 위해 학위나 자격증을 얻거나 특정한 공동체에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삶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한다. 학습공동체가 형식적인 교육기관에서의 배움에 집중한다면 실천공동체는 학문적인 문맥에 처해 있으며 공동체학습은 무형식적인 학습의 장 그 자체이다(Zhu, Baylen, 2005).

실천공동체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동일한 관심 영역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의 공유와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공동체”이다(강황선, 함진, 2008; 정진철 외, 2011; 박보람, 2020). 실천공동체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1세대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 시기이다. Lave & Wenger(1999)는 처음으로 실천공동체의 이론적 기반인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을 소개하였고 학습이 개인의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활동이 아니라 참여함으로써 일어나는 상호참여 과정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상호참여는 수직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직무 기술이 뛰어난 선배에게 일을 배우면서 초심자가 기술을 배우며 일터에 참여하며 학습을 한다는 “합법적인 주변 참여(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하였다. 초심자가 중심부에 참여함으로써 실천공동체의 문화에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며 주변에서 핵심부로의 참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실천과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2세대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실천공동체 영역이 비즈니스 분야에 초점을 두며 기업의 성과 창출의 수단으로 보았다. 이 시

기는 실천공동체를 일상의 측면보다 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문제해결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실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 권력관계, 사회적 실천, 심리적인 이슈를 간과하였기 때문에 비판받았다(Carreon, Drake, Barton, 2005). 그 결과, 3세대인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학습시스템(Social Learning System)으로서의 실천공동체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이 시기의 학자들은 실천공동체를 통한 실천적 지식과 학습은 일터에서만 일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 공동체, 학교, 지역사회, 기업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다시 정의한다(Bawden, 2010; Blackmore, 2010; Wenger, 2010; 박보람, 2020). 이 시기의 실천공동체의 실천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주도적인 여정이며, 사회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학습”(박보람, 2020)이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 Theory)은 프랑스의 라투르(Latour), 칼롱(Callon), 영국의 로(Law)가 1970년~80년대에 구축한 이론이다. 인간뿐만이 아닌 다양한 기술, 문화, 사물, 체계 등의 행위자가 세계를 역동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조문영, 2021). 각 행위자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다른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서만 가치가 있다. 그렇기에 비인간 행위자들과 어떠한 동맹을 맺는가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라투르(2010)는 주체와 대상으로 나누는 이분법을 지양하고 인간과 자연, 주체와 대상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 중간적(hybrid) 행위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나와 연결된 인간 혹은 비인간적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만들어진다(양병찬 외, 2021).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본래 자연과학분야에서 발달하였지만 인문학, 사회과학계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비인간적 행위자, 즉 사물과 시스템 등을 주목하기 때문에 교육학계에서는 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도구, 토론, 미디어 등을 이 이론적 틀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류재훈 외, 2016; 문현진, 2019).

평생교육학계는 교육의 주체를 학교와 교사를 넘어 마을과의 연계, 마을교육공동체와의 관계를 강조하였으므로 학교와 마을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중시한다(한혜정, 2019). 따라서 양병찬과 최정윤(2021)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마을 주민들과 마을의 물적 자원, 지역 고유의 교육 장치들이 어떤 상호작용으로 고유한 교육체계를 만들었는지 분석하였으며 하정호(2022)는 이 이론을 통해 순천 지역에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2) 문화역사적 활동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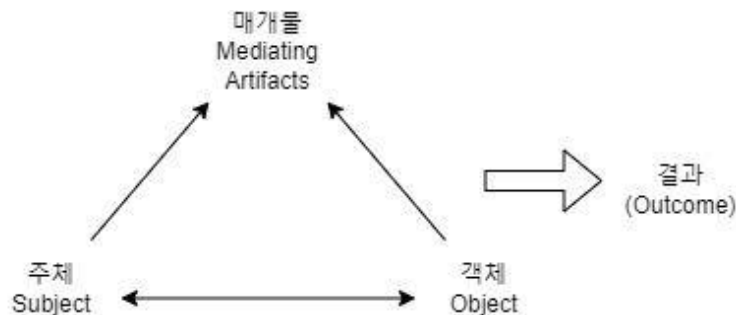
경험학습이론은 학습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였고 전환학습이론은 인지적인 변화와 성장을 강조하였으나 여전히 개인과 집단의 이원론을 극복하지 못했다. 학습조직과 실천공동체는 학교나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교육을 넘어 비공식적 상황이나 실천공동체에서의 학습의 상황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들 역시 개인의 학습, 체계화된 조직에서의 교육과 학습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학습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Kim, Joo, Schied, 2010; Lave, Wenger, 1991; Marsick, Watkins, 1990, 2001; Wenger, 1998; Wenger, McDermott, Snyder, 2002; Yorks, Marsick, 2000; 장원섭, 장지현, 201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주체와 대상,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 그 사이를 중재하는 매개체(Mediation)인 다양한 기술, 문화, 사물, 체계 등의 비인간적 행위자들에 집중하였으나 학습에서의 사회적 권력관계를 고려하는 비판이 생략되어 있다(Engestrom, 1987, 2001; Engestrom, Mietinen, 1999; Sawchuk, 2003; Sawchuk, Duarte, Elhammoumi, 2006; 장원섭, 장지현, 2012).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HAT: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은 학습이 개인을 넘어 문화적, 역사적, 집단속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며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구조와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이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에서 “학습은 개인과 사회를 넘나드는 역동적인 현상이며, 모든 형식적·비형식적 상황을 포함한 공동체, 일터, 혹은 일상의 사회적 상황 안에서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날 수 있

는 것”(장원섭, 장지현, 2012: 363)을 의미한다.

활동이론의 시작은 1920년대 비고츠키(Vygotsky)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학습이론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기반으로 한 인지적 학습 과정에 주목했었고 자극(Stimulus)과 반응(Reaction)을 기본으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보상과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세대 활동이론은 주체(Subject)와 객체(Object) 사이를 매개하는 인공물(Mediating Artifacts)을 추가하여 인간의 활동에는 문화적 매개체가 존재함을 밝힌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비고츠키는 매개체에 의해 중재되고(Artifact-Mediated), 환경 내에서 객체를 지향하는(Object-Oriented)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였다. 이는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을 사회에 종속하는 존재가 아니며 개인(Subject)과 객체(Object)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본다(장원섭, 장지현, 2012). 하지만 1세대 활동이론은 분석단위가 여전히 주체인 개인과 달성하고자 하는 객체인 목표, 이에 영향을 주는 도구에 한정되어 있었다(Engestrom, 1987, 2001).



[그림 1] 1세대 활동이론 모형

2세대 활동이론의 대표 학자는 비고츠키의 제자로 알려진 레온티브(Leont'ev)이다. 2세대 이론은 개인에 초점을 맞춘 1세대 이론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활동 체계를 분석하였다. 레온티브는 개인의 행동이 집단 활동에서 이해된다고 설명하였고 인간 의식과 성숙을 총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사회적 활동(Social Activity)’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분업, 규칙, 공동체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Engestrom, 2008/2014). 그는 사회적 활동으로서 “고대의 집단 사냥”을 예로 드는데 집단 사냥에서 개인의 행위는 큰 의미가 없는 행위이지만 사냥감을 포획하려는 집단의 목표를 본다면 개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활동은 이러한 공동체적 목적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레온티브는 활동이 “인간 행위들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미 있는 맥락”(장원섭, 장지현, 2012: 366)이라고 설명하였다(Engestrom, Miettinen, 1999; Leont’ev, 1978). 그는 ‘활동(Activity)’, ‘행위(Action)’, ‘조작(Operation)’을 구분함으로써 활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 활동은 행위와 조작을 포괄하며 활동은 행위, 조작과의 계층을 형성한다. 행위들에 의해 활동이 이루어지며 조작에 의해 행위가 성취된다. 활동은 가장 추상적이며 행위는 중간으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조작은 가장 구체적인 수준이다(Leont’ev, 1978; Youn, Baptiste, 2007; 장원섭, 장지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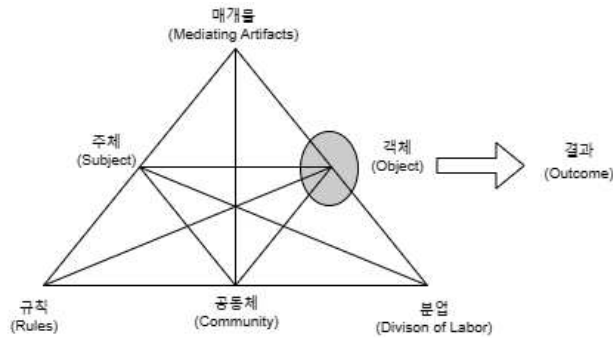
레온티브는 활동을 설명하고자 개인과 사회를 중재하는 매개체뿐만 아니라 분업(Division of Labor)의 개념을 포함했다. 또한 규칙(Rules)과 공동체(Community) 개념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지 않았다(장원섭, 장지현, 2012). 반면 레온티브는 활동, 행위, 동작의 상호작용, 동기(Motive), 목표(Goal), 조건(Condition)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을 뿐 비고츠키의 모델을 집단 활동 체계 모델로 확장하지 못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Engestrom, 1996).

3세대 활동이론은 1세대 비고츠키 모델의 기호를 발전시켰으며 2세대 레온티브의 활동 개념을 확장시켰다. 3세대 활동이론에 중심에 있는 앙게스트롬(1994, 1999)은 도구에 매개된 인간 행동이 아닌 활동체계 내에서 ‘마음’에 관심을 두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3세대 활동이론에서의 분석 단위를 ‘공동체’로 넓히는 변화를 만들었다. 활동이론의 1세대 학자 비고츠키는 인간을 반사적, 즉각적, 초보적인 낮은 기능에서 과학적, 의식적, 정신적인 높은 기능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았다. 기존의 학습이론에서 인간을 단순히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 존재로 여기는 점을 비판했으며 ‘언어’를 통해 낮은 정신기능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협력적

활동을 통해 높은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성열관, 2018).

활동이론이 비고츠키와 레온티브의 학문을 이어받은 점은 인간의 행동이 단순히 자극(Stimulus)과 반응(Reaction)이 아닌 그 사이의 매개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비고츠키는 이 매개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고등 정신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다만 엥게스트롬은 기호를 주요 매개로 본 비고츠키보다 활동을 주요 매개로 본 레온티브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비고츠키는 주체-객체 사이의 매개물을 ‘언어’로 두었고 레온티브는 매개물로 ‘활동’을 두었다. 여기에서 엥게스트롬은 주체-객체 사이에 ‘공동체’를 추가하였다.

엥게스트롬은 활동체계를 확장한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활동체계에는 주체(Subject), 객체(Object), 규칙(Rules), 공동체(Community), 분업(Division of Labor), 매개물(Mediation Artifacts)이 있다. 주체-객체-공동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수단을 주체-객체 사이의 매개인 도구, 주체-공동체 사이의 매개인 규칙, 공동체-객체 사이의 매개인 분업으로 보았다. 이러한 활동체계가 상호작용하며 성장하고 발전하여 결과(Outcome)를 만들어낸다고 하였다(성열관 외, 2019).



[그림 2] 3세대 활동이론 모형

주체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혹은 집단이며 객체는 하나의 활동의 목표가 되며 다른 활동들과 구분된다. 매개체는 이데올로기, 관습, 모임, 언어, 신호, 상징체계, 컴퓨터, 예술품, 도구 등과 같은 ‘추상적, 물리적, 문화적 도구들과 신호들’이다. 규칙은 명시적 혹은 비명시적 법률이나 관

습을 의미하며 객체를 향한 주체의 행동과 활동을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제한한다. 공동체는 같은 객체를 공유하고 하나의 활동을 긴 기간 동안 함께 협력하는 개인이나 집단이다. 분업은 활동 참여자들 간에 주어진 과업이나 과제, 역할에 따른 권력과 지위에 근간한 사회적 계층이다. 결과(Outcome)는 객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객체를 이루고자 활동체계 안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도출되며 의도적, 비의도적인 것을 포함한다. 객체는 활동의 대상으로 매개체를 통해 결과물로 변환된다. 활동의 결과는 활동이 수정되고 새로운 행위나 활동이 창조되어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확장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장원섭, 장지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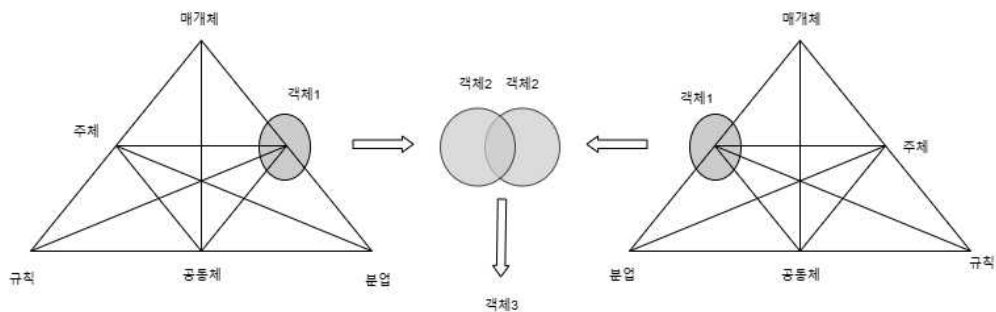
3) 확장학습이론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에서 학습은 사회·문화·역사적으로 축적된 인간의 집단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이다(장원섭, 장지현, 2012). 따라서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에서 활동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역사성을 중요하게 다루며 멈추어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또한 학습과 교육을 학교 혹은 형식적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계획적 활동이 아닌 삶, 직장, 공동체에서 일상적, 비형식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며 학습의 결과 역시 활동들에 의해 생겨나는 비의도적인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에서 학습의 결과는 개인과 공동체의 확장적 전환(Expansive Learning)이라고 본다. 인지·행동적 변화, 정보·지식의 획득, 과제·문제의 해결 등과 같은 개인 차원의 학습과 근본적 문제해결, 지식 공유, 새로운 활동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의 창출 등과 같은 조직·공동체학습이 확장학습의 결과인 것이다(Argyris, 1977; Argyris, Schon, 1978; Fiol, Lyles, 1985; Engestrom, 1987, 2001; Levitt, March, 1988, Crossan, Lane, White, Djurfeld, 1995; 장원섭, 정지현, 2012).

활동체계 내에서 일어난 확장적 학습을 확장학습(Expansive Learning)이라 부른다. 삶은 확장의 장이며 그것이 학습의 과정 그 자체

이다. 그러한 학습의 과정을 통해 새롭고 창조적인 지식이 만들어진다. 3세대 활동이론은 두 개의 상호작용하는 활동 체계의 객체2가 서로 또다시 상호작용함으로써 객체3을 생성해내는 집단학습의 창발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Engestrom, 2001; 윤창국, 박상옥, 2012). 객체1은 의도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원재료(Raw Material)이며 객체1에서 활동체계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의미 있는 객체 2로 나아간다. 그리고 활동간의 다양성은 모순을 야기하며 활동체계 내의 구성원들이 이 모순을 협상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객체2가 공유되고 결합되며 객체3를 만들어낸다. 객체3은 객체2에서 만들어진 결과와 함께 새로운 모습의 의도적인 혹은 비의도적인 결과들을 생산한다(장원섭, 장지현, 2012).



[그림 3]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활동체계

확장학습은 각 활동 간의 모순(Contradiction)을 강조한다. 모순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여기지 않고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통합을 이루어 가는 개념으로 여긴다. 확장학습은 인간의 학습이 공동체가 처한 모순들로 인하여 생기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더불어 집단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본다. 확장학습의 핵심은 현재의 ‘모순’으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더 고차원적인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개인의 차원일 수 없으며 “조직의 조건이나 관계성 자체의 뒤틀림에서 유발되는 것이며, 이 문제의 해결이란 결국 집단학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한승희, 2019: 145-146).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롭거나 수정된 객체를 추구하며 기존의 활동이

재구조화되거나 재창조될 때, 학습의 창조적 전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확장적 전환을 통한 학습이 확장학습이다(Engestrom, 2001; 장원섭, 장지현, 2012).

모순은 활동체계에서 활동의 대상들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의 활동 내의 각 요소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Engestrom, 2001). 엥게스트롬(1987)은 모순을 4가지 수준의 모순으로 나누었다. 1차 모순(Primary Contradiction)은 활동체계 내부의 각각의 요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자본주의 사회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2차 모순(Secondary Contradiction)은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으로 새로운 도구의 등장이나 분업체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 생겨난다. 3차 모순(Tertiary Contradiction)은 기존의 활동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진보된 객체를 지향하는 중심활동이 소개될 때 생긴다. 4차 모순(Quaternary Contradiction)은 중심활동과 가깝게 연계되어 있는 이웃 활동들 사이에서 발생한다(장원섭, 장지현, 2012).

엥게스트롬은 확장학습이 역사적으로 축적된 모순에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이라고 보았다. 학습은 문제가 발생한 상황과 맥락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확장학습은 맥락적이고 역사적이며 활동 체계의 상호작용과 다상성(Multi-Voicedness)을 중시하며 모순이 학습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변혁적이고 전환적인 학습이다. 이와 같이 활동이론은 확장학습일 수밖에 없다. 활동이론에서 학습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체계 내 각 요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며 다시금 활동 체계를 만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모순을 확장적으로 해결하는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공동체학습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에서 상호작용하는 학습은 사회적 과정이자 창조적 과정임을 밝히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무형식학습의 맥락과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Engestrom, 2008/2014).

엥게스트롬(2001)은 확장학습을 분석하는데 있어 역사성, 네트워크, 다상성의 개념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활동체계는 장기간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활동체계의 역사성(Historicity)을 분석할 수 있어

야 한다. 해당 활동체계의 현지(Local) 역사와 더불어 전체적인(Global) 역사도 분석해야 한다. 또한, 활동체계는 또다른 활동체계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활동체계 내 주체인 개인 혹은 집단은 또 다른 활동체계와 관계를 맺고 있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활동체계는 상이한 목소리, 관심, 전통이 공존하며 다양한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 갈등과 협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다상성(Multi-Voicedness)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성열관 외, 2019).

윤창국과 박상옥(2012)은 활동이론의 이론적 발전과 평생교육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평생교육의 연구주제는 실제적인 현상과 사례, 정책적 제안과 같은 영역은 다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을 관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이론 체계를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활동이론이 집단적이고 무형식적인 학습의 장면을 포착하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이론임을 밝혔다. 박상옥(2009)은 지역사회 실천조직인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며 활동함으로써 주부들이 환경활동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하고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주부들은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며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뿐 아니라 주변적 참여에서 완전한 참여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자신의 전문분야로 발전시켰다. 또한 학습동아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이 인접한 활동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모순들을 해결하며 재구성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김종선(2013)은 문화역사적 활동이론 관점에서 ‘남양주시 평생학습매니저’의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확장학습 과정을 밝혔다. 학습매니저의 활동은 주체적 참여 정도에 따라 활동이 확장되었고 활동의 확장은 학습매니저가 활동 체계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동 체계를 생산하는 확장학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학습매니저가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강한 연대 의식을 가진 실천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김다슬(2021)은 종이 신문에서 온라인 신문으로 독자들의 신문 구독 취향이 바뀌는 현상을 마주한 한 신문사에서 과

거의 문화 익숙한 구성원들과 새롭게 들어온 구성원들 사이의 피할 수 없는 모순을 극복하며 발생하는 집단의 학습 과정을 활동이론 체계로 분석하였다.

정리하면 확장학습은 학습의 과정이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 내에서 발생한다고 보며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본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은 매개물을 통한 학습의 고차원적 발달 수준을 강조한다. 또한 모순의 해결을 통해 새롭거나 수정된 객체를 지향하며 기존의 활동들이 수정되거나 활동 간의 관계가 재구조화되며 확장학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확장학습은 개인과 공동체의 창조적·확장적 전환을 이끌어낸다(장원섭, 장지현, 2012).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은 학교 혹은 형식적 교육기관 같은 명확하고 체계화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상황에서 성인학습을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서 일상적이고 비공식적 상황에서 성인학습을 이해하는 유용적 틀을 제공한다(Engestrom, 2001; Sawchuk, 2003; 장원섭, 장지현, 2012). 즉,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학습하며 변화하고 성장해가는지 구체적 틀을 제공해준다. 또한 학습이 실천공동체에서 자유롭고 수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상적인 해석을 극복하였다(Engestrom, 1987, 2001; 장원섭, 장지현, 2012).

하지만 여전히 이론의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활동의 추상적 성격으로 인해 활동의 대상·동기·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활동체계 내 상호작용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의 확장적 전환으로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분석하는데에 한계가 있다(Davydov, 1999; 장원섭, 장지현, 2012). 그리고 활동체계의 구성요소 중 규칙, 공동체, 분업의 경계가 애매하다. 공동체와 분업 내에서 새로운 규칙이 있으며 구성요소의 규칙과 이러한 규칙들이 충돌할 수 있다(Youn, Baptiste, 2007; 장원섭, 장지현, 2012).

Ⅲ.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개인이 어떻게 지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는지에 집중하는 연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무형식학습 과정을 경험연구로 관찰한다. 연구자는 “공동체공간”이 공유되고 공식적, 비공식적 “공동체활동”이 이루어지며 지켜져야 하는 “공동체규약”이 존재하는 주거 공간에서 공동체주택에서 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공동체주택의 구성원들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이고 그 문화를 무언의 방법으로 습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들이 문화를 만들고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공동체학습”으로 본다. 따라서 구성원의 행동, 삶의 방식, 신념, 가치 등을 이해하고 자세히 기술하기 위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에 초점을 두는 질적 연구인 문화기술지(Ethnography)적 사례연구를 연구방법으로 결정하였다. 문화기술지는 “한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의 기록이자 연구자가 연구 집단의 삶을 참여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그들의 가치, 지식,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조용환, 1999: 114).

문화기술지에서 활용하는 자료수집방법에는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가 있다. 조용환(1999)은 참여관찰이 연구자가 특정 집단의 일상 세계의 비교적 장기간 참여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 해석하는 것이며 심층면담은 참여관찰의 일부로써 참여관찰하는 동안 갖게 되었던 의문들을 현장에서 면담의 형태로 풀어나간다고 설명한다. 참여관찰과 심층면담뿐만 아니라 연구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현지의 자료(문서, 책자, 각종 기록물, 홈페이지, 웹사이트, 각종 문화재 등)와 연구참여자가 평소에 작성해 놓은 자료(일기, 편지, 수필, 시, 그림, 가계부, 작업일지, 보고서, 의견서, 컴퓨터 통신 기록, 메모, 사진, 블로그 및 미니홈피 자료 등) 역시 연구 현장을 세밀하게 관찰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더불어서 본 연구는 일반적이지 않은 주거환경을 선택한 공동체주택, 공동체주택 중에서도 8번째 함살집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사례연구적 성격을 갖는다. 사례 연구의 대상은 단일

사례의 독특성과 복잡성을 가져야 하며 중요한 상황 속에서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을 이해한다(Stake, 1995/2000). 사례연구는 인식론적 가정을 전제하지 않기에 질문, 형태, 설계에서 유연성과 개별성을 가지며 경계가 뚜렷한 사례를 선택해야 한다(권은선, 2019). Stake(1995/2000)가 제시한 사례연구의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사례 그 자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실행되는 “본질적인 연구”로 사례의 특수성 혹은 평범함으로 사례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 된다. 둘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거나 일반화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적인 연구”이다. 도구적인 연구에서의 사례는 다른 것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다. 셋째, 일반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사례를 연구하는 “집합적인 연구”이다(권은선, 2019).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자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본질적인 연구”인 동시에 이를 통해 ‘공동체학습’이란 개념을 이해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므로 “도구적인 연구”이기도 하다.

1. 연구현장 및 연구참여자

연구자의 사례가 되는 현장은 성미산마을 내에 2021년 10월에 입주한 함살집 8호 따공(따뜻한 공간, 가칭)이다. 따공을 사례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첫째, 가장 최근에 지어진 함살집으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습득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직 적립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던져져 있으며 공동체가 막 형성되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협상하고 타협하며 조정하고 갈등하는 현상들을 풍성하게 관찰할 수 있다. 땅을 보러 다니고 집이 건축되며 입주 이후에 삶까지, 구성원들은 각자 목표가 다르지만 불가피하게 적응하고 살아야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배우게 되기에 다양한 역동(Dynamics)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절충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반복하며 하나의 문화의 요소가 정착된다.

따공 주민들은 성미산마을 내 함살집 1~7호에서 이미 살고 있는 구성

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적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운다. 하지만 합살집 1~8호가 각각 이름이 다르고, 모인 이유도 다르고, 구성원이 달라 문화가 다르며 마주하는 갈등도 다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다. 형식적, 무형식적 학습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함께 사는 삶은 다르다. 따공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주택’이 무엇인지, ‘공동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함께 지낸 지 1년이 지났으며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 초기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화가 정착되며 이 문화를 좋은 삶든 타협하고 받아들이며 적응해 나가는 ‘공동체학습’을 포착하는데 적절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따공의 연구참여자 중 일인은 연구자의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므로 연구자로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라포를 형성하기에 수월하였다. 본 연구는 파일럿 연구를 포함해 최대 1년간 자료수집이 필요한 질적연구이므로 연구참여자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인터뷰를 하는데 신뢰를 얻는 일은 필수적이다.

따공은 5층 건물이며 2층부터 가정집이 있고 공동체공간은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과 시설을 의미하며 커뮤니티 공간인 “쉼터(가칭)”, 쉼터 내 방음실, 마당, 주택, 주차장, 통로와 계단, 옥상,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층의 근린생활시설인 101호와 102호는 각각 임대를 주고 합살집 협동조합 사무실과 영어교습소로 이용하고 있다. 따공은 성인 13명과 자녀 10명, 총 23명이 살고 있지만 본 연구는 성인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므로 각 가정 내의 미성년자 자녀는 연구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구성원들은 주택 내에서 별명을 사용하며 201호 토마스와 얼그레이, 202호 주주와 햇살, 301호 아키와 토끼, 302호 나무와 가나, 401호 드래곤과 하양, 402호 밀크(대학생), 501호 일빠와 별님이 연구참여자이다.¹¹⁾

11) 주택 내에서 별명을 사용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새로운 별명을 만들었으며 호수 역시 조정하여 실제와는 다르다.



[사진 1] 따공 외부



[사진 2] 따공 내부



[사진 3] 따공 공동체공간

연구참여자의 대다수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30~40대의 대졸자로 직무는 다양하나 대기업, 자영업, 공무원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402호의 경우 두 자녀가 대학생이고 언니인 밀크만 상시적으로 살고 있으며 부모님인 바위와 호이, 동생인 넷물은 지방에 살다 간헐적으로 온다. 201호의 토마스 와 얼그레이는 아이 없이 고양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 7세대 중 5세대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체주택에 모이게 됐으며 2세대는 모집이 안 된 상태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합류하였다.

<표 3> 연구자가 임의로 재구성한 호수와 별명

호수	별명	가족 구성원
201	토마스, 얼그레이	고양이 1마리
202	주주, 햇살	자녀 2명 (여, 5세; 남, 2세)
301	아키, 토끼	자녀 3명 (남, 9세; 8세; 6세)
302	나무, 가나	자녀 1명 (남, 8세)
401	드래곤, 하양이	자녀 2명 (남, 8세; 6세)
402	밀크	부모 (바위, 호이)
501	일빠, 별님	자녀 (여 8세; 4세)

2.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자는 2022년 3월부터 파일럿 연구를 시작하여 연구 진행 가능성을 타진해보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본 대학에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심의를 통해 연구 진행 승인(IRB No.2211/002-019)을 받고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크게 문화기술지 연구의 기본 방법인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따공은 한 달에 한 차례 전체회의, 두 차례 임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시사 잡지를 함께 읽는 잡지모임, “따공트립”, “함살집 옥상투어” 등 날 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활동, 어린이날 행사, 옥상꾸미기 행사, 작은 음악회 등 일회성 행사를 진행한다. 연구자는 처음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발표하고 구성원들에게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자는 정기적인 모임인 회의는 가능한 한 모두 참여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모여 공동체학습을 포착할 수 있는 날 빈번하게 방문하여 내부자의 관점을 견지하고 집단의 문화를 흡수하며 구성원과의 라포를 형성하였다. 또한 참여관찰 중 궁금증이 생겼을 때 메모해 두고 심층면담 질문지를 만들고 연구참여자에게 따로 면담을 요청해 심층면담 하였다.

구성원의 허락을 받아 회의와 심층면담의 내용은 녹음하고 전사하였으며 공동체행사와 활동 시에는 사진, 동영상을 찍어 보관하고 현장 메모를 통해 연구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또한 현지자료 수집을 위해 “공동체규약”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개인 SNS, 함살집 카페에 작성한 글 등을 현지 자료로 삼아 코딩하였다. 코딩은 현지인의 관심, 언어, 논리에 따른 “에믹 코드(emic codes)”와 연구자의 관심, 언어, 논리에 따른 “에틱 코드(etic codes)” 두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코딩을 시도하였고 두 코드체제의 특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목록을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몇 개의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반복하여 연구 문제의 해답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초기 면담의 질문은 반구조적 질문지 양식으로 자기소개, 별명의 의미, 공동체주택 참여 계기와 공동체주택 생활의 만족스러운 점과 만족스럽지 않은 점, 갈등이 생겼던 경험 등을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일상생활, 공동체주택 입주 전과 후 등을 자유롭게 대화하였다. 연구가 지속되며 참여관찰, 현지자료조사, 초기 면담에서 생겨나는 궁금증들을 질문하였다. 후기 면담의 질문은 따공만의 문화와 대화의 주제, 성미산마을 활동의 참여 등에 대한 것이었다. 심층면담 참여자 중 9인 중 7인이 1차 면담으로 종료하였으며 2인은 2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였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자 사용한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를 한 구체적인 내용과 심층면담의 질문 목록 역시 부록에 작성하였다. 임원회의 4차례, 전체회의 6차례, 공동체활동 6차례의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11차례, 현지자료조사 8건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질적 연구의 맥락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일은 크게 자료 정리, 근거자료 제시, 결론 도출, 결론 검증으로 이어진다. 월코트(Wolcott, 1994)는 ‘분석’을 기술, 분석, 해석으로 세밀하게 나눈다. 월코트(Wolcott, 1994: 412)에 따르면 기술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see) 하는 일”, 분석은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know) 하는 일”, 해석은 “연

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하게(understand) 하는 일”이다. 본 연구의 과정 역시 월코트의 기술, 분석, 해석의 정의를 따라 구분하지만 세 작업을 복합적, 순환적,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조용환, 1999).

IV. 공동체주택 주민들의 삶

1. 공동체주택이 만들어진 과정

따공에서 함께 사는 7세대 중 다섯 세대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출신이다. 각 부부들은 동아리에서 만나 결혼을 하였고 301호의 아키, 토끼와 401호의 드래곤, 하양이는 공동체주택 입주 전 서울시 구로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았다. 두 가정은 각각 아들 셋, 아들 둘을 키우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아이들의 연령대가 비슷해서 교류하고 네 번의 여행을 함께 떠나며 두 가정이 함께 사는 삶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토끼와 하양이는 망원동에서 한 여성작가의 글쓰기 수업을 함께 수강했다. 글쓰기 수업의 확인 중 한 명이 화곡동에서 함살집을 짓는 내용을 글로 쓰면서 함살집을 알게 되고 둘은 함께 망원동을 돌아다니며 집을 짓는 꿈을 꾸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 가정이 같이 살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알아보며 망원동, 성산동, 연희동, 증산동, 화곡동 등의 작은 땅과 1층이나 2층 집을 보러 다니다 보니 땅이 크고 세대가 많이 모일수록 공사비 부담이 나눠지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가정은 공동체주택 컨설팅 업체인 함살집 협동조합과 상담을 하고 부천 함살집 1호, 도봉산 은혜공동체 주택 등의 오픈하우스를 탐방하며 꿈을 구체화 시킨다. 토끼와 하양이가 땅을 보고 함살집에 문의하면 함살집에서 괜찮은 땅인지, 견적이 나오지 않는 땅인지 사업비 계산을 해주었다. 현재 따공이 있는 땅은 함살집이 먼저 구한 땅이었는데 만족스러워서 선택하였고 7세대가 있는 건물로 지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5세대를 구하였다. 당시 토끼가 SNS로 올린 글이다.

1. 육아를 함께할 지지가 필요한
 2. 저녁먹고 한 숨 돌리며 수다거리를 당장 나누고 싶은
 3. 아파트 들어갈 비용은 어렵지만 아늑하고 튼튼한 집이 필요한
 4. 함께 삶의 지향점을 나누며 설계하고픈
 5. 그냥 같이 살고 싶은
- 댓글, 카톡 환영 합니다♡ (현지자료1)

이 글을 읽고 주로 대학교 동아리를 같이 했던 가정들이 관심을 보였다. 무조건 합류한다기보다 관심이 있어 모임에 참여하고 잠깐 왔다 간 사람들, 모임 중반까지 하였지만 중도 포기한 사람들,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인해 포기한 사람들 등이 빠지고 총 5세대만 남게 되었다. 7세대가 모여야 합리적인 비용으로 건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인을 넘어 지인의 지인까지 입주할 세대를 모집하였다.

302호의 나무와 가나는 지인이 보내준 합살집 모집 공지를 보고 합살집에 함께하게 되었다. 나무는 군대 시절 내무반에서 거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겪고 함께 지냈었던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며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단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충북 보은의 보나콤, 수유리 밝은누리 공동체 등을 탐방하고 공동체 사람들과 밥도 함께 먹으며 교체하였다.

그리고 홍제동 50년된 노후한 아파트에서 15~20년 관계를 맺은 교회 사람들과 살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2~3차례 공유 식탁을 가지고 여행도 함께 다니는 생활을 하였다. 3세대가 함께 살았는데 2세대는 신혼부부였고 1세대는 비혼 여성 두 명이었다. 나무와 가나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고 다른 가정은 덩크족¹²⁾이었다. 그렇게 2년을 살다 나무네는 아이가 크면서 공동육아에 대한 바람이 생겼다. 그리고 나무네는 공동체에서 더 밀접한 관계를 맺기를 바랐지만 다른 세대들은 느슨한 공동체를 원해서

12) 덩크족은 1986년경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형태로 결혼은 하지 아이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가리킨다.

새로운 환경을 찾았다.

따공 내 유일한 대학생인 402호 밀크는 아버지인 바위를 통해 함살집을 알게 되었다. 밀크는 다니고 있는 대학교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밀크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데 바위는 자주 서울에 출장을 와서 잘 공간이 필요하였다. 밀크가 사는 원룸은 3평으로 비좁아서 바위와 밀크는 새로 집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바위는 대학 시절 사회운동을 하였다. 바위는 산업의학전문의로 삼성 전자 LCD 사업부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한혜경씨가 질병을 얻게 된 원인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던 의사 중 한 명이었고 한혜경씨는 지난 2019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8번의 업무상 질병 심의 끝에 산업재해 인정받았다.¹³⁾ 이를 축하하기 위해 반올림¹⁴⁾에서 연 음악회 자리에서 함살집 1호에 사는 터틀(가명)을 만났다. 터틀은 바위와 대학 시절 함께 사회운동을 하던 사이였는데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바위가 밀크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터틀은 바위에게 함살집을 추천해주었다. 밀크는 서울에 집 구하는 일이 비용적으로 어려운데 10년 동안 전세 형식으로 살다 10년 후에 현재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사는 공간보다 훨씬 큰 방 2개 15평 집을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리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처음에는 공동체주택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했지만 미대생인 밀크가 미술관 인턴을 하며 우연히 민들레¹⁵⁾라는 대안교육 관련 잡지를 보게 되며 기대를 하게 된다. 성미산마을 기사가 나왔는데 마을에서 하였던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페미니즘을 교육하는 내용이었다. 스스로를 래디컬 페미니스트¹⁶⁾라고 표현하는 밀크는 이런 분위기의 마을이

13) 삼성 LCD서 일하다 뇌종양 판정 14년... '반올림' 한혜경씨, 8번 심의 끝 “산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44287?sid=102>

14)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https://cafe.daum.net/samsunglabor>

15) 대안적인 교육 담론과 실천을 담아내는 격월간 잡지

<https://www.mindle.org/27>

16) 래디컬 페미니즘(radical feminism; 급진 여성주의)은 모든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남성중심주의를 제거할 근본적 사회 재구성을 요구하는 관점의 여성

라면 호기심이 생기고 살아봐도 괜찮다고 생각하였다.

2. 공동체주택 생활 문화

1) 공동체주택의 제도

· 공동체활동

공동체주택 정의에 따르면 공동체공간, 공동체규약, 공동체활동이 공동체주택의 세 가지 기본요소이다.¹⁷⁾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장 서울형공동체주택의 인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공간계획, 공간운영계획, 공간관리계획에 따라 서울형공동체주택을 인증 받고 시장은 서울형공동체주택의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대출금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자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따공은 민간임대형 공동체주택으로 현재 소유는 함살집 협동조합이고 각 세대는 전세 금액을 내고 임대하였고 10년간 남은 비용이 상환되면 자가소유가 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인증은 필수적인 절차이며 인증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대출이자 기준금리에서 2%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뉘는데 따공은 입주할 때 예비인증을 통과하였고 1년이 넘은 현시점에 본인증을 남겨 놓은 상태이다. 예비인증 통과 기준은 총 100점 기준(체크리스트 70점, 가치평가 30점)으로 85점 이상 취득 시 예비인증을 통과한다. 평가지표의 체크리스트 분야는 최소 공동체공간의 면적이 확보되었는지, 지역사회에 공간과 프로그램을

주의이다. 급진 여성주의자들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가부장제로 바라본다.

17)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개방하는지, 공동체규약이 정비되었는지 등이며 가치평가의 분야는 공동체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역특성의 반영,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여부 등이다.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진행 절차



[그림 4]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진행 절차(출처: 공동체주택 플랫폼)

예비인증이 통과되었을지라도 정기 모니터링 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1.예비인증 취소, 2. 보완 요청과 동시에 대출 및 이자보전 중단, 3. 기 지원된 이차 보전금 환수, 4. 보완 요청과 동시에 대출 및 이자보전 중단, 5. 향후 서울시 공동체주택 지원 사업에서 배제”의 패널티가 있다.¹⁸⁾ 각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대다수의 세대가 육아를 하고 있어 꾀직한 행사를 할 경우, 부담이 되거나 꺼려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지만 공동체주택으로서의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라도 공동체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주택의 각 가정에 명패가 없어서 손님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어느 곳이 301호인지 302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회의를 하며 구성원들끼리 명패를 한 번에 주문해서 달고자 하는 의견과 이에 대해 불만인 의견이 나왔다. 그 명패를 뗄 수 있는 건지, 자석으로 할 수 없는 건지, 각 가정에 맞춤형 집을 지어 놓고 명패를 똑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의견 등이었다. 하지만 명패를 다는 작업은 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오픈하우스 전까지는 명패를 달아야 했고 당시에 도 오랜 기간 미룬 사안이어서 특정 일자를 정해놓고 공통으로 주문을

18) 공동체주택플랫폼 <https://soco.seoul.go.kr/>

할 가정은 주문하고 알아서 할 가정은 알아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각 가정마다 명패달기를 꼭 해야 하나, 자출에 맡기면 안되냐는 논의에서 명패달기는 인증에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달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서울시 조례 제15조(공동체공간의 활용)에 따르면,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사업주체는 공동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공간을 마을 주민들의 활동에 내어주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인 책조아(가칭)에게 임대 해주는 것, 101호와 102호를 함살집 협동조합과 영어교습소에 임대 해주는 것, 낮시간에 주차공간을 마을 주민들에게 내어주는 것 등 조례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서울시의 공동체주택에 관한 제도가 공동체주택을 공동체주택답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표 4> 따공의 2022년 연간 계획

	메인테마	수선유지관리
1월	총회 / 시설 AS 마무리 함살집에 산다는 것은? (함살집 1호 구성원과의 만남)	
2월	규약정비 / 자기집 이름 정하기	
3월	옥상 이름 공모전	해빙기 안전(옹벽) 소방설비(위치, 압력)
4월	옥상꾸미기(그늘막, 텃밭가꾸기)_비비큐&라면 / 따공트립(제주)	
5월	어린이날 플리마켓 / 작은음악회	오수정화시설
6월	오픈하우스(전체) / 공동체 견학 (함살집 1호)	우기안전(낙엽청소)
7월	따공풀장 개장, 따공 어린이 캠프	
8월		
		입주자 프로그램 (집집마당 세부안 나오는 것을 토대로 재구성)

9월	따공트립(대부도), 옥상행사	
10월	오픈하우스(쉼터) / 작은 영화관	월동기안전(동파)
11월		
12월	따공이브파티	

하지만 따공의 구성원들이 단지 공동체주택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최소한의 의무 조항만 지켜도 될텐데 “오픈하우스”나 “어린이캠프” 같은 행사를 자발적, 주도적, 창의적으로 기획하며 함께 여행도 빈번하게 다니고 비공식적 모임도 잦다. 따공은 함살집 중 가장 최근에 지어진 막내로 함께 산 지 1년가량 되었지만 다른 함살집들로부터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인정받고 소문이 나서 대표인 아키는 서울시 공동체주택지원허브에서 공동체주택(예비) 사업자와 입주자를 위한 교육과정에서 강의를 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자 일이 바쁘고 육아도 힘든데 공동체 행사를 열정적으로 하는 이유를 묻자 드래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쉬는 날에 그냥 쉬고 싶지 않잖아요. 쉬는 날에 어디라도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비슷한 마음. 그냥 쉬어도 좀 제대로 쉬고 싶은? 그냥 집에서 그냥 퍼질러 잘 수도 있는데 저희집은 그렇거든요. 쉬는 날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어디 나가서 놀려고 하지 집에서 이렇게 쉬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제 다들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나만 있다 보면 그래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지만 또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고.(심층면담8)

· 공동체규약

따공 입주 전 2020년에 만든 “따공 공동체주택 관리규약”은 전문을 비롯해 1장 총칙, 2장 회원, 3장 임원회, 4장 회의, 5장 재정, 6장 생활

수칙, 7장 기록물, 8장 규약 배포와 시행 그리고 수정, 9장 규약 수정 내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토마스 주도로 국내외 다른 공동체주택 규약의 사례를 참고하여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먼저 있고 하위법이 정해지는 것처럼 따공의 구성원들이 서로 중요시하는 가치를 나누면서 정해진 4가지의 가치를 기본으로 나머지 구체적인 규칙들이 만들어졌다. 다음은 공동체 규약의 전문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현대사회는 단절되고 파편화되어 있다. 개인주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것만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 당연히 옆에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기도 어렵다. 이해관계로 엮이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관심 가지기 어려운 세상이다. 모든 짐은 각자의 몫이며, 외로움은 덤이다.

우리는 이 모든 흐름을 거부하기로 한다. 함께 사는 것, 공동체를 이루고 연대하는 것,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공동체주택을 선택했다.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길을 모색하는 이 모험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는 함께 살며 아래와 같은 방향성을 추구한다.

- 1) 우리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자연을 보호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 2) 우리는 일상의 낭만을 추구한다. 낭만이란 특별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 3) 우리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시도한다. 상상은 제약될 수 없고, 이를 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권장한다.
- 4) 우리는 어울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어울림에는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치 않는다.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고, 어떤 이도 차별하

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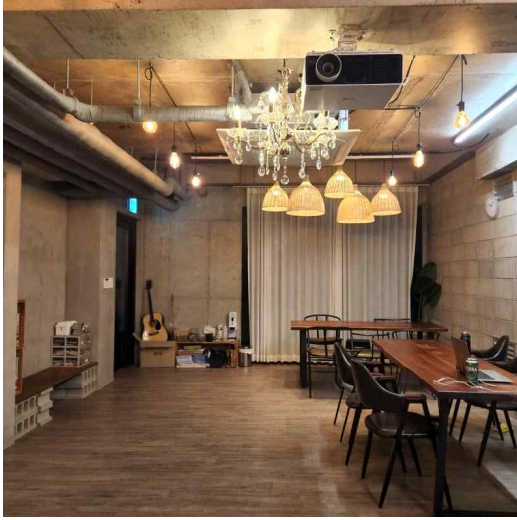
위 네 가지의 방향성은 모든 구성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모아서 만든 것이며 이는 교집합이라기보다 합집합의 의미이다. 즉, 한 구성원이 중요시하지 않는 가치일지라도 다른 구성원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공동체공간

따공은 건축 전부터 서울시 조례 원칙에 합당한 공동체주택으로 건축하고자 지하 공용공간인 “쉽터(가칭)”를 만들었다. 공동체주택을 건축할 때 지하 면적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니 공동체공간을 최대한 넓게 지으라는 합살집 코디와 대표의 의견을 수용하여 쉽터 18평, 방음실 5.5평으로 만들었다. 쉽터에는 주방과 화장실이 있고 나무가 기증한 공용냉장고, 바위가 기증한 빔프로젝터, 주주와 햇살이 공동구매한 정수기, 별님이 기증한 커피머신, 채습기를 구비해 놓았다. 공용냉장고에는 하양이가 최저가로 과자, 맥주 등의 간식을 구매해 따공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쉽터의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호이와 밀크가 담당하였다.

쉽터에서 대부분의 공동체활동이 이루어진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체회의와 두 차례 하는 임원회의, 주 2~3회 하는 “밤모임”¹⁹⁾, 보드게임이 이루어지며 바위가 기증한 큰 프로젝터로 함께 게임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한다. 큰 행사였던 오픈하우스와 어린이 캠프 등도 쉽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1시~5시까지 있는 마을 방과 후 책모임 책조아는 따공에게 대관 비용을 내고 쉽터를 사용한다. 평일 오후 시간은 마을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셈이다.

19) 연구자가 임의로 용어를 만들었다.



[사진 4] 갖춰진 쉼터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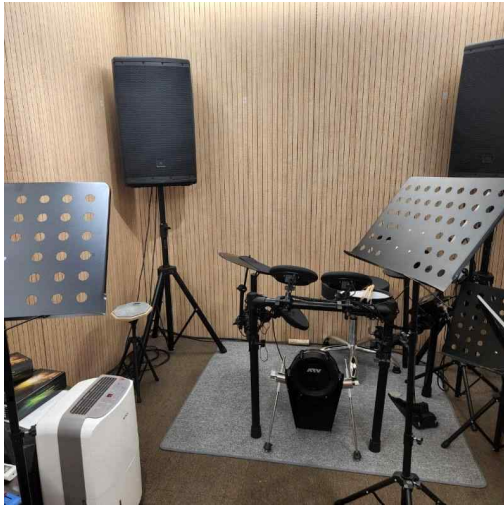


[사진 5] 쉼터 내 냉장고

따공의 구성원 3명을 포함해 마을 주민들의 모임으로 월 2회 이루어지는 시사 잡지 모임 역시 쉼터를 활용한다. 또한 구성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글을 쓰는 등의 개인적인 일을 쉼터에서 하기도 한다. 아이들을 피해서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오며 가며 만나는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립감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함살집과 차별화되는 쉼터의 특징은 쉼터 내부의 방음실이다. 따공의 구성원 중 음악에 관심이 있는 구성원들이 많고 음악이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여겨 악기를 연습하고 노래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방음실로 만들었다.

방음실을 가장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은 드래곤이다. 드래곤은 현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지 않지만 사춘기가 오고 자라다 보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도구가 음악이 되기를 바랐다. 일반적인 공간을 방음실로 바꾸기 위해 벽을 설치해야 하고 차음재, 흡음재를 부착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드래곤 주도로 톡톡이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 방음실을 완성하였다. 방음실에 들어가는 믹서, 앰프, 키보드, 전자 드럼 등은 드래곤의 사비로 구매하였다. 왜냐하면 방음실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한

세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대도 있어 이를 n분의 1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기의 경우 가장 방음실을 만들기 원했던 드래곤이 비용을 냈고, 방음실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차음재, 흡음재 등은 협의를 통해 공용공금에서 사용하였다. 하지만 드래곤은 악기를 모두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바랐다.



[사진 6] 방음실 내 악기



[사진 7] 보드게임

오픈하우스를 할 때 따공에 음악을 좋아하는 구성원이 많은 만큼, 작은음악회를 열었다. 하양이와 토끼, 드래곤이 노래하였고 마지막엔 아이들을 포함한 따공의 전 구성원이 곧바이 송으로 “아름다운 세상”²⁰⁾을 불렀다. 함살집 1호에 구성원이 함살집 생활을 다룬 책을 출판하게 되어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인데 따공에게 공연을 부탁해 연습하고 있다. 하양

20) 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즈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 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박학기, 1990년 곡)

이가 보컬, 주주가 키보드, 드래곤이 드럼, 일빠가 베이스를 맡았다. 일빠는 베이스를 직접 사서 학원에 다니면서 베이스를 배우기 시작했다. 드래곤의 바람처럼 아이들 역시 방음실에 드나들며 악기를 접하고 있다. 드래곤은 악기가 망가질까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방음실을 만든 처음의 의도가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악기를 접하여 배우고 싶게 되어 가르쳐주며 교제를 하고 공연도 함께하기를 꿈꾼다.

지하인 쉼터에서 위로 올라오다 보면 또 다른 공용공간인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내부엔 따공의 월별 계획표가 적혀져 있는 화이트보드가 붙어 있어 공동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다. 따공의 특징은 현관문에 들어오고서부터 신발을 벗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에 탈 때에도 신발을 벗고 타므로 처음 따공에 놀러 온 손님들은 신발을 벗는 게 맞는지 헛갈려한다. 이는 다른 함살집도 공유하는 특징으로 공용공간을 마치 거실처럼 사용하자는 의도이다. 어른들은 익숙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신발 벗고 다른 집을 드나드는 데 좀 더 문턱을 낮게 느낀다.

1층 외부공간엔 차를 6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남은 공간에는 따공 어린이 캠프 때 풀장을 설치해 놓았다. 탁구대를 설치할지도 고민했으나 전체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주차 칸 중 두 칸은 낮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과 공유한다. 계단을 올라 5층을 지나 꼭대기엔 옥상이 있다.

옥상 역시 함살집이라면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각 함살집이 입주 후 신고식처럼 오픈하우스를 하듯, 다른 함살집에 사는 구성원들에게 옥상으로 초대하여 옥상을 어떻게 꾸며놓고 쓰고 있는지 공개하고 음식을 나누는 “밤옥상투어(가칭)” 행사가 있다. 따공은 함살집 중 세 번째로 옥상투어를 진행하여 처음으로 함살집 7호 주민들과 만났고 함살집 1호 주민들, 화곡동 함살집 주민들과도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키가 생각하는 끈끈함은 “공간을 공유하는 범위”이다. 탐방했던 3~4곳의 공동체주택 중 은혜공동체를 가장 끈끈하게 보았는데 은혜공동체는 방과 화장실만 각 가정의 공간이고 거실과 주방을 하나로 공유하여 한 층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진 8] 옥상에서 모종을 심는 아이들



[사진 9] 컴퓨터 내 사용할 의자를 함께 만드는 아이들

2) 별명 부르기

다른 함살집들과 공유하는 또 다른 문화는 ‘별명 부르기’이다. 이는 함살집 뿐만 아니라 성미산마을에서 활동하는 어린이집, 성미산학교 등의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문화이다. 대부분의 별명은 단순하게 이름에서 따와서 짓거나 좋아하는 것, 삶의 지향점을 담기도 하며 철학관에서 지어온 별명부터 성경에서 따온 별명도 있다.²¹⁾ 토끼는 별명을 부르는 문화를 다음과 같이 느낀다.

21)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의미를 다 실지 못하고 가명으로 사용한 점이 아쉽다.

제가 별명으로 처음 부른 건 글쓰기 수업이었는데 별명으로 부르니까 나이, 성별, 직업 혹은 계층과 상관없이 동등하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별명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서로 존대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편하게 말하기도 하고 그건 공동체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언니, 오빠, 선배, 후배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인 것 같고 아이들도 어른들을 부를 때 이렇게 해요.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엄마가 아니라 토끼야 하면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느낌이 엄마라고 할 때보다 좀 더 가벼우면서 거리감도 느껴져요. 그 거리감이 나쁜 거리감이 아니고 존재 대 존재가 꼭 필요한 거리감. 또는 되게 가까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심층면담1)

공동체주택의 구성원들은 별명으로 부르는 문화가 사회 밖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주택 안에서 새로운 관계라는 느낌을 준다고 한다. 아주 예의를 차리는 것도 아니면서 거리가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닌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낌인 것이다. 대학생인 밀크는 다른 구성원들의 호칭을 어렵게 느꼈다. 언니나 오빠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나이 차이이고 그만큼 가깝지도 않은 사이였기 때문이다. 공동체주택 내 아이들이 처음에는 밀크를 이모라고 불렀지만 이 또한 어색하게 느꼈다. 스스로도 다른 구성원들을 별명으로 부르고 아이들도 밀크를 별명으로 부르며 호칭이 자연스러워졌다. 주주는 공동체주택 입주 전 외부 어린이집에서 “~~의 엄마, 아빠”로 불리다 별명 자체로 불리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고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공에서는 사람에게 별명을 지을 뿐 아니라 각 공간에도 이름을 붙인다. 일반적인 공간에도 이름을 붙여 그 공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특별한 공간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함살집마다 모두 각자의 이름이 있고 옥상 이름은 공모전을 통해 지었으며 세대별 이름을 만들어 명패를 붙였다. 토끼는 공간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그 공간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다. 주주는 공간에 이름을 붙이며 공간에 애착이 생긴다고 느낀다. 유현준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학교 건물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 강연에서 현재의 공립학교는 지나치게 크고 획일화되어 있다며 학교를 지금보다 더 잘게 쪼개고 낮게 지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작게 쪼개진 건물마다 이름을 붙여주라고 역설한다. 우리 선조들은 건물을 짓고 나면 이름을 지어 줬는데 이름 중 대다수는 소쇄원, 경회루, 독락당 등 세글자로 지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 세글자이고 건물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함이었다.²²⁾

그런데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그 공간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가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집마다 자기네 집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이름에 표현하잖아요. 자기 별명도 그렇고. 사람들마다 다 별명을 지을 때 다 느낌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이름을 지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공간도 이름을 붙여주면서 의미가 더 담기는 것 같아요.(심층면담1)

3)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

따공의 지향점은 “따로 또 같이”이다. 구성원마다 공동체로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 정도가 큰 사람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는 각자의 성향,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공동체주택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사와 활동, 모임 등은 강제성이 없으며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한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전체회의에는 세대별 1인은 반드시 참여 해야 한다.

임원은 아키(대표), 토끼(시설), 드래곤(환경), 토마스(서기 및 규약), 일빠(회계)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 전 투표로 선정했다. 따라서 다음 해에 새롭게 임원단을 꾸릴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기본적으로 진행했던 공동체활동에 대해 피드백하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논의한다. 각 세대는 매달 약 4만원 정도를 공용회비로 내는데 매 회의마다 회계 담당인 일빠가 회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공동공간 대여로 인한 수익이

22) 감옥같은 학교 건물을 당장 바꿔야 하는 이유(유현준 교수, 세바시 1004회)
https://www.youtube.com/watch?v=QxGzwJd_Eno

얼마인지를 보고한다. 임원회의는 전체회의에 나누어진 논의를 피드백하고 다음 달 전체회의를 준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보다 공동체주택의 생활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모임은 공식적 모임보다는 비공식적 모임이다.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거나 아이들이 다른 집을 넘나들며 논다거나, 퇴근이 늦을 시 아이들의 하원을 부탁하거나 여행을 떠날 때 고양이 밥을 주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가 수월하다. 아이를 돌보는 여성들은 아이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고 삼삼오오 모여서 다과를 나누고 저녁에는 다 같이 산책하거나 요가 강사인 얼그레이가 매일 밤 조깅을 함께 가자고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 시간이 되는 경우 같이 뛰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비공식적 모임은 아이들이 모두 취침한 후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심야 모임인 밤모임이다. 구성원들은 거의 매일 밤마다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야식을 사왔으니 모이자”, “보드게임 하자”, “어디서 돈이 생겼으니 모이자”라고 올려 찾으면 주 2~3회 혹은 주 1회 정도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모임이 있어 시간과 마음이 되는 구성원끼리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술도 마신다. 먹거리는 풍요로움과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낸다. 맛있는 음식과 알코올 섭취로 기분이 좋아지고 강렬한 맛은 분위기를 촉진시켜 사교적으로 된다. 공동체의 모임에서 먹거리의 풍요는 이야기와 관계의 풍요로 이어진다.

모여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다양하다. 정치와 종교를 주제로 한 대화는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자주 하지 않고 어떤 영화가 재밌었다는 일상적인 대화부터 미술, 부동산, 부부간의 갈등, 아이들 교육 등이 있다. 나무는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 대화방 중 따공 대화방이 가장 대화가 활발하다고 한다. 아키는 많은 구성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소모임을 제안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때, ‘왜 이런 이상한 걸 제안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지해줄 거란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모임을 제안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점점 제안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대화방의 대화도 끊기게

될 것이다. 특히 토끼는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할 때 뭐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 때문에 “저요 토끼”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한다.



[사진 10] 어린이날 개최한 플리마켓



[사진 11] 우먼스데이

공동체주택 내부에서 구성원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성미산마을 주민들과 모이는 모임도 잦다. 성미산마을은 70여 개의 크고 작은 공동체가 네트워크를 이뤘으며 5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 마을 방과후 학교, 택견장, 성미산학교, 성미산 마을회관, 의료협동조합인 무지개의원, 성미산 마을극장, 탕고 동아리·오케스트라·등산모임 등 20여개의 동아리가 있다.²³⁾ 하지만 성미산마을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마을의 주민은 누구를 일컫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단지 성미산 근처 성산동, 망월동 주변에 산다고 해서 ‘공동체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욕하고 떠난 사람이 좀 있대요. 성미산마을이 되게 공동체 마을이다 하고 그냥 아무 거점 없이 혼자 왔어. 근데 아무도 날 안 꺼줘.(심층면담5)

23) 성미산마을 <https://sungmisan.org/>

따공의 구성원들은 마을에 대한 기대가 입주 때부터 상이하였다. 햇살은 입주 전부터 이미 성미산마을이 공동체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마을에 산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어 공동체주택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건물을 짓기 전 땅을 알아볼 때에도 성산동 외에 연희동, 증산동 등이 후보지에 있었지만 성미산마을에서 반드시 살고 싶었던 터라 성미산마을이 아니면 입주를 포기하겠다고 생각했다. 햇살의 자녀 2명(5세, 2세)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다녀서 각각 어린이집 기반의 네트워크가 생겨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된다. 햇살의 자녀는 집에 나서면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사를 하느라 바쁘고 인터뷰 당일인 저녁 8시경에 어린이집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마실” 중이었다. 마실은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하원하다가 갑자기 하기도 하는데 “아마(아빠와 엄마)”도 아이와 동행하여 가서 식사를 함께하기도 한다. 공동체주택에 입주한 후 아이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다니며 마실 뿐만 아니라 축구 모임, “모꼬지”라는 여행 모임 등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는 모임이 다양하다.

햇살: 모임도 많고 번개도 많고 애들이 갑자기 와서 밥 먹거나 우리 애가 갑자기 가거나 마실 모임, 놀러 다니는 것들도 되게 많고 이번주에도 우리 어린이집 다같이 모꼬지라고 여행 가거든요. 1박 2일.

연구자: 또요? 저번주에 갔잖아요.

햇살: 그건 따공에서 간거고. 그런데 진짜 거짓말 안하고 매주 있고 저번주에는 조합원 교육이라고 어린이집 다같이 모여서 워크숍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모여서 대청소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먹고 놀고 그 다음에 또 둘째 어린이집에 반모임이라고 공원에 나들이 가고 그래서 하루에 두세개는 있는 것 같아요. (심층면담9)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다른 2세대의 경우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에 보낸다. 나무네 아이는 햇살네와는 다

른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내며 내년 초등학교 입학 때에는 성미산학교로 보낼 예정이지만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다른 3세대는 일반 초등학교에 보낸다. 하양이네와 일빠네의 초등학생 자녀는 쉼터에서 하는 동네 방과 후 책모임 책조아에 참여하기 때문에 마을 활동에 대한 정보는 이 두 명이 주로 “물어다 주어”(심충면담5) 공유한다. 주주, 나무, 하양이, 일빠네는 각각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책조아 학부모로서 마을 체육대회, 바자회 등의 마을 행사에 참여한다. 그리고 마을의 아이들은 주로 태권도가 아닌 함살집 4호에 있는 택견장에서 택견을 배운다. 즉, 마을에선 공동육아 어린이집, 택견, 성미산학교, 마을 방과후 학교 등으로 대표되는 마을의 교육 활동에 자녀들을 보내고 학부모로서 자연스럽게 마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아키의 자녀들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다른 구성원들이 공유해주는 마을 행사나 함살집 마을 행사 외에는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을 수 없기에 마을에 있는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 “무지개의원”에 가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아키는 무지개의원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점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가입을 유보했다. 이처럼 따공의 구성원 중 일부는 자녀를 마을 대표 교육 활동에 참여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도 있다.

햇살네 자녀들은 현재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성미산학교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에 보낼 예정이다. 대안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공교육의 궤도에서 자라왔는데 그걸 벗어나는 데에 두려움이 좀 있다.”(심충면담9) 뿐만 아니라 성미산학교는 출자금 제도가 있어 천만원을 먼저 내고 시작해야 하고 학기당 대학교 등록금만큼 비용이 들어 비용적인 부담도 있다. “일반 초등학교에서 경쟁을 과하게 시킨다거나 시험점수로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하지 않고 자녀가 무난한 편이고 공립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지 않는다면”(심충면담4) 굳이 성미산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대다수의 따공 구성원의 아이들은 근처 공립 초등학교에 다닌다.

또한 때로는 대안학교의 자율을 강조하는 교육을 다소 방목하는 것처

럼 느끼기도 한다. 따공에서 수학, 영어 등의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 사교육을 거의 하지 않는 마을 주민들에게 따공은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 분위기로 여겨진다. 따공 내 교육은 간식을 허용하는 범위, 사교육 등 한가지 문화로 공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각자 교육적 가치관에 따라 자녀들을 교육하고 다른 사람들의 교육 방식을 왈가왈부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 있어 서로 존중하려고 한다.

토마스의 경우, 아내가 원해서 공동체주택에 입주하였고 “마을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오픈하우스에도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았다. 토마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집 밖으로 나섰을 때 불특정 다수의 익명성이 보장되길 원하였다.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싶지 않고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하거나 통성명을 하고 싶지 않았다. 따공 아랫집과의 갈등은 그의 마을과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강화시켰다.

따공이 지어지기 전 있었던 건물과 아랫집 건물 사이에는 담장이 있었는데 아랫집에서는 따공 건축 이후에도 같은 높이의 담장이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함살집에 이를 요구하고 함살집에서도 따공의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당시 많은 이슈들이 있다보니 귀담아 듣지 못했다. 기존의 있었던 담벼락의 높이인, 사람의 키 정도의 높이로 담장을 만들면 될 거라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아랫집이 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 더불어 아랫집에선 창문으로 아랫집이 보이는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따공이 지어지기 전에 남쪽으로는 창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또한 창문을 크게 만든 후에 알게 되었다. 아랫집은 따공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여겨 감정이 좋지 않았고 창은 크게 냈으니 덧창을 내달라는 요구는 따공 측에선 상식 밖의 큰 덧창이 지나치다고 받아들여 서로 갈등이 있었다. 덧창은 서로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담장은 아랫집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여서 담장을 만들게 되었다.

처음엔 따공 구성원들과 아랫집 구성원들이 논의하였던 문제가 커지다 보니 함살집 측으로 논의의 주체를 넘기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토마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고 현재까지도 출퇴근하거나 아랫집 앞을 지

나다닐 때 불편하게 느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토마스는 따공 내의 모임은 참여해도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은 참여하지 않는다.

V. 모순을 통해 발견한 공동체성의 의미

1. 공동체주택 생활의 명암

1) 함께 교제하는 기쁨

대학생인 밀크와 아이가 없는 토마스네를 제외한 아이를 키우는 따공의 대다수의 세대에서 공동체주택을 선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동육아’이다. 따공의 아이들은 10명으로 2세부터 9세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터울이 크지 않아 아이들끼리 어울리기 좋다. 구성원들은 장기 임대 후 자가 전환을 하는 10년의 거주기간 동안 아이들이 재밌게 살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따공 내 아이들끼리 잘 어울리면서 함께 놀고, 여행 다닐 수 있는 점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 또한 양육자들이 육아 시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점 역시 장점으로 꼽았다. 아침에 서로 등하원을 담당해주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놀기 때문에 부모가 지속적으로 돌봐주지 않아도 된다. 별님은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해서 일주일 간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세대에서 별님의 아이들을 먹여주고 채워주어 도움을 받았다.

여성 1인 가구인 밀크도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다. 대학교 근처에 자취를 할 땐 고립된 상황을 겪다 공동체주택에 살다 보니 어머니인 호이도 걱정을 덜하고 이웃들을 의심하는 등의 불안한 점이 없어졌다. 밀크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비밀번호를 바꾸다 실수로 잘못 바뀌어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 열쇠방에도 전화해봤지만 문을 통째로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따공 단체 카톡방에 사정을 이야기하니 마침 하양이와 별님이 햇살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고 일단 햇살네로 오라고 해서 갔다. 하양이가 순식간에 열쇠방 여러 곳에 전화를 하더니 한 열쇠방에서는 철거를 하지 않고 고칠 수 있다고 해서 해결하였다. 또한 코로나 격리로 아무 곳도 갈 수 없을 때에도 여러 세대에서 음식을 나눠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했다.

얼그레이의 고향은 지방이고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였다. 기존에 살던 곳은 아파트였고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교체하는 사람은 없었고 남편인 토마스하고만 소통했었다. 그것이 편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불안함같은 안전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다. 그런데 공동체주택에 거주하다 보니 특별하게 앉아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안정감을 주었다. 마음 편하게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지역, 공동체, 주거환경에서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는 것을 장점으로 느꼈다.

이는 공간 자체의 안정감이라기보단 사람에게 가지는 안정감이었다. 스치듯 만나면 인사하고 소식을 주고받고, 여행을 가게 되면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부탁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이웃이 있는 점이 좋았다.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장점을 기대하고 왔지만 하드웨어적인 면 역시 만족감을 느꼈다. 스스로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필요에 맞추어 만들어진 새집에 와서 사는 것 역시 실제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컸다. 공동체공간이 나의 집이 확장된 개념으로 여겨지고 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맥주 한 잔 할 수 있는 만남이 좋았다.

얼그레이는 요가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이어서 가족이나 남편 외에 다른 영역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 하루는 수업이 너무 힘들고 자영업 하는 것이 지쳐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따공에 왔는데 구성원들이 와인이랑 막걸리를 마시며 놀고 있어 한, 두 시간 떠들다가 들어갔는데 개운한 느낌이 들었다. 그대로 집에 들어갔으면 자기 전까지 계속 곱씹으면서 속상해 했을텐데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충전하고 나니 회복되었다. 나무도 같은 자영업자여서 고충을 나누기도 하고 다른

구성원들이 멋지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어서 격려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깨닫기도 하였다.

이처럼 구성원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함께 교체하는 기쁨’에 있었다. 토끼는 친구가 중요한데 남편과의 관계에서만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데엔 한계가 있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밤에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고 싶은데 멀리 살면 어려우니까 함께 살고 싶었다. 같이 하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산책과 러닝을 함께 하기도 하고 악기를 맡아 공연을 준비하기도 하며 글쓰기가 취미인 별님은 컴퓨터에서 글을 쓰며 구성원들에게 쓰는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나무는 공동체주택에 사는 것을 “가오가 산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랑스러워했다. 어떤 삶을 살았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스스로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함살집에 산다는 그 자체가 나무를 나타내준다고 한다. 나무가 젊었을 때부터 꿈꾸고 말해왔던 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행복하게 느낀다.

나무: 그냥 그런 게 되게 설레고 너무 즐겁고 그래서 집에 오는 길이 매번 행복해요. 옛그저께 가나랑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항상 성미산 뒤로 산 넘어서 차로 오거든요. 넘어올 때 “난 여기가 너무 좋다” 그랬어요. 여기를 오면서부터 이전에 받았던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막 뛰어 올라가고 싶은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연구자: 공동체주택이 좋아서요?

나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 매번 만나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심층면담5)

2) 시간과 에너지 소모

구성원들은 집을 지을 때부터 현재까지도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은데 대부분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예민하기도 하고 이를 함께

조율하는 것을 어렵게 느꼈다. 여러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용공간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최소한의 공동체활동을 하며 집을 관리해야 하는데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성향 차이로 인한 의사결정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 외관이나 공동체공간의 넓이 등을 이야기하는데 각자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시간이 좀 지나야 자신의 의견이 생기고 의견이 있어도 다수 앞에서 의견을 얘기하기 어렵거나 비난이나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하기를 꺼려한다.

서로 친밀함의 거리가 다양하지만 이미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 소통과정에서 마음이 상한 것은 없는지,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복잡하고 어려웠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화상 회의 혹은 온라인 단체 채팅방으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내거나, 혹은 그 의견에 반대하였을 때 뉘앙스를 분별하면서 소통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하나의 의견으로 결정이 났더라도 한 사람이 못 온다거나 공식적인 회의 자리 외에 사적인 자리에서 서운함이나 불만이 나오면 다시금 회의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다.

일반 아파트라면 경비실에서 알아서 해주는 일들을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분리수거도 직접 챙겨야 하고 공동체공간 청소도 직접 업체를 불러서 해야 하고 아파트는 반상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따공은 전체회의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회의에서 토론 끝에 정한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따공에선 직접 해야 하는 분리수거의 경우, 쓰레기차는 일, 월, 화, 수, 목 일몰이 되어야 쓰레기를 가져간다.

따공엔 쓰레기를 가져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1층 뒤에 분리수거를 모아놓은 분리수거장이 따로 있는데 그곳에 캔, 유리, 비닐, 플라스틱은 모으고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종이 등은 분리수거 차가 오는 날에 맞춰서 밖으로 내놓기로 결정했는데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종이도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는다. 세대별로 돌아가면서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들을 모아서 쓰레기차가 가져갈 수 있게 밖으로 내놓는 분리수

거 당번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당번을 하는 세대가 종이까지 같이 내놔야 한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는 구성원도 있지만 규칙을 잘 안 지키는 게 쌓이다 보면 감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올리거나 회의에 안건에 나올 수도 있다.

토마스는 친구들과는 사업이나 동업, 돈거래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었다. 돈과 얽힌 일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친구들과는 좋은 일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주택도 들어오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가 원해서 따라 주었다. 공동체주택 입주 후 토마스는 친구를 잃은 상실감을 느꼈다. 대다수의 구성원들과 원래 알던 사이인 친구로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옆집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공동의 일을 함께 처리해야 하고, 자금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 친구라기보다 직장 동료가 된 느낌인 것이다.

토마스의 직장은 판교에 있고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반이 넘게 걸린다. 입주 후 6개월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 자고 우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먹기도 하였다. 스스로가 겪는 갈등이 아니더라도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 보이면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아내인 얼그레이에게 따공에서 살기 싫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얼그레이는 따공에 살고 자신은 직장 근처에 고시원에 사는 건 어떨까 제안하기도 하였다. 얼그레이는 밤에 잠을 못 자고 자다 깨서 2~3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편을 괴롭게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였다. 현시점에서는 많이 좋아지고 적응을 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토마스는 과거에 살았던 아파트 아래, 윗, 옆집으로 구성원들이 이사를 왔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하였다.

2. “행복도 불안도 그만큼 늘어나는 삶”

“같이 산다는 건 행복도 불안도 그만큼 늘어나는 삶을 감내하는 것” (현지자료3)인 만큼,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다. 공동육아를 하는 점은 좋지만 아이들이 서로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사적인 공간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한다. 공동육아의 기준이 아주 허용적인 세대가 있는 반면 일과 시간을 계획적으로 보내는 세대의 경우 아이들이 집으로 오는 시간을 지켜달라고 하는 과정 중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따로 또 같이”의 기준 역시 각자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 “따로”가 더 중요한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는 구성원이 있다. 타인의 마음을 전부 알기는 어렵기에 이해하기 위해 소통을 시도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조차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반면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 계속 만나야 해서 갈등을 회피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은 최소한 주택이 자가로 전환되는 10년까지는 살고자 하고 스스로를 넘어서며 공동체주택에서 함께 살기 위해 각자의 노력들을 한다.

1) 소외감

구성원들은 친밀감의 정도가 각각 다르다. 공동체주택 건축을 주도한 아키네와 드래곤네의 경우 기존에 거주했던 집의 거리도 가까웠고 아들들을 키우는 공통점이 있어 여행도 여러 번 가고 자주 어울렸다. 대학교 동아리를 같이 했던 다른 세 가정의 경우 친밀함의 정도가 다소 달랐고 나무네와 밀크는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였다. 이 안에서도 아이를 키우는지 아닌지, 아이들이 몇 살인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울리거나 대화할 수 있는 주제도 다르다. 뒤늦게 합류한 나무네는 나무 특유의 친화력 높은 성격 덕분에 따공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데 문제가 없었

다. 이는 특히 밤에 쉼터에서 모여 함께 먹고 마시는 모임의 참여 빈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다. 신생아를 키우는 주주네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모임을 즐겨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

어린이날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있었다. 따공의 임원은 7세대 중 4세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사가 있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대략적으로 행사 기획을 하고 전체회의에서 공유하여 확인을 받는다. 어린이날 행사에 플라마켓, 보물찾기, 체육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는데 각 행사의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었지만 주주와 햇살만 빠져있었다. 임원 세대는 모두 들어가고 나무는 임원이 아니어도 밤모임에 빠지지 않아 비공식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는지,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들었고 역할도 맡았다.

하지만 주주와 햇살은 어떠한 정보도 듣지 못한 채 공지를 확인했는데 역할이 맡겨져 있지 않아 기분이 매우 나쁘고 황당했다. 성인들은 모두 역할이 있고 주주네 자녀도 참여하는데 가서 멀뚱멀뚱히 있는 것도 어색하고 공지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소외 받았구나’고 느꼈다. 주주는 대표인 아키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왕따냐”며 따졌고 아키는 주주네 집에 와서 오해를 풀려고 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주주네가 신생아를 키우느라 바쁜 것 같아 배려한 부분도 있었다. 주주네가 기분을 상해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세대에서 전화를 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과하였다.

주주네는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느낀 적이 있는데 구성원들이 계획적이라기보다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지켜지기보다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계획적인 사람의 경우 이를 불편하게 느끼기도 한다. 주주는 신생아를 키우는데다 회사에서 리더를 맡아 말도 많이 하고 지쳐서 오는데 따공에서도 사교적으로 어울릴만한 에너지가 없었다. 공식적인 일이 있거나 주어진 역할을 맡으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친화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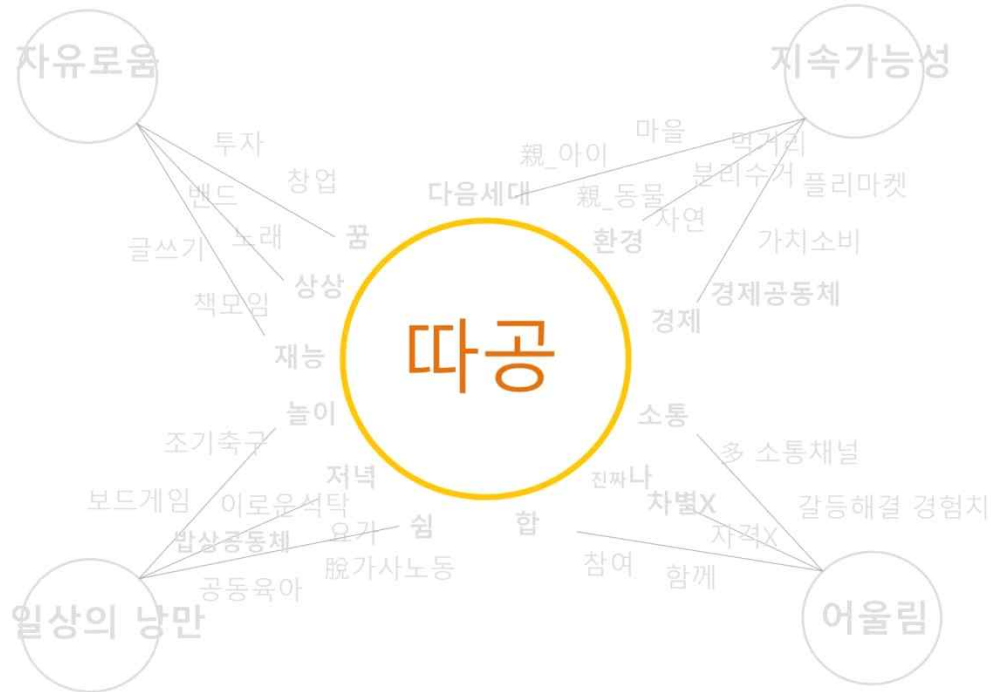
이 좋은 성격은 아니다. 하지만 따공에서는 짹짹하고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울리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 어울리려고 모임에 참여해도 대화를 잘 하지 않거나 무표정하게 있으면 오해를 받기도 한다.

반면, 따공에서 주주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구성원들이 많다. 주주의 본래 모습은 공동체주택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꿈꾸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 표면적으로 거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생아를 키우는데다 회사에서 바쁜 상황적인 이유로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했다. 주주는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고 마음을 닫기도 하지만 닫은 상태로 머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마음을 닫고 열고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적극성이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의 바이올리듬에 따라서. 요새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살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내 개인의 컨디션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의에서 뭔가 나와 안 맞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었을 때는 또 다운될 수도 있는 거고.(심층면담11)

주주 역시 다른 구성원들처럼 불편했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려고 한다. 회의 시간에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불편했다고 숨기지 않고 이야기한다. 또한 요즘은 그동안 밤모임에 참여하지 않아 못 어울렸던 친분의 기회를 쌓고자 하고 있다. 축구게임을 하거나 밤모임에도 조금씩 다니려고 하고 주주가 원하거나 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하려는 기회들을 만들고 있다. 합살집 1호에서 출판기념회에서 따공 밴드에게 공연을 부탁했는데 주주가 키보드를 담당하여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

2) 페미니즘



[그림 5] 따공의 4가지 가치

위의 그림과 같이 따공의 구성원들은 서로 중요시하는 가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종합해서 4가지 가치를 정했고 각 가치에 어울리는 키워드를 만들었다. 밀크와 나무네는 뒤늦게 합류해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었고 아키가 따로 만나서 이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대해 들었다. 밀크는 따공 내 유일한 20대로 어린 시절부터 바위의 영향으로 전태일 평전이나 어린이 진보 잡지 같은 책들을 읽고 진보적인 가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자랐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선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²⁴⁾이 발생하였고 대학교에 입학하니 미투운동²⁵⁾이 활발해지며 대학교 내에서도 교수님들이 미투운동으로 퇴출되는 장면들을 목격했다. 밀크가 속해있는

24)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은 김성민(34세)이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불특정한 여성(23세)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25) 미투운동은 조직 내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내부고발운동이다.

학과도 회화과로 미술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 안에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으며 주변 친구들도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밀크는 비혼주의자로 밀크에게 ‘페미니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다. 이를 아키에게 말했을 때, 아키는 살짝 당황한 듯 보였다. 아키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보수적인 편이다. 이제 생각이 굳어지고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가치관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동성애, 동거, 페미니즘 등 진보적인 흐름을 “싫어한다.”(심층면담5) 밀크가 있는 자리에서 아내인 토끼가 원래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인 하양이를 잘못 만나서 페미니즘에 물들었는 줄 알았는데 토끼가 하양이보다 심하다며 따공 여성 구성원들의 페미니즘 강도 순위를 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기분이 상했던 밀크는 “무슨 페미니즘이 되게 잘못된 사상에 전염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라고 말했다.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나무와 컸다. 밀크가 처음 페미니즘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을 때, 나무는 “전에 살던 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라고 말했다.

밀크는 그 후에도 밤모임에서 종종 어울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 나무의 아내인 가나는 아이를 돌보느라 모임에 참여하지 못해 만날 수도 없는데 나무가 가나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꼈다. 특히, 가나는 주민센터 복지공무원인데 자주 힘들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무는 그만두라고 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이야기를 밀크 앞에서 서너 차례 했다. 밀크 입장에서는 가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왜 자꾸 그만두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으며 만약 가나가 힘들다고 하면 격려해주는 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나무는 왜 가나가 힘들기만 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그만두고 자기 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며 변호했다. 하지만 가나는 일은 힘들지만 계속하고 싶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밀크는 힘들다고 하면 집안일이라도 더 해주고 힘들었다고 공감해주라고 하니 나무는 가나가 집안일을 하면서 평화를 느끼는 사람이라

고 했다. 밀크는 이해가 안 돼서 그 말을 진짜 믿느냐며, 가나가 집안일을 좋아하니까 집안일을 더 주시겠냐고 물었다.

당시 여러 구성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언성이 높아지니 와서 중재를 했다. 밀크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고, 참다가 이야기하는데 듣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이 문제가 페미니즘 주제로 번지며 밀크가 페미니스트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밀크는 밤모임에 자주 참여하지는 않는데 “부어라 마셔라”(심층면담 3)하는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초반에 참여했을 때 여자들 위주로 음식을 준비하는 분위기를 불편하게 느꼈다. 여성 구성원들도 페미니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부터 알고자 책도 읽고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사람들까지 다양하다. 페미니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기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게 싫은 사람도 있다.

하양이는 스스로가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서 남편이 육아나 가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고 한다. 남편이 새벽부터 나가서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 중 하나를 육아와 가사로 두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매 끼니 밥을 챙겨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나무의 아내인 가나 역시 나무가 설거지를 하면 깨끗하지 않고 성에 차지 않기 때문인지 “필사적으로”(심층면담5) 못하게 하고 하려고 하면 나무에게 들어가서 게임을 하라고 한다. 반면 일빠와 별님의 경우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별님이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고 일빠도 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육아와 가사 분담이 평등한 편이다.

아키는 보수적인 성향이고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 것이 토끼의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 아키가 토끼에게 원하는 것을 묻자 ‘아침 7시에 같이 일어나 등교 돕기’, ‘아이들 공부 가르쳐 주기’ 등 아키가 예상한 공감해준다거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일이 아니라 가사 일과 관련된 일이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아키에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만약 공동체에 살

지 않거나, 더 보수적인 집단에 있었다면 문제라고 느끼지 않을텐데 다르게 생각하고 사는 구성원들을 보며 배울 수 있다.

저는 아직 동거, 그다음에 페미니즘, 그다음에 동성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나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순서인데 여기 같이 산다는 전제는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런 노력이 시작되는... 그 전에는 나랑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인데...(심층면담5)

공동체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동거하는 커플이 관심을 보이며 매주하는 모임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아키는 기존에는 동거하는 커플을 이해할 필요가 없었다면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경우를 상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따공에서 하는 책모임에서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을 읽자는 의견이 나왔다. 아키는 페미니즘을 싫어하지만 책을 읽는다면 함께 읽으며 자신의 보수적인 입장 역시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는 문제를 만들려는 태도라기보다 서로 관심이 없었던 주제에 대해 구성원들과 나누며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려는 시도이다. 다음은 임원회의에서 책 모임 때 어떤 종류의 페미니즘 책을 읽을까 결정하기 위한 대화 중 일부이다.

토끼: 그래도 일단 아키가 전에는 페미니즘을 되게 싫어했는데 밀크의 그런 움직임으로 오픈마인드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주택에 들어오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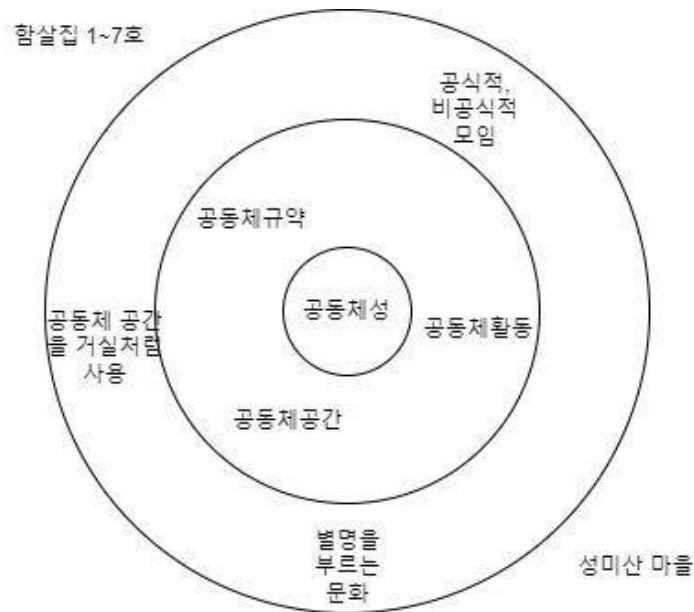
아키: 나는 우리가 큰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족 구성원을 이해하는 게 당연하잖아.

일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뛰어 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임원회의1)

3. 공동체성의 의미

공동체주택의 주민들은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주택에서 살기 위해 노력한다. ‘함살집’은 성미산 마을 내 8채 뿐만 아니라 부천 2채, 화곡동 2채, 신내 2채, 과천, 부산 등 전국에 19채가 지어져 있다. 하지만 이 중 공동체주택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각 공동체주택마다 ‘공동체성’을 제대로 발휘하며 지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여러 갈등 끝에 일반 공동주택과 다름없이 지내는 곳도 있다. 따공은 2022년 10월 기준 함께 거주한 지 1년이고 여러 부담을 감수하면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공동체주택의 가치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림 6] 따공 공동체성의 제도, 문화, 환경

공동체성을 습득하기 위해, 즉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제도, 문화, 환경 안에 내던져져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을 학습하게 된다. 우선 제도적으로 서울시 공동체주택 정의에 따른 공동체공간, 공동체규약, 공동체활동을 의무적으로 따라가며 공동체성

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아키는 공동체가 얼마나 공동체다운지를 알기 위해서 공간을 공유하는 범위를 봐야 한다고 말하였다. 따공의 공동체성은 공동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복도, 엘리베이터, 공동체공간과 다른 세대의 문턱을 맨발로 돌아다닐 수 있는 만큼이다.

은혜공동체처럼 한 층에서 각자의 방을 세대 별로 사용하며 주방, 화장실, 거실을 공유하는 만큼의 적극적인 정도는 아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복도와 엘리베이터를 공유하지만 공동공간은 철저하게 외부로 인식하고 개별 공간인 ‘우리집’으로 들어왔을 때에만 신발을 벗는다. 그에 반해 따공은 공동공간을 거실처럼, 개별 세대를 각자의 방처럼 이용한다. 이를 통해 완전한 가족만큼의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적당히 가까운 관계를 지향하는 따공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별명을 부르는 문화 역시 서로의 거리를 조절하지만 서로를 향한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시도이다. 이름이 아닌 별명 부르기를 통해 따공의 구성원들은 혈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형, 언니 혹은 팀장님, 과장님 같은 호칭이 아닌 별명을 부름으로써 평등한 관계로 관계성을 재조직한다. “아주 예의를 차리는 것도 아니면서 거리가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닌 적당한 거리감”(심층면담1)을 가지고 공식적인 회의와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역시 ‘권위’ 혹은 ‘두려움’과 같은 감정 없이 깔끄러운 이야기를 할 때도 자유로운 나눔을 하게 된다.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성품의 차이로 인해 의견 나눔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진 경우, 불만이 생겨나고 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교육을 듣거나 공동체주택 선임자들에게 유사한 사례를 물으면서 회의의 절차를 바꾸는 방법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공동체주택에서는 구성원들 간에 새로운 관계성이 생겨난다. 이는 입주하기 전 알고 지냈던 관계성이 아닌, 직장이나 다른 조직과도 분리된 새로운 관계성이 생성된다. 이러한 관계성은 외부에서 얻은 상처, 어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공간을 마련해준다.

구성원들 모두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모아 만든 공동체규약은 당장 전부 지켜지지 않는 이상적인 명문에 가깝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

여준다. 규약을 수정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가치와 타인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가치를 조정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공동체활동에 해당하는 임원회의와 전체회의는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게 해주며 비공식적으로 열리는 모임들은 친목을 다짐으로써 서로 간의 우정을 공고히 해준다. 성미산마을과 함살집 1~7호 주민들과의 교류는 따공이 마을과 같게, 혹은 다르게 하면서 따공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 마을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거나 아이들을 공동육아 어린이집, 방과후 활동에 참여시키면서 마을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함살집 1~7호 주민들과 상호학습을 통해 공동체주택에서 더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이와 같이 공동체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공동체공간, 공동체규약, 공동체활동을 기본으로 신발을 벗고 공동체공간을 공유하고 별명을 부르는 문화,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의무가 뒷받침된다. 더 나아가 성미산마을이란 인프라와 선배 함살집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이 메꾸어지며 공동체성이 견고해진다. 다양한 장면들을 통해 분석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편재성, 무시간성, 무장소성, 무역사성의 공동체성이 아닌 따공 주민들에게 있어서의 역사성, 장소성, 국지성을 지닌 공동체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포기해 버리지 않는 마음”

구성원들은 따공에서 함께 살기 위해 서로 어울리도록 노력한다. 나무는 온라인 축구게임에서 전 세계 상위 3%를 기록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루는 주주의 아이가 집에 놀러 와서 아이를 데리러 주주가 나무의 집에 왔었다. 주주가 와서 축구게임을 하는 나무를 보더니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했다. 나무는 주주 혹은 따공의 구성원들과 게임을 하는 게 매우 쉬워서 재미가 없다. 하지만 게임을 즐겁게 하는 게 목적이 되기보다 함께 어울리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적당하게 경기를 하면서 작은 점수 차로 이긴다.

대학생인 밀크 역시 다른 구성원들과 공감대가 크지 않더라도 너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밤모임에 참여해 만나려고 노력한다. 강제적인 모임이 아니지만 아예 소외되긴 싫기도 하고 지나치게 거리를 두지 않으려고 한다. 밀크가 참여하면 다른 구성원들은 근황을 물어봐 주고, 미술에 관심이 많은 아키는 밀크와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어하기도 한다. 그렇게 막상 모임에 참여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왠지 낯익은 느낌도 즐기고 기분 전환이 된다. 실제로 구성원들이 그렇게 딱 막히거나 나쁜 사람들도 없고 최소 10년은 봐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하고 익숙해지려고 한다. 밀크는 구성원들과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계속 같이 살다 보면 벽이 무너질 것 같다고 느낀다.

그렇게 딱 막힌 사람들도 없고. 미우나 고우나 10년 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가서 약간 얼굴을 비추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억지로라기보다는 저도 좋아하려고 노력해요. 적응하고 약간 정말 이웃, 친척 느낌으로 어찌 보면 엄마, 아빠보다 더 자주 보니까요. 저도 그래서 너무 거리 두지 않으려고 가서 한 번씩 그냥 얘기하고 듣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드려고 하는 느낌.(심층면담3)

일부 구성원들은 함께 살기 위해 스스로의 생각, 마음,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얼그레이는 따공에서 생활하며 인간관계, 규칙, 의사소통 등 전 영역에 있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말할 때에도 나의 주장이 100%라면 20% 정도는 다른 사람과 타협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나의 뜻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얼그레이는 모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섞여진 최종의 결과물로서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믿는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인데 당장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거나 마음이 상했더라도

짧으면 10년을 보고 지낼 사이이기에 길게 두고 보면서 불편함이나 문제도 달라질 것이라는 여지를 뒤야 한다고 말한다. 따공의 구성원들은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모였다. 그래서 돈도 안 되고 힘들기만한 공동체주택이란 무모한 선택을 하였다. 그렇기에 시야를 넓히고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러기 위해 인내하고 여지를 두려고 한다.

뭔가 딱 단정 지어서 ‘재는 안 되겠다’, ‘단절이다’라고 결정지어 버리는 게 아니라 당장은 저게 맘에 안 들고 우리 성격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면서 약간 마음이 서늘해지는 상황일지라도 그대로 고착되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나도 변할 거고 그 사람도 변할 거고, 변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중립지대를 우리는 찾아갈 거라고 희망을 놓지 않는, 그냥 포기해 버리지 않는 마음.

(심층면담6)

얼그레이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스스로가 단정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고 성장할 수 있고 어울러질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싶다면 타인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굳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는 그래도 10년은 죽으나 사나 봐야 하니까, 가족처럼 봐야 하니까” 다른 인간관계처럼 잘 맞지 않으면 단절하지 않고 여지를 두려고 한다.

토마스는 따공에서 살며 자신은 이해할 수 없는 필요를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예를 들어 다른 구성원들이 원하는 게 있거나 뭔가를 주장할 때, 토마스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다. ‘친한사람들끼리 같이 살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공동체주택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살다 보니 누군가는 인생의 의미 혹은 인생의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자, 일종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체주택에 입주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무언가를 주장하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자신이 왜

이것을 주장하는지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에 대해 완벽하게 알기 어렵기에 당장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굳이 묻거나 따지지 않게 됐다.

드래곤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솔직한 성품을 배운다. 드래곤은 불편했던 상황, 말, 행동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그래서 아내인 하양이와도 부부싸움을 잘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 아니다. 여전히 따공이 아닌 다른 관계에서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따공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웃고 넘겨주고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구성원들이 원하다 보니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됐다. 드래곤이 방음실 공사를 할 때, 밖에서 어떤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따공 구성원 중 한 명이 시끄럽다고 말을 했다. 드래곤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으나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분이 상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상대방도 웃으면서 그랬냐고 넘어갔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 따공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드래곤은 얼그레이, 별님, 아키 같이 솔직하게 말을 잘하는 구성원들을 보며 솔직하게 표현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오히려 그러면서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불편한 이야기를 했을 때 부정적인 분위기로 가지 않고 웃고 넘기거나 그랬냐고 이해하며 이야기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드래곤은 함께 살기 위해 눈치를 보지 않고 솔직한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공동체에서 상처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를 줄 만한 일들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드래곤은 솔직한 성품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방법도 배운다. 드래곤은 다른 곳에서 누가 무언가를 제안하면 보통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누군가가 모이자고 하면 귀찮거나 에너지가 없어 가지 말까 고민이 되도 가는 편이다. 하지만 따공에서는 모임에 가고 싶지 않고 쉬고 싶으

면 불편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렇다고 기분 나쁜 얘기를 막 하진 않지만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냥 그럴 거면 하지마!” 이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계속 그런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속 사는 게 힘들 수 있다. 마음에 뭔가 좀 상처라든지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을 계속 묻어두고만 산다면 계속 여기서 산다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심충면담8)

토끼 역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살기 위한 노력으로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토끼의 경우 힘들거나 서운한 감정이 쌓이면 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바로 표현하는 것이 토끼가 따공 생활에서 노력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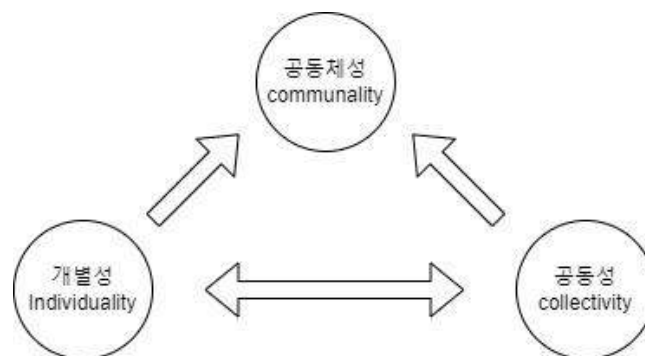
구성원들이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지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서로에게 함께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려고 한다. 둘째,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앞서서 판단하거나 단절하지 않으려고 한다. 셋째, 상대방에게 힘들거나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묻어 두기 보다 솔직하게 표현하며 소통하고자 한다. 구성원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미우나 고우나 10년은 봐야 하는 사이”(심충면담3)이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따공이 자가로 전환되는 최소 10년까지 이주를 할 생각이 없고 현재까지 전 구성원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래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10년이 넘어도 함께 살고자 하는 세대들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마음, 태도를 변화시키고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만약 2년 주기로 이주하거나 언제든지 단절할 수 있는 관계라면 피곤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10년 이상을 살더라도 이웃과의 아무런 교류가 없다면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쓰지 않았을텐데

공동체공간, 공동체규약, 공동체활동이 기본이 되는 따공의 시스템과 특유의 문화와 환경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포기해 버리지 않는 마음”을 지니게 하였다.

2)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같이”는 따공의 구성원들이 슬로건처럼 되뇌이는 문구이다. 따공은 지나치게 질척대지 않는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한쪽 끝에 개별성, 즉 개인주의가 있고 한쪽 끝에 공동성, 집단주의가 있다면 따공의 공동체성은 그 “중간지대”(심층면담6) 어딘가에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따공의 구성원들은 모두 같은 기대를 하고 입주한 것이 아니다. 햇살은 마을의 인프라를 기대하고 입주하였지만 토마스는 마을과는 엮이기 싫어한다. 여러 세대가 ‘공동육아’라는 키워드를 공유하지만 비혼 세대와 무자녀 세대도 존재한다. 삶의 의미를 따공에서 찾아가고 싶은 구성원도 있지만 회의나 활동이 조금 더 많을 뿐 일반 공동주택과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는 구성원도 있다. 따공을 가족처럼 여기고 대하는 구성원도 있으며 조직이나 비즈니스처럼 느끼는 구성원도 있다.



[그림 7] 개별성과 공동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따공의 공동체성

개별성을 지향할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개인의 자유, 사생활, 번잡하지 않음, 나만의 공간과 시간 등이 있지만 개별성만을 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고립감, 외로움을 동반한다. 공동성을 지향할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공동체적 도움, 신뢰감, 안정감, 소통과 교체 등이 있는 반면 갈등, 공동의 일에 대한 번거로움, 시간과 에너지의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따로 또 같이”에서 각자의 “따로”와 “같이”가 어느 정도인지 서로 “담갔다 빼면서”(심층면담1) 알아가야 하는데 이는 매우 고차원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고 누군가는 약한 수준의 ‘같이’를 원하는데 누군가는 더 깊은 ‘같이’를 원한다. 이를 분별하기 위해 대화를 많이 하고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향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자주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슬슬 빠지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슬슬 빠질 수가 없잖아요. 한 건물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직면해야 하는 부분들을 연습하고 자기한테 약한 부분을 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심층면담10)

‘따로 또 같이’를 위해 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다. 처음 공동체에서 추구하고 싶은 가치를 나눌 때에도, 공동체가 지나치게 강제적이지 않고 ‘느슨한 공동체’를 추구하였다. 보다 공동성을 추구하는 경우, 개인적인 것들은 잘 돌보는데 공동의 일에 에너지를 잘 못 쓰는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반면 개별성을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자주 모이는데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전자는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기준이 높았음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후자는 모임에 참석을 하려고 노력하며 서로의 거리를 조정한다.

초반에는 함께 산 지 1년이 넘은 현재보다 더 자주 모였지만 모임도 덜 하게 되고 서로 서운한 것들도 소통하면서 조정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모두 함께할 수는 없는데 함께하자고 강요하면 폭력적일 수 있고 누군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주최를 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끼리만 모여도 의미 있는 모임이 되도

록 한다. 또한 누구나 시기에 따라 공동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개인적인 일이 바빠지면 공동체에 소홀해질 수도 있기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이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서 주도적으로 공동의 일을 하다가도 물러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주도하며 유기적으로 진행된다.

누구든지 할 사람은 “하자!” 이렇게 카톡 보내요. 사람도 에너지가 다르니까. 지금 제가 초반에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제가 일이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되거나 하면 사람마다 패턴이 있을테니까.(심충면담4)

누가 많이 인볼브 되는 타이밍이 있고 그 사람이 좀 힘이 빠져서 쪽 빠질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유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누가 많이 좀 요즘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 들어가 있고 싶어 하잖아요.

좀 적극적인 타이밍에 이런 사람이 사람들이 적극적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태가 좋은 지점이 파트마다 또 다르고 나오는 사람이 좀 다르고 주도하는 사람이 다르고 자기가 관심 있는 쪽이 더 주도를 하죠.(심충면담10)

마찬가지로 공동의 일을 처리할 때, 자연스럽게 어떤 구성원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어떤 구성원은 소극적이거나 참여하지 않을 때에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공 생활에 필요한 방음실이나 책장을 만들었는데 모두가 참여해 일을 하지 않아도 만약 여유가 있었다면 나와서 도와주었겠다는 믿음이 있고 나오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기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언젠가 문제가 불거지면 소통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선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참을 수 있는 만큼”(심충면담7) 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 입장, 태도가 존재하지만 각 사람이 따공의 구성원이기에 누군가를 배제하고 ‘공동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공동체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방해 요소이다. 한 사람이라도 배제하게 되면 그 자

체로 따공의 “공동체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며 개별성과 공동성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따공의 공동체성이다. 기왕 함께 살기로 모였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도전을 하였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추구하도록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성을 추구하게 되며 그러한 균형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 구성원들이 공동체성을 인지하고 상호학습하게 될수록 명확한 공동체성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2장에서 선술한 게마인샤프트적 공동체에서는 자원, 부, 에너지의 한계 때문에 개별성이 발휘될 수 없었다. 공동체가 공동 자원들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커먼즈가 작동하며 공동체의 규칙에 의해 개입과 간섭은 일상화 된다. 이러한 개입은 게젤샤프트적 공동체가 익숙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규율과 통제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이러한 규율과 통제에 동의하지 않는 반면 극도로 개별화된 사회에서의 고립, 고독, 소외감을 극복하는 동시에 개별성을 존중받고자 “따로 또 같이”라는 가치를 내걸게 된 셈이다. 공동성과 개별성 사이의 완벽한 경계 짓기, 구획 짓기는 불가능하기에 서로 간 대화를 통해 “담갔다 빼가면서”(심층면담1) 균형을 찾아간다.

VI. 공동체주택 주민들의 공동체성 학습

1. 상호작용을 통한 개별 학습

1) 비형식적 교육 수강

공동체주택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일을 처리하며 학습한다. 공동자금이 있고 공동공간을 사용해야 하고 월별로 한 차례 이상의 공동체활동을 하고 있기에 임원단을 중심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각 구성원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대표, 시설, 회계, 규약 마련 등 일

의 분배를 통해 일을 처리한다.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의 경우 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나누며 의견을 규합하여 진행한다. 내부에서 해결책이 없을 때 함살집 협동조합에 문의하고 다른 공동체주택 사례를 참고한다. 이들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배운다. 동네 방과 후 책방 책조아에게 공동체공간을 대여해줌으로써 한 달에 약 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영수증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법인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현재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으로 만들거나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동체주택 자체를 협동조합의 형태로 만드는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따공을 협동조합으로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원들은 협동조합교육을 찾아 초빙해서 함께 교육을 듣고자 한다. 다음은 임원회의의 대화 중 일부이다.

토마스: 그래서 교육을 듣자고요?

일빠: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키: 날짜를 알려달래요.

토마스: 근데 다 들을 필요 없잖아요.

일빠: 원래 만약에 협동조합을 하려면 이제 하는 걸 취지로 교육을 들을 거면 다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고민 중에 듣겠다 하면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토마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 중이잖아 고민 중에 듣는 걸로 하고 그냥 뭐 몇 명만 들읍시다.

일빠: 근데 그게 오는지 사실 그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그러니까 해주는 조건이 교육을 듣고 협동가입을 조건으로 와주는건지..

아키: 들을 사람?

토마스: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들어볼래요.

일빠: 저도 들어볼래요.

(임원회의3)

공동체주택 구성원들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필요가 있으면 함살집 협동조합 혹은 서울시 공동체주택 지원 허브 “집집마당”에 문의한다. 집집마당은 공동체주택 관련 각종 정보제공, 공동체주택 상담 및 컨설팅 지원, 공동체주택 아카데미 운영, 공동체주택마을 투어 및 대관, 공동체주택 네트워킹 모임 운영, 그 밖에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한다.²⁶⁾ 특히, 교육이 필요할 때 네트워크를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 집집마당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협동조합 입문교육”을 제공해주었고 토마스, 일빠, 얼그레이가 참여하였다. 협동조합 전문가가 따공에 찾아와 협동조합의 정의부터 역사, 운영원칙, 한국 주택협동조합의 유형 등에 대해 강의하였다. 교육을 듣고 난 후 비록 따공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도약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 셈이다.

또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모두가 공유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더 잘하기 위해 교육을 듣고자 하였고 집집마당에서 주거 공동체 운동 전문가를 초빙해주어 전 구성원이 의사결정교육을 듣게 되었다. 각 구성원들의 성향 검사를 하고 다른 공동체주택 사례를 듣기도 하였다. 이 교육을 통해 회의에서 의사를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견을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의사결정이 되지만 당시 말하지 못하고 뒤늦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그것이 뒷말처럼 들려서 결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뒤늦게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소극적이고 신중한 사람들의 경우, 앞에서는 생각이 잘 나지 않거나 말하고 싶었는데 정리가 안 돼서 말을 못하다 후에 정리가 돼서 말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성향의 차이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빨리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에 회의 진행자가 시간 배분을 균등하게 하고 발언의 기회를 골고루 분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6) 집집마당

<https://soco.seoul.go.kr/coHouse/main/contents.do?menuNo=200014>

또한 회의 안건을 임원회의에서만 공유했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회의 안건을 전체를 대상으로 미리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바로 의사를 결정하기보다 시행해보고 다음 회의까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안건이 확정됐을 때는 박수를 친다거나 서로 축하해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의 결론을 맺었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기로 하였다. 따공 사람들은 따공에서만 의사결정이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공동체주택도 결정이 매우 어렵고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유사한 문제들로 고생을 한 사례를 들으며 약간의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또 다시 변화할 수 있지만 시행착오를 겪은 중간 결말이다.

의사결정교육에 이어 요청한 교육은 장기수선충당금 교육이다. 따공 건물의 유지 보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 남짓이다. 따라서 앞으로 큰 돈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보고자 했다. 다른 함살집을 조사해 보았을 때, 6만 6천원을 걷는 곳도 있고 가구당 1만원을 걷는 곳도 있어 평균적으로 4만 6천원을 모았다. 보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나누는 공식으로 대입해 보았을 때 따공의 한 세대에서 분담해야 하는 금액은 4만 5천원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회비를 이미 4만원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4만 5천원을 더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세대가 있었다. 그래서 언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을지, 얼마를 걷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또다시 교육을 요청했다.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차차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따공에 작게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구성원들은 이 경험을 통해 소방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아키는 불이 나면 위로 가야 하거나, 비상벨을 누르거나, 완강기를 타는 방법을 연습하여서 위급 시 대처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토마스는 소화기를 쓰는 방법을 실습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따라서 소방교육을 어떻게 할지 나누어졌고 소방담당인 나무는 자신의 지인인 소방공무원을 초빙하여 다함께 소방교육을 듣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더 나은 공동체주택을 만들기 위해 비형식적 교육을 통한 학습을

하고 있다.

2) 자신의 역할 찾기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는 “오픈하우스”와 “어린이 캠프”이다. 오픈하우스는 진정한 함살집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오픈하우스는 이사를 한 후 마을 주민들과 지인들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공개하는 일종의 ‘집들이’이다. 오픈하우스를 진행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손님들을 위해 다과를 준비하고, 어떤 행사를 할지 구성해야 하며, 각 세대는 가능한 한 자신의 집을 공개한다. 임원회의를 할 때, 다과를 어느 정도로 준비할지 의견이 다양했다. 몇 명이 올지 불분명하며 많은 인원이 올 거라 예상하는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 간에 차이가 있었다. 토끼는 다과 준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100명분의 다과를 넉넉히 준비하고 싶어 하였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의미에서 예쁘게 플레이팅 하여 두고 싶어 하였다. 토끼는 입주 전에 다른 함살집 오픈하우스에 갔던 적이 있는데 잘 차려진 음식을 대접받으며 환대를 받는다고 느꼈다.

토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막 허례허식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픈하우스를 가봤잖아요.

토마스: 뭐 화려하게 차려놨어?

토끼: 어마어마하거든. 내가 컵과일 얘기하는거는 내가 그때 컵과일을 해서 컵과일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나봐.

토마스: 궁금한 게 있어요. 좋았어요?

토끼: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환대받는 느낌이었던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요. 뭔가 그냥 때우는 느낌이 아니고 웰컴의 느낌이 많이 느껴졌단 말이지. 정성들이. 약간 이렇게 툭툭 놓는 거 쉬운 것도 좋긴 한데 너무 이렇게 빈 것도 좀 민망할 것 같아.

(임원회의4)

하지만 토마스는 100명의 인원이 오픈하우스에 올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회계 담당인 일빠는 공용 자금이 계획했던 금액보다 더 소모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다. 오픈하우스는 큰 규모에 행사이니만큼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1부는 손님들을 모아놓고 따공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정해졌다. 전체적인 소개는 대표인 아키가 맡고 각 세대를 각자 소개하였다. 2부는 “오픈 더 도어” 세대별 투어인데 201호는 오픈하우스에 참여하지 않았고 잣난아기를 키우는 202호는 전체 행사에 참여하였으나 세대를 공개하지 않았다. 3부의 음악회가 하이라이트인데 따공의 구성원 중 일부가 노래, 연주에 관심이 있어서 세대별 방문을 한 후 다시 공용공간인 쉼터에 모여 음악회를 하는 것이다. 음악회는 다른 함살집과는 차별화되는 따공만의 문화로 쉼터 안에 있는 작은 공간을 방음실로 만들어 드럼, 기타, 키보드 등 악기를 두고 연습하였다. 이는 드래곤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하양이와 토끼의 듀엣, 드래곤과 드래곤의 친구들의 밴드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합창이 순서이다. 일빠는 이러한 일정에서 자신이 할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좀 외부에서 안내를 좀 해야될 것 같아. 3시에. 일단 토마스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드래곤도 그때는 악기나 이런거 챙겨야 될 거고 토끼는 아마 먹는 거랑 여기 데코랑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게 나올 것 같고 아키는 그때 스피치 준비를 조금 해야 돼서 이건 내가 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임원회의4)

손님들이 오면 입구가 어디인지, 어디가 따공인지 헷갈릴 것이므로 건물 밖에서 안내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각자의 역할이 있기에 일빠가 자신이 맡겠다고 한 것이다. 토마스는 오픈하우스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각 세대를 구경하고 쉼터에 왔을 때 다 모이기까지 시간이 비는데 그때 공동체주택에서 찍었던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하여 보여주기로 했다. 각 구성원들이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오픈하우스는 1부 따공 소개, 2부 세대별 투어, 3부 작은 음악회까지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다.

오픈하우스가 함살집이면 해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라면 따공 어린이 캠프는 육아를 하는 세대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난 행사이다. 따공의 8세대 중 5세대가 2세~9세 사이의 10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일빠는 아이들에게 캠프의 짜릿함을 경험시켜주고 어른들은 캠프를 준비 하면서 연대감과 옛 추억을 떠올리고 싶어 어린이 캠프를 준비하였다. 어린이 캠프는 각 구성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역량이 잘 발휘된 행사였다.

총 진행 하양이를 비롯해 물놀이는 아키, 나무, 주주, 드래곤이 진행 하였고 저녁 식사는 토끼가 준비하였다. 저녁부터는 아이들이 미션을 수행하였는데 초등학생 팀과 어린이집 팀으로 아이들을 나누고 1코스부터 4코스까지 4세대를 돌아다니며 스티커를 모았다. 1코스는 토마스와 가나 담당의 유쾌컨셉으로 “몸으로 말해요”, “과자 떼서 먹기”와 같은 명랑운동회를 하였고 2코스는 별님 담당의 진중컨셉으로 “책 이야기 듣고 문제 맞추기”를 하였다. 3코스는 아키와 토끼 담당의 빠센 컨셉으로 “매운음식 먹기”, “얼음에 발 올려놓고 참기”, “좁은 통로 통과하기”를 하였고 4코스는 나무가 담당한 감동컨셉으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찍어 놓은 영상을 보고 마지막으로 선물 증정까지 하였다. 구성원들은 이 행사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구성원들의 재능에 의존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행사가 진행되었다.

공동의 일을 하며 서로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무엇을 조심하는지도 깨닫는다. 예를 들어 토마스는 비용처리와 안전에 관한 문제에 예민하며 이미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 사안에 대해 설득하려는 걸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주주는 논의를 걸쳐 의사결정을 한 사안을 다시금 번복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몇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해서 결정한 사안이 어느 날 쉽게 바뀌어 있는 것을 불편해했다. 구성원들은 조심해야 할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공동의 일을 처리하며 서로 배려하려고 노력한다.

3) 경험의 전수

구성원들은 공동체주택에 합류하게 된 이유도, “공동체성”을 기대하는 기준도, 마을 활동의 참여 수준도 다른 상태로 함께 살게 된 지 1년이 넘어간다. 하지만 이들은 ‘성미산마을’이란 마을공동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으며 성미산 함살집 1~7호를 포함한 전국 18채의 함살집 구성원들을 선임자로 두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여름이 되자 주차장에 벌레가 많아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는 주차장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상태이지만 출입구를 개방하면 벌레들이 집에까지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토마스는 7호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주변 집들에게 물어봐 줄 수는 없는지 물었다. “다른 집들도 대책이 없이 있다면 괜찮은가보다 하고 지내고 뭔가 조치를 했다고 하면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였다. 토마스는 따공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도 다른 함살집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하였다.

혹시 물어보면 안돼요? 그거 물어보면 어떨까요? 함살집에 다른 주택 중에 협동조합 한 사람들 없는지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봄직 하지 않을까? 샘플로... 한번 들어보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 그냥 한번 귀뜸으로 한번 들어보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혹시 의외로 좋은 게 많을 수도 있잖아.

(임원회의3)

또한 함살집 협동조합에서 밤옥상투어 행사를 하는데 각 함살집의 옥상을 열어서 옥상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고 다른 구성원들을 초대하여 교제의 시간을 갖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성미산마을 내 함살집 뿐만 아니라 부천, 화곡동 등 다른 지역의 함살집도 참여한다. 아키, 토끼, 일빠는 아이들과 함께 함살집 1호 밤옥상투어 행사에 참여하였다. 2011년 완공된 함살집 1호는 함께 지낸 지 11년 차가 되었으며 함살집 8호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다. 함살집 1호 구성원들은 공동육아를 하

면서 함살집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꾸었으며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다. 따공의 구성원들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아이들이 어울려 놀며 연애를 하는 일은 없었는지 묻거나 중간에 구성원이 교체되었던 사례, 물이 새서 물난리가 났던 사례 등을 들으며 앞으로 살게 될 10년의 삶에 대해 상상해보았다.

따공 역시 밤옥상투어 행사를 개최했다. 한우, 새우, 버섯, 연어샐러드, 포도, 사과까지 풍성한 음식에 소주, 맥주를 준비했다. 다음 차례는 함살집 7호인데 이렇게까지 준비하지 못한다며 부담스러워할 정도였다. 함살집 1호에서 5명, 7호에서 6명, 화곡동 함살집 1, 2호에서 2명이 손님으로 왔고 따공에서는 일빠, 나무, 아키, 햇살, 토끼, 주주, 드래곤, 별님, 가나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한 북적북적한 행사였다. 1호에 사는 두 명의 구성원이 월 1회 줌베 수업을 하는데 따공 방음실에서 진행하기로 하자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전국의 함살집 19채의 행동대장을 뽑아 함살집 상호 네트워크를 발전시켜보자는 계획을 하였다. 저녁 여섯시 경에 모인 모임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들이 다른 함살집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따공 앞에 바로 옆에 위치한 함살집 7호와 그동안 교류가 없었는데 안면을 트게 되었다.

저희 7호랑 교제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옥상에서 처음으로 통성명을 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너무 좋은거예요. 이분들은 마을에서 이미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거든요. 살게 된 거는 얼마 안됐지만. 그 전에도 요 근처 마을에 살면서 이미 오래 활동하시던 분들이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인거예요.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되게 수더분하고 우리도 환대하고 서로가 되게 환대하고 잘 지내더라고요.(심층면담4)

하양이의 발언처럼 많은 구성원들이 성미산마을, 그리고 함살집이 대표적으로 공유하는 문화를 ‘환대’로 꼽았다. 함살집 4호 11층에는 택견장이 있고 택견 20주년 기념행사를 했었다. 따공의 구성원들은 마을 사람

들과 접점이 없었을 때였는데 7호 사람들이 와서 책조아 모임에 참여하는 나무, 하양이, 별빛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했다. 그때 7호 구성원이 음식을 사 먹으라고 2만원권 쿠폰 두 장을 주고 계속 말을 붙여주어서 덜 어색하고 따뜻함을 느꼈다.

또한 성미산 학교 학생들이 인근 초등학교를 빌려서 체육대회를 하기도 했다. 나무의 자녀는 성미산학교 입학 예정이어서 와보라는 제안에 잠깐 들렸다. 그때에도 마을 사람들을 잘 아는 7호의 구성원이 잠깐 집중해 보라며 나무라고 소개를 하며 박수를 치는데 ‘환대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꼈다. 나무는 자신이 받은 대로 해줘야 타인이 자신이 환영받는 존재이고 이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있다고 느낄 것 같아 다음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해줘야겠다고 다짐했다.

저는 환대의 마음은 제가 지금 정리한 건 좀 약간 채무의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빚진 마음에서. 이거를 하기 전에 다른 주택에 가서 배울 때, 배운다기보다 가서 봤을 때 되게 잘 설명해주고 집을 오픈해주고 수고롭게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할텐데 되게 친절하게 해줬거든요.(심충면담5)

전국 합살집 약 60명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있는 단체 온라인 채팅방이 있다. 그 방에서 몇 달을 거쳐 다른 합살집들과 교류를 주도하는 행동대장을 각 합살집에서 선출하였고 첫 모임을 결정했다. 첫모임을 따공의 쉼터에서 하게 되었고 부천, 삼선동, 성미산 1호, 4호, 5호, 화곡동 1호, 2호를 비롯해 따공의 행동대장 토끼까지 약 11명이 모이기로 했다. 나누게 될 이야기는 대청소, 옥상과 마당의 활용 팁, 아이들이 성장하고 청소년이 되었을 때 지내는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커가는 아이들의 청소년기 이야기, 옥상 파티, 놀기 위해 행사를 만들고 자발적 참여를 세대별로 잘하게 만드는 방법, 각종 여행 등이 나누어질 예정이다. 물리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육아를 잘하는 방법, 그 이면에 서로를 대하는 방식까지 상호 간 교류를 통해 배운다.

맨 처음에 거북이라고 1호에 사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공동체주택 살아보니까 자기가 조금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되게 멋있었거든요.(심층면담5)

4) 생활 학습

과거 마을 단위로 모여 살거나 대가족 단위로 살았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TV나 방송매체로 시청하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 내가 속한 삶을 벗어나는 타인의 처지나 상황에 대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반면, 따공의 구성원들은 함께 살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방식을 목격하며,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공 대다수의 세대는 기혼, 유자녀이다. 토마스 와 얼그레이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덩크가 된 것은 아니고 현재도 아이가 생기면 낳고, 생기지 않으면 낳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육아를 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나 어려움, 필요에 대해 글을 읽어보거나 미디어에서 접해 알기는 하였지만 와닿지는 않았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지, 공동체가 어울려 살면 아이들에게 왜 좋은 것인지를 잘 몰랐는데 같이 살며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얼그레이는 조카가 많지 않고 자주 보지도 않아서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다. 카페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느끼게 되는 감정은 ‘시끄럽다’, ‘성가시다’, 혹은 ‘난 잘 몰라’ 그래서 ‘무서워’였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 도와주거나 해야 할 때 익숙하지 않아 잘 몰라 피하곤 했다. 이처럼 기존에는 아이들을 접할 일이 없었는데 따공에서 수시로 보고 인사하니까 친숙해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느낀다. 그래서 밖에서 다른 아이들을 만나거나 길을 걷다 보게 돼도 아예 낯이 아니라 좀 더 익숙하고 친밀하고 소중한 느낌이 든다.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돌봐야 할 약자이며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얼그레이는 요가 강사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

면 아이들이 자고 있어서 부딪힐 일은 많이 없지만 가끔 부모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지 못했을 때 데리러 가주기도 한다. 아이들은 얼그레이가 키우는 고양이를 좋아해서 얼그레이 집을 가고 싶어하는데 고양이가 아이들을 싫어해서 자주 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얼그레이네 집은 궁금하고 드물고 낯선 집이다.

한편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 느껴지는 소외감도 있다. 육아를 주제로 대화하면 얼그레이는 관심도 없고 정보도 없어서 공감할 수가 없다. 얼그레이는 잘 모르는 아이들의 관한 이벤트나 일정이 공유될 때 거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밤에 놀고 싶고 모이고 싶을 때 다른 집은 아이들을 다 채워야 가능하다. 그 시간이 우후죽순이어서 약속을 했어도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고 예측이 안 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육아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피곤함을 느낀다. 그리고 대다수가 아이를 키우는 세대이다 보니 공동체행사나 일정을 잡을 때에도 아이들 중심으로 주제들이 잡히는 것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한다. 아이들도 따공에 존재하는 구성원이기에 그들도 그들대로 존중받고 이 공동체를 향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연스럽게 공동체 전체 일정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구성원들은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게 될 때, 먼저 물어봐 주거나 괜찮냐고 이야기해주며 챙겨준다.

일단은 유자녀 가족들은 이런 저희를 좀 배려해주려고 계속 신경쓰는 건 보여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봐 주고, 뭐 할 때 괜찮냐라든지 혹은 같이하자고 한 번 더 말해 준다던지. 그러지 못했을 때 미안해하거나 우리 상황을 좀 살펴서 한 번 더 들여다 봐준다거나 배려해주는 걸 느껴요.(심층면담6)

대학생인 밀크는 강한 비혼주의자여서 앞으로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고 주변에 밀크와 어울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밀크는 아이들도 주변에 없고, 기혼자들도 주변에 없게 되면 비혼주의자의 삶만 매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요즘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선 기혼여성혐오²⁷⁾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다. 밀크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혐오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따공에서 결혼한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밀크 역시 육아를 하는 구성원끼리 유대가 있고 스스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생긴 거리가 있고 그 거리가 적당하다고 느낀다. 밀크와 같이 비혼주의자가 있었다라면 다른 거리를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구성원으로는 이렇게 지내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였다. 한편, 아이를 키우는 세대의 경우 서로 다른 육아 방식을 보며 학습한다.

가족끼리 살 때는 나의 필요나 나의 정서적 교류, 아이를 키울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사니까 ‘저 집은 저런걸 중요하게 여겨서 저렇게 교육을 하는구나’, ‘이 집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배워요. 제가 ‘나는 이게 너무 심했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나친 부분이 있었구나’, ‘이건 내가 너무 예민한거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거는 강요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요.(심충면담1)

햇살은 가장 어린 나이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 모두가 선배 엄마들이기에 다른 엄마들의 교육관을 접하게 된다. 다른 아이들을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대별로 필요한 교육, 혹은 자유분방하게 아이들을 허용하거나 통제하는 기준, 불량식품을 허용하는 기준, 아이를 대하는 말투 등을 배운다. 햇살의 첫째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기존에는 매우 정적인 놀이만 했다면 따공에 와서 오빠들과 어울리며 활동적으로 노는 모습을 보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예를 들어 태권도도 뭘지 몰랐던 아이가 오빠들이 태권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태권도를 하고 싶어 하는 등의 변화

27) 기혼여성혐오는 트위터와 워마드 등지에서 유행하는 기혼여성을 향한 혐오를 말한다. 혹자는 이것이 권력자와 기득권층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혐오가 아니라 저항이라고 말한다.

가 생겼다.

예를 들면 우리는 공부에 있어서는 터치를 잘 안 하는데 다른 집은 교육적인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나이에 따라서 혹은 성격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너무 통제를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벗어나는 아이가 있고 그냥 풀어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심층면담9)

아이들이 집집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놀다 보니 이를 불편하게 느껴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다. 아이들이 집에 오면 성인들은 간식을 줘야 하기도 하고 먹은 걸 치우고 장난감을 꺼내주고 정리해야 하는 힘든 노동이 동반된다. 그래서 다른 집에서 놀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햇살의 자녀는 다른 집에 가서 간식을 달라고 자주 했는데 다른 집에 가서 절대 간식을 달라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간식을 들려 보내기도 했다. 하양이네는 따공의 사랑방으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선호하는 집이다. 아이들이 자주 방문하다 보니 하양이와 드래곤은 충분히 쉬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요즘엔 아이들에게 직접 “하양이 너무 피곤해, 이제 집에 가”라고 하거나 8시반이 지나면 집에 가게 하고 누가 온다고 했을 때 지금은 안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등 규칙을 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쉼터로 아이들을 보내 쉼터에서 노는 문화를 만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2. 활동이론 관점에서 분석한 공동체성 학습

1) 공동체주택에서 직면한 모순들

2장 2절에 선술하였듯 3세대 활동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모순’이다. 모순은 활동체계 내 혹은 사이에 역사적으로 축적된 구조적 긴장이다. 하지만 모순은 학자들 사이에서 긴장(Tension), 역설

(Paradox), 갈등(Conflict), 딜레마(Dilemma), 이중구속(Double bind) 등이 혼합되어 애매하고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엥게스트롬과 Sannino(2011)은 모순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모순에서 주로 발견되는 징후인 “갈등”, “주요한 갈등(Critical conflict)”, “딜레마(Dilemma)”, “이중구속”, 4가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징후들이 나타내는 특성과 기본적인 언어 신호를 연결함으로써 모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드러냈다.

<표 5> 모순의 4가지 징후 특징 (Engestrom, Sannino, 2011: 375)

징후	특징	언어적 신호
갈등	논쟁, 비판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해결: 권위나 다수에 따름	“맞아요”, “받아들일게요”
주요한 갈등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고립감 혹은 죄책감을 느끼며 모순적인 동기를 마주함	개인적, 정서적, 도덕적 설명 선명한 은유 사용
	해결: 개인적인 의미를 찾아 협상함	“이제 깨달았어요”
딜레마	공존할 수 없는 평가의 표현	“맞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면에...”
	해결: 부인, 재처방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내가 말한 것이 뭐냐면...”
이중적 구속	활동체계 내 압박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안에 직면함	“우리”, “우리에게”, “우리는 해야만 해”와 같은 무기력하고 강제적 표현 사용
	해결: 언어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전환	“한번 해보자”, “우리는 할 수 있을거야”

“갈등”은 논증하고 비판하는 것인데 타협점을 찾거나 권위 혹은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서 해결할 수 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와 같은 발언이 “맞습니다”, “이제 받아들입니다”로 변화된다. 따공 회의에서 “갈등”의 장면들은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다 더 나은 의견이 나오면 받아들이거나, 선배 함살집과 교육을 통해 배우게 된 제도들을 적용시키며 새로운 제도를 수용하게 된다. “주요한 갈등”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고립감 혹은 죄책감을 느끼며 모순적인 동기에 직면하며 이는 새로운 개인적인 의미를 찾으며 해결할 수 있다. 개인적, 정서적, 도덕적인 설명과 뚜렷한 은유의 언어를 사용하며 해결이 되면 “이제 깨달았습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된다. 토끼가 따공 내에서 너무나 미운 상대를 만나게 되며 스스로가 이렇게나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놀라고 당황했지만 이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감정이며 자신의 문제임을 깨달았다고 표현한 장면에서 “주요한 갈등”을 목격할 수 있다.

“딜레마”는 양립할 수 없는 평가를 하는데 “반면에”, “맞아요, 그렇지만” 등의 표현을 하며 발언을 부인하거나 다시금 조정하면서 해결한다. “내가 말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의미한 것이 뭐냐 하면” 같은 발언으로 변화한다. 이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평가가 갈리는 상황인데 주주와 햇살이 어린이날에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꼈던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원진은 평소 갓난아기를 양육하느라 바빠서 공동체활동을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주주네를 배려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를 주주네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대표인 아키와 다른 구성원들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과하였다. 그리고 실제 어린이날에 역할에 관계 없이 서로 도우며 일을 하는 경험을 통해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이중구속”은 활동체계에서 압박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대안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해”와 같은 무력하고 강제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주주가 장시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번복되거나 다시금 논의될 때,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룰과 결정 사항들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심층면담11)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를 뛰어 넘는 실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전환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해보자”, “우리는 해낼 수

있을거야” 같은 발화를 한다. 얼그레이와의 인터뷰 중에서 인간은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공감을 해서 모였으니 “시야를 넓히고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갖자”,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러기 위해 인내하고 여지를 두자”(심층면담6)라는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엥게스트롬(1987)은 모순의 징후뿐 아니라 의미를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차 모순은 모든 활동 체계에 존재하는 모순이며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품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이다. 선술하였듯 따공에서 모든 활동체계 내의 존재하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모순은 “따로 또 같이”이다. 함께 사는 삶이 주는 이점들을 고려하고 공동체주택에 입주하였지만 명과 암이 존재하여서 함께 사는 삶의 번잡함과 피곤함 역시 소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별성과 공동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공동체성의 의미라고 정의하였고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따공 구성원들이 겪는 모순이다.

2차 모순은 활동체계의 주체, 객체, 매개물, 규칙, 공동체, 분업, 각 요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따공의 규칙인 ‘공동체규약’에서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고, 어떤 이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차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이 문장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서 모순이 생기게 된다. 밀크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주로 여성들이 밤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차별로 느낄 수 있는 반면 일부 구성원들은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2차적 모순은 각 요소들 사이에서 무수히 관찰할 수 있는데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모임에 공동체공간을 사용할 때 대여비를 얼마를 받을지에 관련한 문제, 혹은 분업의 경우 차기년도 임원진을 선출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문제, 공동체규약의 ‘회원’의 정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 등 다양한 장면에서 시시때때로 확인할 수 있다.

3차 모순은 기존의 활동체계와 문화적으로 진전된 활동체계의 도입 사이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도입에 따른 저항이 동반된다. 따공 구성원들이 공유했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의사결정이었다. 집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따공 활동체계의 다상성

(multi-voicedness)으로 인해 쉽지 않았다. 엥게스트롬(2001)에 따르면 이러한 다상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공동체는 지위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기 주체가 모여 있어서 갈등과 토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모순은 활동체계의 갈등을 일으키지만 활동체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Engestrom, 1987, 2000; Sawchuk, 2006, 윤창국, 박상옥, 2012; 성열관, 2018).

목소리가 큰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되면 발언하지 못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들리고, 주도적으로 결정했던 구성원들은 왜 회의 시간에 주장하지 않고 뒷말을 하냐고 기분이 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살집 협동조합을 통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사결정교육을 전 구성원이 듣고 따공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각 주체들의 성향이 다르므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미리 회의 안건을 공유하며, 안건을 바로 결정하지 않고 시행해보는 기간을 가진 후에 확정하며, 확정됐을 때 하나의 결정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갖는 등의 절차가 생겼다. 새로운 절차에 저항이 생긴다면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재정비하고 새로운 실천이 강화된다.

4차 모순은 핵심 활동체계와 인근 활동체계 사이에서 발생한다. 따공 활동체계의 인근 활동체계는 선배 함살집 1~7호와 성미산 마을에 속해있는 공동체의 활동체계 등이 있다. 인근 활동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매개물, 규칙, 분업 등의 작동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은 학습하며 고쳐 나간다. 여름에 벌레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한 작은 문제부터 주택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까지 인근 활동체계를 관찰하거나 물어보면서 만들어갔으며 성미산 마을의 '환대'를 받으며 타인을 환대하는 문화를 습득해 가기도 하였다.

모순은 활동체계에서 없어져야 할 부정적인 개념이 아닌 활동체계의 발전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다. 각 공동체가 마주하는 모순은 활동체계의 속해있는 주체가 해결할 수 있기에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과정 중에 사고의 확장이 일어난다. 모순이 심화될 경우, 활동체계에서 이탈하려는 주체가 생겨날 수 있지만 일

탈 역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들이 집단적으로 활동체계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성열관, 2018). 최소한 10년은 함께 살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따공의 주체들이지만 극심한 모순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탈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위기라기보다 이탈 역시 활동체계를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2) 확장학습을 통한 활동 요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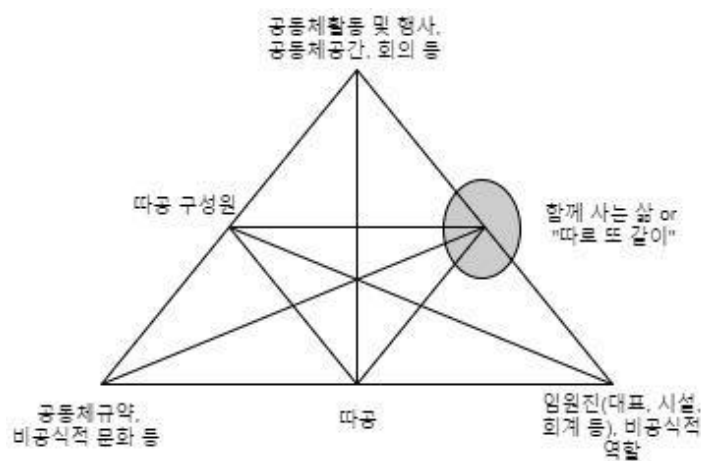
· 목표의 충돌

1세대 활동이론의 기본체계는 학습의 주체가 있고 목표인 객체가 있으며 매개물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결과가 만들어진다. 공동체주택에 처음 입주할 때의 구성원들의 목표는 각자 달랐다. 객체는 세대에 따라 공동육아, 신뢰할 만한 이웃을 만나는 것, 주거 안정을 이루는 것, 재밋고 낭만적인 삶을 사는 것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우선순위는 달랐다. 매개물을 공동체주택으로 함께 사는 삶이란 결과를 만들어냈다.

3세대 활동이론가 엥게스트롬 역시 학습이 객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속에서 이용하는 도구를 통해 학습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엥게스트롬은 이 목표는 개별적인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해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동체’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래서 1세대 활동이론의 모형에 더하여, 공동체와 규칙, 분업의 개념을 추가하는 보다 복합적인 모형을 만들었다. 활동이론에서 활동은 문화적인데 이 문화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은 사회를 내면화하고 사고와 의지를 발전시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이다(성열관, 2018).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주택에 입주하는 시점부터 공동육아, 신뢰할 만한 이웃, 주거 안정, 재밋는 생활 등의 개별적인 목표가 아닌 ‘함께 사는 삶’이란 공동의 목표를 객체로 둔다. 개별적인 목표는 ‘함께 사는 삶’이란 공동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과인 셈이다.

매개물을 공동체활동 및 행사, 공식적 모임인 회의와 비공식적 모임, 공동체공간과 따공이 속해 있는 함살집 협동조합 및 성미산마을 등이다. 규칙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동체규약과 비공식적으로 지켜지는 ‘별명 부르기’와 ‘현관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오기’ 등과 같은 문화로 둔다. 공동체는 따공이며 분업은 공동의 일을 처리하는 대표, 시설, 환경, 서기 및 규약, 회계로 나누어진 임원진과 내부적인 성향에 의해 설정된 각자의 역할로 둔다.



[그림 8] 3세대 활동이론에 적용한 따공의 활동체계

하지만 여기서 따공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모순이 발생하는데 함께 살기 위해 모였지만 모든 것을 함께하기 보다 함께하는 장점은 취하되 개별적인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다. 보다 더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기 위해 ‘함께 사는 삶’과 ‘따로 또 같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전체 공동체성의 기본 모순이 발생한다. 이는 앙게스트롬(1987)이 설명한 1차 모순과 연결되는데 1차 모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이 개별성을 원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개별화에 기인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로 모인 것은 공동체주의의 집합성의 모순이므로 1차 모순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7]과 같이 개별성과 공동성 사이의 균

형을 추구하며 따공만의 공동체성을 학습한다. 이러한 확장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삼각형 아래에 존재하는 규칙, 공동체, 분업 등의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확장학습이다.

정리하면 공동체주택 입주 전에 구성원들이 공동체주택을 선택하게 된 객체는 공동육아, 신뢰할 만한 이웃, 주거 안정, 재밌는 생활 등으로 달랐다. 공동체주택 입주하면서 이들은 공동의 객체를 만들어내며 ‘함께 하는 삶’이란 목표를 위해 활동체계를 조정한다. 처음에는 재미 혹은 공동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개별성과 집단성이 충돌하는 양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최종적으로 ‘따로 또 같이’라는 공동체성을 형성한다. 이것이 객체성이 변화되며 활동체계가 재조정되는 과정인 것이다.

·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 존재의 확장

확장학습을 통해 목표뿐만 아니라 주체 역시 변화하는데 이를 새로운 정체성과 존재의 확장으로 정리하였다. 사람의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인간은 관계 맺는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다. ‘나’ 뿐이라면 ‘나’라는 정체성을 규정할 근거가 없지만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명확해진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정체성을, 배우자에게는 파트너 배우자의 정체성을, 자녀에게는 부모가 되며 회사에선 팀장으로, 교회에서 집사로 역할을 맡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정체성을 기본으로, 부족한 경우 사람에 따라 새로운 집단을 찾으며 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따공에서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게 만든 별명을 통해 이름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으로 불린다. 또한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가 아닌 확장된 가족 형태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도 잘 모르던 ‘나’에 대해 찾아간다.

첫째로, 구성원들은 직업과 관계없는 또 다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 밀크는 쉼터에서 토끼네 첫째 아이에게 미술을 가르친다. 토끼의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미대생인 밀크에게 부

탁을 했다. 처음에는 가르치는 것을 잘못한다며 거절했으나 몇 번씩 제안해주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아이가 좋아하고 아이를 알아가는 재미도 있어 밀크도 즐겁게 하고 있다. 토마스는 취미가 보드게임이고 가지고 있는 보드게임이 200여 개이다. 보드게임은 따공의 구성원들을 함께 즐겁게 놀며, 어울리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많은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다. 토마스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공유하고, 설명해주는 일이 에너지가 드는 일이 아니고 매우 즐겁다. 보드게임은 토마스 스스로를 따공에 적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도 적응하게 하였다.

방음실을 주도적으로 만든 드래곤은 드럼을 좋아한다. 드럼을 좋아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는데 배울 기회가 있다면 계속 배우고 싶었다. 방음실이 만들어진 후 따공의 밴드가 구성이 되고 공연을 부탁받아 연습하고 있다. 일빠는 방음실이 있어 기존에 배우고 싶었던 베이스를 학원까지 다니며 배우며 밴드에 합류하였다. 토끼는 참여하고 있는 마을 책모임에서 성미산마을 오케스트라 멤버를 알게 되어서 오케스트라에 문을 두드렸다. 마을 오케스트라는 실력에 관계 없이 환영해주어 어렸을 때 배웠던 플룻을 다시 배우고 따공 방음실에서 연습하고, 공연도 하였다. 별님은 직장과 별개로 글쓰는 삶을 살고 싶다. 글쓰기 모임도 꾸준히 참석하고 마을 시사인 잡지 모임에도 참여하며 글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 글이 안 써질 때, 따공 구성원에게 이야기를 하며 격려를 받는다. 이처럼, 구성원들은 따공에서 직장과 역할을 넘어선 풍성한 삶을 향유하고 있다.

둘째로, 구성원들은 공동체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 알아간다. 나무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따공에서도 음식 준비와 친화 담당이다. 거의 모든 밤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뒤늦게 합류하였음에도 많은 구성원들이 나무를 편안하게 느낀다. 반면, 일부 구성원들과의 갈등은 나무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게 하였다. 주주 역시 따공에서 갈등을 겪으며 스스로가 어떠한 상황에서 잘 적응하며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타인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느낀다. 아키는 공동

체의 리더로서 많은 구성원들이 그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반면 유일한 갈등은 아내와의 갈등이다. 아키의 동생은 따공에 놀러 와서 다른 구성원들과 교제하며 아키는 가까운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평을 들으며, 스스로에 대해 돌아봤다. 드래곤은 스스로의 성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전에는 자신이 사람들이랑 있는 걸 즐겨하고 사람들이랑 나누고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모여서 살고, 나눌 기회도 많아지고, 사람들이랑 마주칠 기회도 훨씬 많아지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토끼는 관계적인 면에서 스스로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힘들 때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알게 됐다. 특정한 사람에게 속이 상했는데 속이 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움이 커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듣기 싫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그런 자신을 돌아보며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싫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새롭게 느꼈다. 토끼는 다른 공동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었고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해서 큰 미움으로 변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불편한 이야기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특정한 상대는 계속 바뀔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임을 보았다. 미운 감정은 상대방의 잘못이라기보다 스스로가 말을 못하는 성향에 기인하기 때문에 속상한 점은 그때, 그때 소통함으로써 해결해 나갔다. 그래서 서운하거나 미운 감정이 들 때,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툭툭 표현하기 시작해서 혼자 괴로움에 차 있는 시간이 사라졌다. 토끼는 이런 과정이 따공에서 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설명한다. 가끔씩 만나고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에선 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따공과 같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부정적인 모습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편과 아이들만 있을 때는 사실 객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객관화가 잘 안 되고 내가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더 객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이런 면이 새롭게 있다는 걸 발견하고.(심층면담10)

셋째로, 구성원들은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를 넘어서는 경험을 한다. 얼그레이는 토마스가 자신 때문에 억지로 따공에 합류한 상황이지만 토마스가 정해놓은 스스로의 틀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따공에서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한다. 토마스는 개인주의자라고 스스로 규정하면서도 본인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훼손시키거나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방어하는 마음이 크다. 그래서 오히려 이를 지키기 위해 더 깊은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반면, 얼그레이는 친한 사람한테 더 싸움을 붙이고, 더 소통을 해봐서 내면에 있는 것을 꺼내어 공유하며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토마스는 이것이 두려워서 적당한 선을 만들거나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데 따공에 합류하며 어쩔 수 없이 이것이 깨지면서 본인이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스스로를 더 이해한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자기(토마스)는 지인들이랑 절대로 돈 관련된 거나 가까운 사이에 일을 벌이지 않거나 이런 본인의 원칙 같은 것들이 깨어지게 된 거랑 깨지면서도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좀 결과적, 현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지금은 이 모든 상황을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있어서.(심층면담6)

· 매개물의 변화

매개물(Mediating Artifacts)은 도구와 기호, 외적 수단과 내적 표상을 포함한다. 엥게스트롬(1990)은 목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매개물을 제안하였다. 첫째로, 무엇(What)에 대한 매개물이 있는데 이는 목표를 정의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어떻게(How)에 대한 매개물로 목표에 대한 과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안내한다. 셋째로, 왜(Why)에 대한 매개물로 목표의 성격과 행동을 진단하고 설명한다. 넷째로, 어디로(Where To)에 대한 매개물로 제도나 사회를 포함하여 목표의 미래와 발전을 그린다(Engestrom, 2008/2014).

따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는 매개물은 온라인 채팅방부터 전체회의, 공동체활동, 밤모임과 공동체공간까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매개물은 공동체공간인 컴퓨터와 옥상 등의 공동체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회의, 행사, 활동 등이 이루어지며 건축 설계부터 ‘함께 사는 삶’을 위해 설계되었고 공동체공간이 없이는 공동체주택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사라진다. 공동체공간은 그 자체로 목표를 정의할 수 있어 네 가지 유형의 매개물 중 첫째 유형에 해당한다. 또한 수시로 작은 모임들을 제안하고 자주 교류하고 있는 온라인 채팅방, 제도적으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전체회의 및 월별 공동체활동, 먹고 마시며 친목 도모를 하는 밤모임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므로 둘째 유형에 해당한다.

하양이의 집은 따공의 사랑방처럼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껴 자주 하양이의 집에서 논다. 하양이의 집을 공동체공간처럼 사용하는 일이 잦아지자 하양이와 드래곤은 이를 피곤하게 느꼈다.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자 공동체주택에서 살고 싶었으나 사적인 공간에 범위가 지나치게 자주 침범되다 보니 이를 조정하고 싶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양이는 아이들에게 피곤하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몇시까지만 놀자고 제안한다.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컴퓨터에서 놀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목표의 충돌로 인한 매개물의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쉽터는 대관 비용을 받고 외부인에게 대여해주는데 대여 비용이나 기준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방과후 책모임에 대관해주는 시간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오후시간이므로 구성원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여서 다들 동의하였다. 공동체의 재정을 위해서는 짝은 대여를 해주는 게 맞지만 구성원들은 평일 저녁시간대에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랐다. 쉽터를 만든 이유 자체가 구성원들끼리의 교제를 위해서인데 지나친 대여는 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원을 포함한 외부 모임 대여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여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성원이 포함한 외부 모임에 다른 구성원이 참여하더라도 오히려 좋다는 의견과 불편해서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쿠폰제를 통해 대여비 없이 쉽터를 사용하는 제도가 생겼다. 쿠폰제가 생기기 전에 활성화되지 않았던 쉽터의 사용이 더 잦아졌다고 아키는 자랑스러워했다.

주로 공동체의 일이 다루어지는 전체회의나 다소 강제성이 있고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공동체활동과는 다르게 ‘밤모임’은 따공의 재미 모델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 밤모임에선 완전하게 자발적으로 모였으며 아이들의 취침 이후에 모여 먹거리와 알코올,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자유로운 밤모임에서도 소외되는 구성원은 있을 수 있으며 알코올 자체나 술을 마시는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 구성원들 역시 어울리기 꺼려 할 수 있다. 토마스가 주도하는 보드게임의 경우 토마스는 술을 마시고 보드게임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서 알코올 없이 보드게임을 진행한다.

어떤 구성원은 주로 남성 위주의 모임이라는 점에 불편함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는 5장 2절 2번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 여성 구성원 중 가장 연장자인 호이는 여자들끼리만 모이는 “우먼스데이”를 주최했다. 남성들은 아침에 쉽터에 모여 스크린으로 축구를 하기도 하고 밤에는 주로 엄마가 아이들을 재우다 보니 밤모임에도 남성들 위주로 모

인다. 연장자가 무조건 여자들이 함께 모일테니까 아빠들이 아이들을 재우라고 해서 가나만 빼고 모두 모일 수 있었다. 한 차례 행사였지만 다시 모일 날을 계획하고 있다. 함살집 1호는 종종 남성들끼리, 여성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한다. 따공 회의에서도 여성들끼리 여행을 보내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책을 읽어보자던가, 강의를 들어보자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기대하기도 한다.

· 규칙의 수정과 추가

따공의 규칙은 공동체주택으로 인증받기 위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공동체규약과 비공식적으로 별명을 부르거나 공동체공간을 신발을 벗고 거실처럼 사용하는 등 생성된 문화가 있다. 공동체규약은 ‘공동체주택’으로 인증받기 위해 급하게 만들었지만 이를 담당하고 있는 토마스는 공동체규약을 구성원들과 천천히 다시 정비해 나가길 바랐다. 쉼터는 따공에 사는 구성원이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관하고 있는 책조아는 대관 비용을 내야 한다. 아키는 정기적으로 대관하는 팀은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의견을 임원회의에서 제시하였다.

토마스는 원래 계획은 공동체규약을 입주해서 하나씩 완성해가는 거였지만 다른 이슈들에 치여서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다면 제일 중요한 회원 부분이라도 전체회의에서 보완하고 싶어 하였다. 다른 임원들은 규약 하나, 하나를 전부 정하기엔 시간이 많이 소모될 것 같으니 임원회의에서 어느 정도 완성하고 전체회의에서 설명한 후 의견을 듣고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하지만 토마스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고 이런 작업을 10번, 20번 하게 될 수도 있고, 올해 안에 끝내지 못해 2년, 3년이 걸려서 만들어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저는 규약은 전체의 의견이 듣는게 맞지 싶어. 약간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 중요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 우리가 규약을 완성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걸 기준으로 어쨌든 뭔가 판결을 내릴 테니까 그러면 다들 좀 일단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를 인지하려면은 정기회의 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임원회의2)

이러한 의견이 임원회의에서 나뉘진 후 전체회의에서 회원은 누구로 구성되는지, 회원을 그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지 “2장 회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였다. 처음 규약을 만들 때 “1조 회원자격”에 “4가지 방향성에 동의한 자, 규약에 동의한 자”로 명시하였고 법인은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공동체주택의 경우 개인 외에 법인, 협회 역시 회원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였다. 예를 들어 따공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함살집 협동조합은 법인의 자격으로, 영어교습소는 개인의 자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을 회원으로 볼지가 애매하였다. 이들을 회원으로 정의한다면 이들 또한 전체회의에 참여하는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회원이 되면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데 의무를 지키는 데 있어 다소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다른 공동체주택의 사례를 참고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처럼 세부적으로 의무를 정한 곳도 있다. 따공의 2~3배의 정도의 조항으로 2페이지 정도를 만들어 서로 불편한 것 없이 살자는 공동체가 있는 한편 그렇게 의무조항을 세부적으로 만들지 않은 곳이 있다. 따공의 공동체규약 4조 회원의 의무는 1) 규약을 준수할 의무, 2)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를 의무, 3) 관리비, 수선 부담금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공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유지관리할 의무, 5) 다른 회원 및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보호할 의무, 6) 다른 회원의 신념과 가치관을 존중할 의무, 7) 자신과 관련된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무, 8)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다른 공동체주택에 비해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1조 “2) 회원은 공동체 주택의 취지와 방향성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3) 회원은 공동체의 규약에 동의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으로 한다” 조항에서 구성원들은 만약 지속적으로 따공에서 살지 않고 집을 팔고 나가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집을 팔고 나가고 싶은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어렵게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따공에서 살고 싶지만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면 회원으로 인정할 것이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였다.

바위: 동의하는 사람한테 자격을 줘야죠.

토마스: 그러면 집 팔 때 너무 힘들잖아요.

아키: 그걸 선택한거죠. 알고 선택한거죠. 공동체활동 안할건데 여기 거주하면 그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유지가 안되거든요.

호이: 우리 입장에선 그런데 결국은 안해도 좋으니 “들어와 주세요” 하는 게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비워놓는 건 방법이 없고

토마스: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전체가 동의해야지 할 수 있고

토마스: 근데 이게 내가 집 팔 때 모두의 동의를 얻고 파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바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모든 동의는 아니지만 들어올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최소한의 공동체에는 동의해야지 이 따공 공동체가 유지되지

토마스: 근데 제가 그러면 내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안 사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럼 내가 못 팔아야 돼요? 그거 좀 그렇지 않아요

주주: 되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공동체, 공동체 하니까 되게 벽이 느껴지는데 사실 공동체라고 해서 활동하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요. 사실 “공동체로 활동을 해야돼”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지만 “이 집에서 살면서의 규칙은 이런 거예요”라고 하면 사실 그거 안 지킬 사람이 누가 있지(전체회의2)

위의 논의에서 각 구성원마다 따공에서 “공동체성”을 정의하고 추구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이제 막 공동체주택으로서 시작하는 따공에선 공동체성에 동의한 사람들이 회원이 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좁혀졌다. 살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처음에 동의를 받는 건 따공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한 구성원은 회원의 의무에 좀 더 공동체적으로 “다른 회원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위험을 서로 짊어진다”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느슨한 공동체여야 하는데 너무 끈적이는 것 같다는 의견, 다소 강제하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 등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어떠한 제안에 자신이 말한 것에 누군가 상처를 받아서 의무를 해쳤다고 하면 싫을 것 같다는 의견, 원래 말을 잘 안하는 공동체인데 회의 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 말을 조심하기보다는 갈등을 표출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는 의견 등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공동체주택’이란 이름으로 시작하였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처럼 사는 곳도 있고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 합살집 매물이 올라온 경우도 있다. 이는 어떤 회원이라도 받아줄 만큼 열려있다는 것이고 따공이 어느 정도의 공동체성을 추구할지, 앞으로 어떤 회원을 받을지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내용이 논의되어 회의가 마무리되었고 기약은 없지만 다음 공동체규약 논의 시, 6장 생활 수칙 1조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다. 6월 3일 전체회의 후에 다음과 같이 9장 규약 수정 내역이 추가되었다.

- 1) 주택의 정의 수정 : 1장 2조 주택의 정의에서 근린생활 공간을 제외한다.
- 2) 회원의 정의 수정 : 2장 1조 회원의 정의에서 기존에는 성인만 회원으로 간주했는데, 회원에 나이 구분을 두지 않기로 한다.
- 3) 회원 가입 수정 : 2장 2조 회원 가입 시 동의서를 받고, 기존 회원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수정한다.

4) 회원의 권리 수정 : 2장 4조 만18세 이상만 투표권을 가지도록 수정한다.

별명을 부르는 비공식적 규칙 역시 변화하였다. 처음 입주하였을 때는 별명을 잘 사용하였지만 7세대 중 5세대는 서로 이미 알고 있던 관계였기 때문에 2~3개월이 지나고 다시 언니, 오빠, 이름을 부르는 등의 일이 빈번해졌고 이를 나무는 불편하게 느꼈다. 기존의 관계로 호칭을 할 때 나무는 따공에서 새로운 관계로 함께 시작한 것이 아니라 거리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느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했지만 너무 예민한 것인지 고민하다 거리감이 싫기도 하고 사소한 것도 말하는 게 관계를 위해 좋다고 느껴 별명을 쓰자고 말하였다. 모두가 나무의 의견을 공감하였고 이후로 기존의 호칭을 쓰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이처럼 서로의 의견이 나누어지며 규칙도 조정이 되어가는 것이다.

· 잘게 쪼개진 형태가 아닌 자발적인 분업

따공의 대표적 분업의 형태는 공식적으로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임원진이 있다. 임원진은 대표, 시설, 환경, 서기 및 규약, 회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은 공동체 내 안건이 발생했을 때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한다. 하지만 따공은 성취해야 하는 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며 함께 사는 삶 그 자체로 모인 공동체이다. 임원진은 임금을 받지 않으며 일의 분업 역시 잘게 쪼개져 있지 않고 서로 자발적으로 맡는다.

옥상에 천막을 치거나, 방음실을 만들거나 책장을 조립해야 하는 등의 공동의 일이 생기면 공유가 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돕는다. 육아 상황이나 각자의 일들로 바빠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고 여기고 존중한다. 누구나 “따로 또 같이”에서 “따로”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알고 있기에 서로 이해하는 것이다. 공동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음식을 대접하거나 다른 형태로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한다. 이제 1년이 지나서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하게 될 것이고 임원진을 구성하는 방법

부터 새로운 임원진의 활동 역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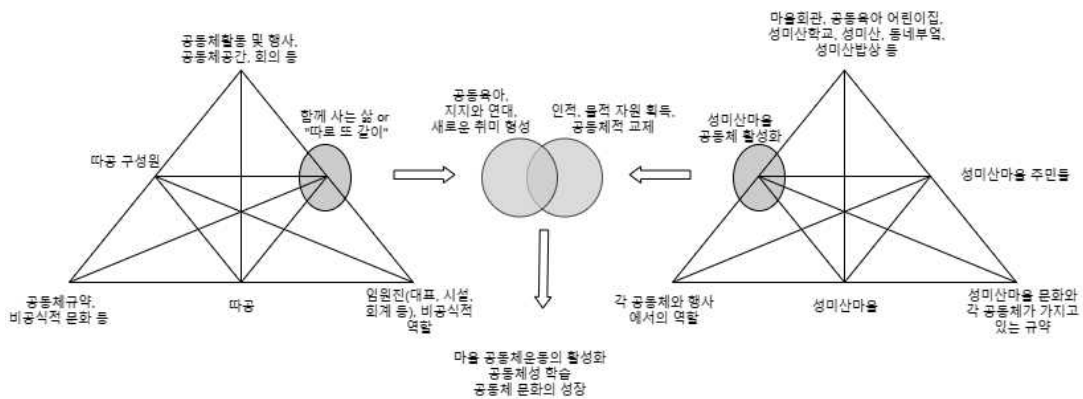
이와 같이 공동체행사와 활동, 작은 소모임들과 처리해야만 하는 일들까지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통해 이루어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임원진의 역할 혹은 리더가 모임을 주도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배해서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가 아니라 모임의 성격에 따라 리더와 멤버가 바뀌기도 하고 시켜서 일을 하기 보다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자발적으로 담당한다. 이는 관계가 맺어져 있어 타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피며 이루어진다. 또한 강제로 말지 않고 스스로가 원하는 일일 때 하게 된다. 어린이 캠프는 일빠가 아이들을 위해 만들고 싶어서 기획하게 됐고, 음식을 먹고 나누는 모임은 주로 나무가 주도를 하고, 작은 음악회는 드래곤이 섭외하고, 순서를 짜고, 연습하며, 보드게임 모임은 토마스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그러한 자발성은 구성원들끼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지지해주는 문화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공동체의 확장

따공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주택 함살집 8호 따공이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시시때때로 크고 작은 공동체를 만든다. 요가나 러닝 모임, 밴드 모임, 산책 모임 등이 만들어지고, 해체되고 새롭게 생성되기도 한다. 또한 마을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에 참여하기도 한다. 주주와 햇살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학부모이며 토끼는 마을 오케스트라의 단원이다. 나무와 가나는 성미산학교의 학부모가 될 예정이고 드래곤, 하양이, 일빠, 별님은 동네 방과후 책모임 책조아의 학부모이다. 아키, 나무, 별님은 쉼터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2주에 한번씩 진행되는 시사 잡지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따공 공동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어 상호 배움하며 다른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 따공의 활동체계를 발전시킨다. 가장 대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활동체계는 따공에게 경험전수를 해주고

있는 성미산마을과 선배 함살집이 있다. 구성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성미산마을 내에서 생성된 공동체이며 따공의 활동체계를 만들어 낼 때, 선배 함살집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참고했다. 앙게스트롬은 하나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인접한 다른 활동들과 관계 맺는다고 주장한다. 객체 1에서 활동체계에서 공동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객체 2로 나아가며 인접한 활동체계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유되거나 합의된 객체3을 형성한다(장원섭, 정지현, 2012).



[그림 8] 상호작용하는 따공과 성미산마을의 활동체계

성미산마을의 주체는 성미산마을에 살며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이며 마을회관이나 택견장, 성미산마을극장, 동네부엌, 성미산밥상, 성미산과 같은 공간, 공동육아 어린이집, 성미산학교 등의 교육기관, 등산모임, 독서모임, 오케스트라 등의 동아리 등의 매개체를 통해 성미산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로 활동체계를 구성한다. 분업은 성미산마을에 속해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 내에서 역할과 성미산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무심기, 마을축제, 성인식, 운동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때 나누어지는 각자가 맡은 역할이다. 공동체는 성미산마을이며 규칙은 별명 부르거나 새로운 구성원이 왔을 때 서로 환대하는 문화 등과 개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규약 등이 있다.

따공의 활동체계는 성미산마을의 활동체계를 만나 방과 후 책모임, 택견장, 공동육아 어린이집, 성미산학교 등을 공유하며 공동양육이란 객

체2를 이룬다. 또한 ‘함께 사는 삶’이란 가치를 중시하는 또 다른 구성원들을 만나며 서로 지지해주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독서모임, 오케스트라 동아리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형성한다. 성미산마을의 활동체계는 따공의 활동체계를 만나며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획득하며 새로운 공동체적 교제를 하게 된다. 이러한 객체2가 상호작용하며 공동체운동의 활성화, 공동체성 학습, 공동체문화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이루게 된다.

3) 공동체문화의 성장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학습을 한 결과 공동체적 차원에서 ‘공동체문화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동체학습의 핵심은 주체가 의도적으로 객체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이란 목표를 두고 모인 구성원들이 매개물, 규칙, 공동체, 분업으로 이루어진 활동체계에 내던져짐으로써 객체가 도리어 학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주체는 학습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매개물, 규칙, 공동체, 분업을 조정해나가면서 객체를 달성한다. 물리적 측면인 공동체공간, 제도적 측면인 공동체규약, 사회적 측면인 공동체활동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과 별명을 부르고 공동체공간에 신발을 벗고 다니는 문화, 함살집 선임자들과 성미산마을과의 소통 등 모든 활동들을 참여하며 공동체주체에 적응하는 자체가 주체를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활동이론의 핵심 개념인 다양한 모순들을 마주하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성장시킨다. 인간의 주체는 나약하지만 처한 상황과 모순이 학습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즉, 따공에 모인 구성원들이 유독 선하고 의지가 굳건해서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주체가 존재하고 들어와 살기 때문에 시작되는, 목표지향적(Goal-Oriented)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공 구성원들이 하는 공동체성 학습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나와 타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에 대

해 이해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 부모님을, 배우자를, 자녀를 이해하고자 하는 부던히 애쓰는 이유는 함께 살고 있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관계를 맺고 타인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설사 내가 생각하지 않거나 기존에는 무시했던 부분들일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혼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라면 물어보고, 찾아보고, 상담을 받기도 하며, 공부한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²⁸⁾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의 성향, 취향, 지식, 과거, 배경을 밀도 있게 알기 어렵다. 하지만 따공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비해 다양한 사람들을 긴밀하게 만나며 스스로와 타인에 대해 알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된다. 관계가 깊어지며 피치 못하게 동반되는 갈등은 회피할 수 있지만 최소 10년은 같이 살기 때문에, 늘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을 극복하려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극복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을 바꾸기 보다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깨닫고 그 모습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다.

따공에서 누가 주체인가? 혹은 구성원인가? 따공에서는 배치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인간/비인간 존재 역시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배치(Agencement)는 자신이 선 자리와 위치, 사물, 자연, 생명과의 관계 맺음을 살피는 것이다. 공동체적 관계망에선 불변하는 구조 대신 죽고 변화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배치”로 사유한다. 공동체는 사물, 자연, 인간, 동물, 기계, 미생물 등이 어울려져 형성된다. 다양한 비물질성이 포함되며 사랑, 갈등, 모순, 돌봄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배치를 살피는 것은 마음을 살피는 행동이다(이태영, 신승철, 2022: 144).”

사물, 기계, 생명으로부터 만들어진 마음이 마음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정규 교육과정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닌 이 마음에 동요된 사람이다. 아마추어일 수 있지만 공동체 내

28) 정현종의 시 “방문객”

에서는 누구보다 이 공동체의 특징을 잘 알고, 처음부터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다. 즉, 공동체에서의 역할인 리더, 임원, 멤버 혹은 주도하는 자, 따라가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망에서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각 요소들을 재배치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가 생성된다(이태영, 신승철, 2022).

따라서 리더, 임원, 멤버 등 서로 간의 배치를 넘어 따공의 핵심이 되는 물리적인 따공의 건물 자체와 공동체 공간을 비롯해 활동체계에서 점검한 공동체활동 및 행사, 공동체 규약, 성미산마을과 함살집 선배들의 환경 등이 공동체성을 공고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성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여러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모여서 작동한다. 다양한 요소들이 특정한 목표로 실제 생활과 활동을 규정 짓는다. 중요한 것은 활동체계의 각 요소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확장되면서 새로운 것을 형성해나간다는 점이다.

객체 역시 변화하는데 처음에는 ‘함께 사는 삶’을 지향하며 시작하였던 구성원들이 여러 모순과 갈등을 만나며 ‘따로 또 같이’라는 객체를 동시에 추구한다. 새로운 객체에 맞는 방식으로 활동체계의 요소들이 달라지고 재조정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성은 인간/비인간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변화하는 것이며 이는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공동체는 한번 만들어지면 움직이지 않고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죽고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갖고 끊임없이 재생산, 재창출, 재이미지화하며 변화시킨다.

사랑할수록 같아질까? 달라질까? 2장에서 언급하였듯 동일성의 철학은 사랑할수록 같아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커먼즈의 철학은 사랑할수록 달라진다고 대답한다. 따공의 구성원들은 중언부언하듯 일상적인 대화부터 미술, 부동산, 부부간의 갈등, 아이들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탄소리를 한다. 전혀 관련이 없는 소재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서로 공감하며 묘한 일관성을 갖게 된다. 사랑할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이는 새로운 창발성을 만드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4) 확장적 순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재미 모델

따공의 주체는 배치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인간/비인간 존재이다. 리더, 임원, 멤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망의 재배치를 통해 누구든지 주체가 될 수 있다. 따공의 모임은 느닷없이 시작해서 느닷없이 끝날 수 있으며 모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당시의 기억과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래서 따공은 감자, 고구마와 같이 중심 뿌리 없이 접속되고 분기되는 줄기 식물처럼 다수의 사람들의 리좀적인 관이다. 다양한 주체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교류하며 누구도 공동체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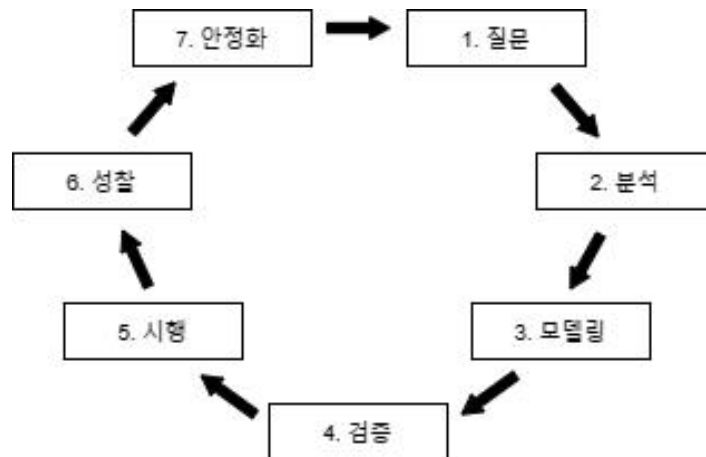
따공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의미를 규정하지 않는다. 의미 모델이 하나의 모델에 집중한다면 재미 모델은 여러 모델을 넘나든다(이태영, 신승철, 2022). 따공의 목표가 각자의 개별적인 목표에서 ‘함께하는 삶’, 또한 ‘따로 또 같이’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이 정의하는 공동체성 역시 그리고자 하는 이상적인 하나의 모델이 있다기보다 각 구성원들의 기질과 관계의 역동을 고려하여 만들어간다. 의미 모델은 성과가 있어야 하는 효율성의 모델이며 재미 모델은 여러 특이점을 오가는 탄력성의 모델이다.

평생교육학의 주된 연구 대상이었던 관 주도의 마을만들기는 본질적으로 재미 모델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에 원리에 적합하지 않다. 자본과 성과가 오고 가는 프로젝트에는 여러 서류와 문서를 요구하는 성과중심주의가 기저에 있기 때문이다(이태영, 신승철, 2022). 반면 따공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특정한 목표가 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효율적인 모델이 돌아가야 하는 활동체계가 아니다. 삶과 일상, 그 자체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따공의 재미 모델적 측면이 부각된다.

확장학습이론(Engestrom, 1987)은 변증법을 기초로 추상에서 구체로 나아간다. 새로운 이론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추상적이고 단순한 생식세포와도 같지만 점차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구체적인 체계가 된다(Engestrom, 2008/2014). 추상적인 것은 구체적인 인식과 학습을 통

해 구체화할 수 있고 앙게스트롬(1994)은 확장학습의 인식론적 행위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행동은 기존의 실행과 지식에 대해 질문, 비판, 거부하는 것이며 이를 ‘질문하기(Questioning)’라고 부른다. 두 번째 행동은 원인 자체와 원인을 설명하는 기제를 밝히는 ‘분석하기(Analyzing)’가 있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 상황이 발생한 처음과 진화한 배경을 추적하는 역사적-유전적 방법과 내적 체계의 관계성을 그려보는 실제적-경험적 분석이 있다. 세 번째 행동은 새로운 관계들을 공식적으로 측정 및 전달이 가능한 매체로 ‘모델링하기(Modeling)’이다. 문제가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개념을 단순화된 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 행동은 모형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검증하기(Examining the model)’이다. 다섯 번째 행동은 실제에 적용, 강화, 확장함으로써 모델을 구체화하는 ‘시행하기(Implementing the model)’이다. 여섯 번째 과정은 ‘성찰하기(Reflecting)’이며 일곱 번째 행동은 안정적인 실행으로 정착하기 위한 안정화하기(Consolidating)이다(Engestrom, 2008/2014).



[그림 10] 확장학습 순환의 인식론적 행위들 (Engestrom, 2008/2014: 198)

따공의 가장 근원적인 모순인 ‘함께 사는 삶’으로부터 ‘따로 또 같이’의 목표의 변화를 이 과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함께 사는 삶’, 2장에서 선술한 일종의 게마인샤프트의 공동체가 현대사회에서도 가능하냐는 질문이 첫 번째 행동에 해당할 수 있다. 게마인샤프트 공동체에선 나와 관계하는 타인, 자연, 생명, 기계, 사물 사이에서 주체성은 모호하게 나타나지만 게젤샤프트 공동체에선 나와 타자를 명료하게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현대인들은 주체성을 잃고 싶지도 않고 완전하게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싶지도 않기에 약간의 절충안인 ‘따로 또 같이’를 마련한 셈이다. 이렇게 상황의 기제를 밝히는 과정이 ‘분석하기’이다.

완전하게 분리되고 싶지도, 완전하게 함께하고 싶지도 않았던 따공의 구성원들은 ‘따로 또 같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개별적인 공간을 구성하되 공동체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따공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의무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모델화하고 모델을 시행하는데 여기서 한계가 발생한다.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따로’와 ‘같이’를 원하는지 알 수 없어 대화를 통해, 때로는 눈치를 통해 “담갔다 빼가면서”(심층면담1) 알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고차원적 기술을 필요로 해서 이러한 기술을 익혀야 한다. 따라서 따공 구성원들이 하는 공동체성 학습은 ‘따로 또 같이’를 잘하기 위한 기술인 것이다.

다섯 번째 행동인 ‘시행하기’부터 일곱 번째 행동인 ‘안정화하기’까지는 본 연구에서 명확하게 발견하기 애매했다. 엥게스트롬(1991, 1994)은 확장학습이론이 2~3년 또는 그 이상에 걸쳐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따공은 이제 1년이 넘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직 단계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지점은 따공은 의미 모델이 아닌 재미 모델이기에 이러한 규칙적인 순환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기존의 평생교육학자들이 활동이론으로 분석한 연구의 경우 특정한 목표를 위해 모인 공동체 혹은 관 주도의 의미 모델이었다. 박상옥(2009)은 부천 생태안내자 모임 ‘청미래’에서 발생하는 확장학습 과정을 확인하였고 김종선과 박상옥(2013)은 남양주시 평생학습 매니저의 확장학습을 연구하였다. 김효경과 윤창국(2014)은 경기도 K시에 위치한 노인

복지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학습 과정을 활동이론으로 분석하였다. 김명숙과 최운실(2021)이 분석한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플랫폼 이유’와 백순우와 박상옥(2022)이 분석한 지역 기반 교사 학습공동체 ‘나무학교’는 관 주도라고 보기 어려워도 성취해야 하는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모인 공동체라는 점에서 의미 모델이다.

반면 따공은 명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모이지 않았다. 공동육아도 1차적 목표가 아니었고 그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만나기 어려우니 함께 살며 더 자주 모여 잘 놀기 위해 재미와 낭만을 위해 모인 공동체이다. 따공은 리즘적인 판이며 ‘그리고-그리고-그리고’로 수평적으로 연결, 접속된다. 따라서 ‘따로 또 같이’라는 목표의 달성과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목표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순환과정에 일치시키기 어렵다. 모순 역시 근원적인 1차적 모순이 존재하지만 시시때때로 수많은 모순이 일어나고, 이는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한다. 앙게스트롬(2008/2014)은 확장학습 순환이 보편적인 공식이나 단계가 아니며 이런 모형을 그대로 따르는 집단학습의 구체적 사례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따공과 같은 일상적인 삶 그 자체를 함께하는 재미 모델의 공동체의 경우 더욱 이러한 순환 과정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본 연구는 밝히는 바이다.

VII.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학습’이란 현상이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 상호작용 가운데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과정임을 드러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성미산마을에 위치한 공동체주택인 “함께 살아 행복한 집” 8호 “따뜻한 공간”을

관찰하였다. 공동체주택의 생활 문화를 관찰함으로써 공동체주택 연구참여자들이 정의하는 따공만의 “공동체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들만의 공동체성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공동체주택 주민들의 학습 과정은 일상생활의 무형식학습 과정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행동, 삶의 방식, 신념, 가치 등의 문화를 자세하게 기술하기 위해 질적연구인 문화기술지적 사례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파일럿 연구를 시작으로 IRB 심의를 받은 후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기회의를 기본으로 공동체행사가 있는 날에 참여하여 관찰하였고 참여관찰 하면서 생기는 의문들을 정리하여 심층면담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SNS와 함살집 협동조합 카페에 올려놓은 글, 공동체규약 등을 현지자료로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4장과 5장에서 첫 번째 연구문제인 공동체주택에서 생활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학습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성”의 의미에 대해서 답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공동체주택에 합류하게 된 과정과 공동체활동, 공동체규약, 공동체공간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별명 부르기과 공동체공간을 거실처럼 사용하는 문화와 정기회의, 임원회의, 밤모임, 마을 사람들과의 모임 등의 공식적·비공식적 모임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일반 공동주택과는 다른 공동체주택만의 특유의 문화를 상세히 서술하며 독자들이 공동체주택의 생활을 그려갈 수 있도록 하였다.

5장에서는 공동체주택 생활의 장점과 단점, 생활하면서 겪은 주요한 갈등 등을 통해 드러난 공동체성의 의미를 서술하였다. 구성원들은 공동체주택에 살며 신뢰할만한 이웃을 만나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며 안정감을 느꼈다. 다양한 모임을 통해 소통하며 일반 공동주택에서 살면 느끼기 어려운 함께 교체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하지만 공동체주택 생활에는 힘든 점도 있었는데 공동체주택 건축부터 생활까지 함께 조율해 나가는 의사 결정 과정의 어려움과 아파트라면 경비실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일들을 직접 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을 느꼈다.

함께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행복도 불안도 같이 늘어나기에 피할 수

없는 갈등도 마주하였다. 일부 구성원은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이를 해석하는 방식 간의 갈등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 태도를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따공 주민들에게 있어서 역사성, 장소성, 국지성을 지닌 따공만의 “공동체성”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로, 따공의 공동체성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입주부터 공동체주택이 자가로 전환되는 최소 10년까지는 이사하지 않고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를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였다. 일반 공동주택처럼 남남처럼 지내다 보면 금방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공동체주택의 제도, 문화, 환경은 기왕 함께 살기로 모였으니, ‘공동체’주택 답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한다. 구성원들은 갈등, 모순, 피곤함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각자의 방식대로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을 하며 서로의 관계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10년이란 시간이 있으니 여유롭게 생각하며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 자신, 상대방, 혹은 환경이 바뀔으로써 다시금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둘째로 따공 주민들에게 있어서의 공동체성의 의미는 ‘느슨한 공동체’, 즉 “따로 또 같이”이다. 지나치게 가족 단위로 고립된 개인주의적 주거 문화의 대안을 찾아 공동체주택을 선택하였지만 모든 것을 함께하는 집단주의적 문화도 연구참여자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들은 함께할 땐 함께 하지만 따로 있을 땐 나름대로의 개별성, 사생활, 시간, 에너지를 존중해주길 바랐다. 따라서 전체회의를 제외한 모든 활동들은 자유이다.

공동체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일이 많은데,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공동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서운해하지 않고 참여하지 못한 세대는 다른 형태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한다. “따로”와 “같이”를 추구하는 정도가 구성원마다 다르고 이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알아가고 실제로 함께 사는 시간이 길

어질수록 각자의 정도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따공의 공동체성의 의미는, 개별성과 공동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6장은 두 번째 연구 질문인 연구참여자들이 따공만의 공동체성을 습득해나가는 과정을 공동체주택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학습 경로와 활동이론 관점에서 분석한 공동체학습의 양상을 통해 나타냈다. 우선, 공동체주택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배우는 경로를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로, 공동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감당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따공 내부에서 논의한다. 그래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협동조합교육, 의사결정교육, 장기수선충당금 교육 등 특정한 주제를 학습할 필요가 있으면 서울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에 교육을 요청하여 수강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표인 메탁포는 공동체주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의하기도 했다.

둘째로, 공동의 일을 분업화하여 처리하는데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가며 학습한다. 공식적으로 대표, 시설, 환경, 서기 및 규약, 회계로 나누어진 임원의 역할을 맡고 필요가 보일 때 자발적으로 역할을 담당한다. 따공에서 열었던 가장 큰 행사인 오픈하우스와 어린이캠프에서 이들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는지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잘게 쪼개진 형태로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필요가 보일 때 자발적으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셋째로, 공동체주택 주민들은 성미산마을과 함살집 선임자들이 인근에 위치한 접근성을 활용하여 선배를 통해 경험을 전수 받는다. 따공의 주민들은 함께 산 지 이제 1년이 지났지만 따공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함살집 1호는 10년이 넘게 함께 살고 있다. 생활에 사소한 문제부터 아이들이 자라며 따라 달라지는 양육 방식, 현대의 문화까지 마을을 통해 습득하고 있었다.

넷째로, 각자 다양한 삶을 지닌 구성원들로부터 생활 학습한다. 따공엔 기혼 유자녀 세대, 기혼 무자녀 세대, 미혼 세대가 존재한다. 이들은 함께 살지 않았으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삶의 방식을 피부로 느끼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서로의 삶을 통해 배우고 있었다.

또한,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통해 따공의 주민들이 어떠한 공동체성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밝혔다. 첫째로, 활동이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모순’이 따공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선 공동체주택에서 발생하는 장면들을 앙게스트롬과 Sannino(2011)가 서술한 모순의 4가지 징후인 ‘갈등’, ‘주요한 갈등’, ‘딜레마’, ‘이중구속’에 대입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마주한 모순을 밝혔다. 또한 앙게스트롬이 설명한 모순의 4가지 차원의 의미에 공동체주택 주민들이 겪은 다양한 어려움을 반영하여 이들이 겪은 상황이 활동이론에서 설명하는 모순에 적합함을 드러내었다.

특히, ‘공동육아’, ‘낭만적인 삶’, ‘신뢰할 만한 이웃 만나기’, ‘주거 안정’ 등의 개별적인 목표에서 공동체주택에 입주하며 ‘함께 사는 삶’으로, 실제 생활을 하며 “따로 또 같이”의 목표가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목표의 충돌은 앙게스트롬이 주장한 자본주의 사회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충돌인 1차적 모순에 해당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개별성과 공동체주의 집합성의 모순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성과 공동성의 균형을 맞추어 가며 ‘공동체성’을 학습하며 주체, 매개체, 규칙, 공동체, 분업이 조정되면서 활동체계가 발전한다.

주체인 구성원들이 매개물(공동체활동 및 행사, 공동체공간, 회의, 합살집 선배들, 성미산마을), 규칙(공동체규약, 비공식적 규칙), 공동체(따공), 분업(임원진, 비공식적 역할)을 통해 목표를 이루어 간다. 그리고 변화하는 목표를 기반으로 각 요소들 역시 재조정된다. 공동체주택에 살며 주체는 새로운 정체성과 존재의 확장을 경험하였다. 직업과는 다른 활동을 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며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나도 모른 나’에 대해 알아간다. 그리고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를 넘어서고 확장되는 경험을 한다.

대표적 매개물인 공동체공간 역시 “따로 또 같이”라는 객체에 맞게 사용하고자 쉼터의 대관 등의 제도와 문화를 적절하게 변경한다. 그리고 회의나 모임 역시 갈등을 통해 새로운 활동이 만들어지며 다루는 주제가 결정되기도 한다. 만들어진 공동체의 규약 역시 논의를 통해 수정하고

추가해 간다. 구성원들의 다상성(Multi-Voicedness)이 나누어지며 ‘공동체성’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회원의 정의 역시 변경된다. 이렇게 변경된 규칙은 또 다른 활동체계의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공식적 규약 외에 비공식적인 문화도 서로 간 불편한 점이 있다면 소통을 통해 바꾸어 나갈 수 있다.

따공의 공식적 분업의 형태는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임원진이 있다. 이들은 대표, 시설, 환경, 서기 및 규약, 회계로 나누어 공동의 일을 처리한다. 하지만 따공은 달성해야 하는 특정한 목표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며 업무에 따른 임금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인 일을 진행할 때 맡은 일이 정해져 있다기 보다 “따로 또 같이”의 원칙대로 담당한다. 공식적 역할 뿐 아니라 각자의 기질에 맞게 다양하고도 새롭게 발생하는 일들을 처리한다.

공동체 역시 변화하는데 구성원들은 ‘따공’을 기본적인 공동체로 여기지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들이 생성된다. 또한 성미산마을의 환경에서 공동육아 학부모, 책모임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취미 모임 등으로 공동체가 확장된다. 이렇게 인접한 활동체계를 만나 공동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객체2가 생성되고 객체2를 통해 공유되고 합의된 객체3을 만든다. 따공은 성미산마을이랑 새로운 활동체계를 만나 ‘공동육아’, ‘지지와 연대’, ‘새로운 취미 형성’이라는 객체2를 생성하며 성미산마을 활동체계의 객체1인 ‘성미산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나타난 ‘인적·물적 자원 획득’, ‘공동체적 교제’라는 객체2와의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마을 공동체운동의 활성화’, ‘공동체성 학습’, ‘공동체문화의 성장’ 등의 객체3을 달성한다.

이렇게 확장학습을 한 결과 활동체계가 성장한다. 확장학습의 핵심은 주체가 객체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아닌 다양한 인간적/비인간적 요소들이 매개물, 규칙, 공동체, 분업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객체지향적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는 나약하지만 이렇게 활동과 모순에 처한 주체는 학습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동체성 학습의 중심에는 관계와 소통이 있다. 이렇게 함께 살기 위

해 노력하고 배우며 다르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더, 임원, 멤버의 역할을 넘어 공동체공간, 공동체활동, 공동체규약, 성미산마을을 비롯한 여러 비인간적 요소 역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얽히고설켜 끊임없이 재생산, 재창출된다. 이것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따공은 성취해야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의미 모델이 아닌 다양한 모델을 넘나드는 재미 모델임을 정의하였다. 기존에 평생교육학에서 주로 주목하였던 공동체는 성취해야 할 목표가 분명한 관 주도의 의미 모델이었다. 따라서 엥게스트롬이 제시한 확장학습 순환과정에 비교적 적절히 대응되었다. 하지만 따공의 활동체계의 경우, 목표가 여러 차례 변화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확인 가능하며 성취기준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공은 리즘적이며 복잡계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는 장(場)이기에 확장학습의 순환과정에 명확하게 일치시키기 어려움을 밝혔다.

2. 결론

본 연구는 성미산마을에서 여덟 번째로 지어진 공동체주택 “따뜻한 공간”의 13명의 성인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시작부터 생활 문화, 장단점 및 갈등까지 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그들만의 “공동체성”이 무엇인지 정의하였다.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동체성”은 자주 교류하는 공동체활동을 하며, 그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공간에서 최소 10년은 함께 살아야 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로 간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둘째로, 함께 살기 위해 공동체주택에 입주하였지만 한편으로 나만의 시간, 공간, 에너지 역시 존중받고 싶어 하는 모순에 있었다. 이를 구성원들은 “따로 또 같이”, 혹은 ‘느슨한 공동체’로 표현하였으며 본 연구는 공동체성은 개별성과 공동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상세히 묘사된 공동체의 삶으로부터 주민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

해 상호작용하며 함께 학습하고 있는지 밝혔다. 구성원들은 공동체활동을 수행하고 공동체공간을 관리하는 등의 공동의 일을 통해 학습하고 있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모습,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외부에 도움을 구해 비형식적 교육을 수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미산마을에 속해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와 인근에 위치한 함살집 1~7호에 사는 선임자 공동체주택 주민들에게 공동체주택의 기본 생활부터 문화를 전수받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 세대는 추구하는 가치관, 생활 습관, 육아 방식까지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데 서로의 삶을 통해 생활 학습한다.

그리고 공동체주택 주민들이 공동체주택에서 살며 공동체성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지 활동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성원들은 입주 전엔 개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입주하였지만 입주 후에 ‘함께 사는 삶’ 그 자체를 공동의 목표로 두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삶’과 ‘따로 또 같이’라는 모순된 목표를 추구하면서 주체, 매개물, 규칙, 공동체, 분업의 각각의 활동요소는 재조정된다.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활동체계가 변화하고 인근의 활동체계를 만나며 새로운 결과를 달성하기도 한다.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가 변화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확장학습이라 부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동체주택에서 일어나는 학습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학습 과정이 개인의 인지적 차원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과정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공동체학습’의 개념의 확장과 이해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공동체주택에서 일어나는 학습 과정을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활용하여 학습이 단순히 자극-반응의 결과가 아니라 제도, 문화, 환경 등의 복잡한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임을 설명하였다.

함께 살고 싶어서 공동체주택에 입주하였지만 동시에 개별성을 원하는, 이를 수 없는 모순된 두 가지 목표를 살펴봄으로써 이 모순이 앵게스트롬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1차 모순임을 서술하였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성’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확장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지만 공동체

내에서 변화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체, 객체, 매개물, 규칙, 공동체, 분업이 조정되며 개인과 공동체는 성장하며 발전한다.

둘째로, 공동체주택 주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며 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를 미시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따공의 공동체는 기존에 주로 연구가 되어 왔던 관 주도의 의미 모델이 아닌 재미 모델임을 설명하였다. 마을 공동체 혹은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을 정부 주도의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마을”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는 특정한 제도 내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확장학습의 순환 과정에 비추어 설명하기 수월하다. 반면 본 연구는 ‘삶’, ‘생활’, ‘문화’ 공유하는 자발적으로 모인 재미 모델적 공동체이기에 리즘적이며 복잡계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선술하였듯 활동요소가 변화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확장학습 모델의 순환과정으로 관찰될 수 없음을 드러낸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로 연구대상과 연구기간의 한계이다. 따공의 주민들은 함께 산지 이제 1년이 지났으며 “공동체성”이 무엇인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기에 짧은 시간이었다. 연구자는 파일럿 연구를 포함해 약 8개월 간 자료수집 하였다. 연구에 앞서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를 형성하고 갈등하고 협상하며 습득해나가는 과정을 잘 포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였고 그 기대는 충족되었다. 하지만 1년이란 기간 동안 주목할만한 ‘공통된 문화’는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10년 이상 함께 산 공동체주택 주민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둘째로 따공은 대다수가 기혼 유자녀의 세대로 전통적으로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를 지녀 현대사회에서 보다 확장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근래 시니어, 여성안심, 반려동물, 예술형, 소셜믹스,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공동 주거 형태가 생기며 자발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들을 수용하는 공동체주택이 만들어졌다. 현대사회의 단절된 주거문화에서의 느껴지는 불안정감, 고립감을 극복해내기 위해 공동체주택을 선택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 단위를 연구하면 본 연구와는 다른 가치

있는 발견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동이론이 주목하고 있는 집단 단위의 학습의 장면들을 더욱 복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6장 2절 2번에서 활동체계 요소 중 하나인 ‘공동체’가 인근의 활동체계인 성미산마을 활동체계를 만나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냄을 서술하였다. 하지만 따공은 성미산마을 외에도 함살집 1호부터 7호, 다른 크고 작은 공동체들과 상호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체계가 복합적으로 만나는 방식을 들여다본다면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됐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기. (2001).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 강연주, 박종완, & 임승빈. (2009). 공동주택 중앙광장의 개방 구조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식의 차이. **한국조경학회지**, 37(3), 21-32.
- 강황선, & 함진. (2008). 공공부문 CoP 성과 영향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AHP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65-203.
- 권은선. (2019).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의 비판적 문식성 실천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사례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경애. (2007). 공동경험 구성과정에 대한 설명가능성 -경험학습론과 공동체학습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평생교육학연구**, 13(1), 51-76.
- 김다슬. (2021). 집단을 변화시키는 모순의 전개과정과 생성적 집단학습 연구: A신문사 기자집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7(3), 1-32.
- 김대건. (2019). 공공성 유형화와 유형 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조직 효과성의 차이 분석-공적성, 공동체성,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30(1), 63-85.
- 김란수. (2019). 공동체주택 커뮤니티 공간의 특성과 실태 분석: 하우징 쿵주택협동조합의 공급주택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37(1), 1-20.
- 김란수. (2021). 대규모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프로그램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581-591.
- 김명숙, & 최운실. (2021).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들의 활동체계와 확장학습 경험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7, 199-229.

- 김민호. (1998). 인천'노동자대학'합법화 운동, 1988-1995. **평생교육학연구**, 4, 309-334.
- 김민호. (2003). 지역운동 속의 성인학습에 관한 연구-제주시 화북주공아파트 운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9(2), 21-46.
- 김민호. (2014). 지역개발 반대 운동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시민성 학습: 밀양 송전탑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례. **평생교육학연구**, 20(4), 1-30.
- 김성균. (2010). 아나키즘과 공동체운동. **시민인문학**, 19, 9-29.
- 김수정. (2013). 전환학습과 도덕발달에 관한 연구-사회운동경험을 가진 여성정치인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9(2), 97-132.
- 김순은, & 권보경. (2016). 도시공동체의 주민자치와 사회자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0(1), 41-76.
- 김용, 황한선, & 오세규. (2018). 공동체주택 사례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공간구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3), 53-62.
- 김종선, & 박상옥. (2013). 시민참여 실천조직으로써 남양주시 평생학습 매니저의 확장학습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9(2), 1-32.
- 김진경, & 정석. (2017). 공동체주택에서 사는 것은 경제적인가: 소행주 거주자들의 주택구입비용과 생활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8(1), 123-138.
- 김효경, & 윤창국. (2014). 확장학습을 통한 노인학습자의 활동체계 변화 과정과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20(2), 1-33.
- 류재훈, 최윤미, 김령희, & 유영만. (2016).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actornetworktheory) 을 기반으로 한 교육공학의 학문적 정체성 탐구. **교육공학연구**, 32(1), 1-27.
- 문현진. (2019). 미디어 생태학 관점에서의 초등 사회과 수업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26(4), 69-84.
- 박보람, & 정진철. (2020). 실천공동체의 개념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6(2), 41-70.

- 박상옥. (2009). 지역사회 실천조직으로서 학습동아리에서의 학습과정-부천 생태안내자 모임 '청미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5(1), 225-259.
- 박재현, 이연숙, & 김혜연. (2018). 탈노숙인을 위한 사용자참여 소규모 공동체주택 계획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9(2), 19-29.
- 박철수, 이유미, & 김홍규. (1993). 초고층 아파트의 의학적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초고층 아파트의 주거환경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dical Pathologies in Super-high-rise Apartments).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9(9), 31-39.
- 백순우, & 박상옥. (2022). 지역기반 교사학습공동체 '나무학교'의 확장학습 과정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28(2), 65-97.
- 성기정, & 양병찬. (2019). 국민임대아파트 지역의 사회교육 실천과 마을공동체의 형성. **평생교육학연구**, 25(3), 97-126.
- 성열관. (2018).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에서 모순 개념의 중요성. **교육비평**, (42), 145-173.
- 성열관. (2019). 학교는 어떤 공동체인가? : 활동이론으로 바라본 혁신학교. 서울:살림터.
- 송영선, & 이희수. (2011). 학습조직 모델에 터한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 전략. **평생교육학연구**, 17(3), 165-191.
- 신기왕. (2021). 마을학습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7, 133-157.
- 신민선, & 강대중. (2021). 노동운동 출신 지역활동가의 정체성 이행과 학습활동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7, 127-170.
- 신유진, & 이연숙. (2018). 공동체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 특성 비교분석 연구: 수도권 내 소행주, 보린주택, 따복하우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7(3), 49-61.
- 양병찬. (2007). 학습도시에서의 주민 교육공동체 운동의 전개. **평생교육학연구**, 13(4), 173-201.

- 양병찬. (2015). 마을만들기사업과 평생교육의 협동 가능성 탐색: 시흥시 ‘학습마을’사업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1(3), 1-23.
- 양병찬. (2018). 한국 마을교육공동체 운동과 정책의 상호작용. **평생교육학연구**, 24(3), 125-152.
- 양병찬, 최정윤, 김미정, & 이서영. (2021). 지역공동체의 마을교육체계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27, 1-33.
- 오용준, & 윤갑식. (201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효과분석: 충청남도의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사례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2), 161-177.
- 유명소, & 남진. (2017). 소규모 코하우징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행주 1~ 4 호와 구름정원사람들주택을 사례로. **국토계획**, 52(1), 163-184.
- 유민선, 강대중. (2013). 마을공동체 형성 전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학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미산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9(1), 143-173.
- 윤창국, 박상욱. (2012).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이론적 발전과 평생교육 연구에 주는 시사점, **평생교육학연구**, 18(3), 113-139.
- 은난순. (2020).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평가지표 개발과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1(5), 83-93.
- 은주희, 정홍인, & 이성. (2016). 주민평생학습활동가의 참여 동기 탐색 -G 광역자치단체의 평생학습마을학교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2(1), 53-71.
- 이경미. (2020). 사회혁신을 추동하는 사회적경제: 공동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336-378.
- 이경미, & 민윤경. (2018). 공동생산 (co-production) 에 기반한 공동체주택의 의미에 대한 탐색.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6, 165-200.
- 이근행. (2005). 대안을 향하여: 대안사회를 일구는 공동체운동. **기억과전망**, 12, 225-248.

- 이라영. (2010).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영향요인의 인과적 관계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6(7), 193-202.
- 이명아, & 이연숙. (2019).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은혜공동체주택의 특성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0(4), 31-44.
- 이명아, & 이연숙. (2020). 공동체주택의 지속가능성 평가도구 개발 연구: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1(2), 43-56.
- 이연숙, 박재현, 조승연, 전은정, & 조선희. (2018). 소규모공동체주택 계획요소 도출을 위한 고시원거주자 참여계획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8(2), 71-79.
- 이연숙, 전은정, 박희은, & 김혜연. (2018). 장애인 소규모공동체주택 계획요소 추출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7(4), 23-34.
- 이연숙, 전은정, 김민주, 김혜연, 박민아, & 이지연. (2019). 귀농귀촌인구의 정착을 도모하는 소규모 공동체주택 사용자참여계획.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0(6), 15-27.
- 이연숙, 전은정, 김혜연, 황윤서, 황선혜, & 조선희. (2019). 소규모공동체주택 개발을 위한 고령자 참여 계획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8(6), 28-40.
- 이윤진, 김남숙, & 기영화. (2016). 도시 공동주택 기반 주민 공동체 학습과정 사례연구. **평생학습사회**, 12(1), 195-221.
- 이진경. (2011). **불은한 것들의 존재론**, Humanist.
- 이진우, 이주영, 마문호, & 황연숙. (2015). 사용자중심 디자인 관점에서 국내 코하우징 공동생활시설 활용에 대한 연구: 소행주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1, 2, 3 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4(4), 80-90.
- 이태영, 신승철. (2022). **낭만하는 공동체 넘어서기 : 공동체성이란 무엇인가**, 고양: 알렙.

- 이혜영. (2000). 한국의 홈스쿨링 운동의 현황과 전망. **평생교육학연구**, 6, 109-134.
- 임예지, & 이연숙. (2019). 육아가구 공동체주택 계획을 위한 패턴언어 추출 연구-아동과 육아가구 환경 관련 문헌의 분석을 통해.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5(9), 77-88.
- 임재현, 한상삼, & 최신용. (2011). 영구임대주택 임차가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13(2), 251-275.
- 임해원, & 이현수. (2018). 사회통합을 위한 도시 집합주택의 주거동 내 공유공간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MVRDV 의 집합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7(3), 100-107.
- 장용준, & 유석연. (2017). 공공주도형 공동체주택의 주거만족도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3(6), 67-76.
- 장원섭, 장지현, & 김민영. (2012). **일터학습: 함께 배우기**. 서울: 렉스미디어.
- 정경순. (2014). 사회적 경제와 평생교육의 연계. **평생교육학연구**, 20, 189-211.
- 정진철, 마상진, 이윤조, 최지원, & 안주리. (2011). 실천공동체로서의 전 문지도연구회 성과 관련 변인 간의 경로분석. **농업교육과 인적 자원개발**, 43(2), 95-126.
- 정혜령. (2006).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문가들의 갈등과 학습: 사회운동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2(4), 95-120.
- 정해경, 김승희, & 장희순. (2017). 공동주택의 주민활동과 주민소통. **주거환경**, 15(3), 1-18.
- 조문영. (2021).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비판인류학의 대화: '사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7(1), 393-445.
- 조미성, 김남수, & 윤순진. (2020). 제로에너지주택 거주자들의 변혁적 확장학습에 대한 사례 연구. **환경교육**, 33(1), 17-39.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조이브, 강순주, & 이경훈. (2015).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참여 주체의 역할 분석: 서울시의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1(10), 51-61.
- 지희숙. (2015). 평생교육활동가의 학습 활동에 대한 사례연구: 대덕구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1(3), 113-140.
- 차갑부. (1997). 평생학습시대 기업의 학습조직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3(2), 185-208.
- 최병두. (2000). 삶의 질로서 공간의 유형화와 공동체. **대한지리학회지**, 35(2), 321-340.
- 최정신. (2009). 가족 친화적 생활 커뮤니티의 실현: 미국 코하우징 커뮤니티의 사례.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5-35.
- 하정호. (2022). 순천지역 교육 거버넌스에서의 권력행사 역학에 대한 행위자-네트워크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28(4), 31-63.
- 한승희. (2019). **교육이 창조한 세계: 학습활동에서 교육체계로의 진화**, 교육과학사.
- 한혜정. (2021). 사회연결망분석 (SNA) 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연결관계와 구조적 특성 분석: 월산동 마을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7(3), 125-156.
- 허준. (2006). 불안 핵폐기장 유치 반대운동에 나타난 공동체학습 과정의 특성, **평생교육학연구**, 12(4), 203-223.
- 허준. (2012). 온라인 사회운동의 출현에 따른 사회운동학습 담론의 확장 가능성. **평생교육학연구**, 18(3), 141-165.
- 홍두승, & 이동원. (1993). **집합주거와 사회환경**,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황갑복, & 장희순. (2020). 임대주택 공동체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과 주거만족도와의 관계. **주택도시연구**, 10(3), 21-38.

- Argyris, C. (1977). Double loop learning in organizations. *Harvard business review*, 55(5), 115-125.
- Argyris, C., & Schon, D. A. (1977). *Organizational Learning: A Theory of Action Perspective*. Reading, MA: Addison-Wesley.
- Allen, J. S. (2015). *Home: How habitat made us human*. Hachette UK.
- Bawden, R. (2010). *The community challenge: the learning response*. In *Social learning systems and communities of practice* (pp. 39-56). Springer, London.
- Blackmore, C. (2010). *Social learning systems and communities of practice* (pp. 44-50). London: Springer.
- Brown, J. S. & P. Duguid. (2000). Organizational Learning and Communities-of-Practice: Toward a Unified View of Working, Learning and Innovation. in *strategic Learning in Knowledge Economy: Individual, Collective, and Organizational Learning Process*. Edited by R. Cross & S. Israelit. Boston: Butterworth Heinemann. pp. 143-166.
- Buber, M. (1947). 인간의 문제 (윤석빈 역, 2007). 서울: 길.
- Carreon, G. P., Drake, C., & Barton, A. C. (2005). The importance of presence: Immigrant parents' school engagement experienc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2(3), 465-498.
- Crossan, M. M., Lane, H. W., White, R. E., & Djurfeldt, L. (1995). Organizational learning: Dimensions for a theor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al analysis*, 3(4), 337-360.
- David, H., Jonassen., Susan, M. (2012). 학습자 중심 학습의 연구·실천을 위한 이론적 토대 : 상황학습, 활동이론, 분산인지, 생태심리학 등 학습을 보는 새로운 이론들 (김현진, 정종원, 홍선주 역). 파주: 교육과학사.

- Davydov, V. V. (1999). The content and unsolved problems of activity theory. *Perspectives on activity theory*, 1, 39-52.
- Dewey, J. (1986, September). *Experience and education*. In *The educational forum* (Vol. 50, No. 3, pp. 241-252). Taylor & Francis Group.
- Engestrom, Y. (1987). *Learning by expanding: An activity-theoretical approach to developmental research*. Helsinki: Orienta-Konsultit.
- Engeström, Y. (1994). *Training for change: New approach to instruction and learning in working life*.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Engestrom, Y. (1996). Development as breaking away and opening up: A challenge to Vygotsky and Piaget. *Swiss Journal of Psychology*, 55, 126-132.
- Engeström, Y., Miettinen, R., & Punamäki, R. L. (Eds.). (1999). *Perspectives on activity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ngestrom, Y. (2000). Activity theory as a framework for analyzing and redesigning work. *Ergonomics*, 43(7), 960-974.
- Engestrom, Y. (2001). Expansive learning at work: Toward an activity theoretical reconceptualiza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14(1), 133-156.
- Engeström, Y., & Sannino, A. (2011). *Discursive manifestations of contradictions in organizational change efforts: A methodological frame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 Engeström, Y. (2014). 팀의 해체와 낫워킹: 활동이론으로 보는 일터의 협력과 학습 (장원섭, 구유정 역). 서울: 학이시습.

- Falk, I. (1997). Community learning: Using learning to reconceptualise community well-being. *Sustainability and Social Research*, 23-42.
- Faure, E. (1972). *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Unesco.
- Fiol, C. M., & Lyles, M. A. (1985). Organizational learning.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803-813.
- Kim, J., Joo, K. P., & Schied, F. M. (2010). The limits of HRD: Retrieving the meaning of workplace learning.
- Latour, B. (2010). *The making of law: An ethnography of the Conseil d'Etat*. Polity.
-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ve, J., & Wenger, E. (1999). *Learning and Pedagogy in Communities*. *Learners & pedagogy*, 21.
- Lave, J., & Wenger, E. (2000). 상황학습 (전평국, 박성선 역). 서울: 교우사.
- Leont'ev, A. N. (1978). Activity, consciousness, and personality.
- Levitt, B., & March, J. G. (1988). Organizational learn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14(1), 319-338.
- Marsick, V. J., & Watkins, K. E. (1990). *Informal and incidental learning in the Workplace*. New York: Routledge.
- Marsick, V. J., & Watkins, K. E. (1999). *Facilitating learning organizations: Making learning count*. Gower Publishing, Ltd..
- Marsick, V. J., & Watkins, K. E. (2001). Informal and incidental learning.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2001(89), 25-34.

- Moulvad, U. (1994). *Introduction, co-housing for senior citizens in Europe. BiC (Housing and Well-being in Focus)*, Copenhagen, Denmark, 6-7.
- Knowles, M. S. (1980). *From pedagogy to andragogy*. Religious Education.
- Sawchuk, P. (2003). *Adult learning and technology in working-class lif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wchuk, P., Duarte, N., & Elhammoumi, M. (Eds.). (2006). *Critical perspectives on activity: Explorations across education, work, and everyday lif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ön, D., & Argyris, C. (1996). Organizational learning II: Theory, method and practice. *Reading: Addison Wesley*, 305(2), 107-120.
- Senge, P. M. (1990). The art and practice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 Senge, P. M. (2014). 학습하는 조직 : 오래도록 살아남는 기업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강혜정 역), 서울:에이지이십일.
- Seidman, G. (2013). Self-presentation and belonging on Facebook: How personality influences social media use and motiv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3), 402-407.
- Stake, R. E. (2000). 질적 사례연구(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서울: 창지사.
- Tönnies, F. (1957). *Community and Society*, trans. Charles P. Loomis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57).
- Watkins, K. E., & Marsick, V. J. (1993). *Sculpting the learning organization: Lessons in the art and science of systemic change*. Jossey-Bass Inc., 350 Sansome Street, San Francisco, CA 94104-1310.

- Watkins, K. E., & Marsick, V. J. (1996). In action. *Creating the Learning Organization. Alexandria VA: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 Wenger, E.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as a social system. *Systems thinker*, 9(5), 2-3.
- Wenger, E. (2010). *Communities of practice and social learning systems: the career of a concept. In Social learning systems and communities of practice* (pp. 179-198). Springer, London.
- Wenger, E., McDermott, R., & Snyder, W. M. (2002). Seven principles for cultivating communities of practice. *Cultivating Communities of Practice: a guide to managing knowledge*, 4.
- Wilson, J. M., Goodman, P. S., & Cronin, M. A. (2007). *Group learning.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4), 1041-1059.
-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Sage.
- Yorks, L., & Marsick, V. J. (2000). Organizational learning and transformation.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 theory in progress*, 253-281.
- Youn, C., & Baptiste, I. (2007). Learning: A processural outcome of human activity. *48th Annual AERC Proceedings.*
- Zhu*, E., & Baylen, D. M. (2005). From learning community to community learning: pedagogy, technology and interactivity. *Educational Media International*, 42(3), 251-268.

<참고자료>

서울시청 주택정책과(2017), 함께 살아 좋은집 공동체주택 매뉴얼 북 자
가소유형.

대안적인 교육 담론과 실천을 담아내는 격월간 잡지 민들레.
<https://www.mindle.org/27>.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https://cafe.daum.net/samsunglabor>.

경향신문(2019. 06. 05). 삼성 LCD서 일하다 뇌종양 판정 14년... ‘반올림’
한혜경씨, 8번 심의 끝 “산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44287?sid=102>에서
2022. 12. 16. 인출

서울시 공동체주택 플랫폼. <http://soco.seoul.go.kr>
집집마당.

<https://soco.seoul.go.kr/coHouse/main/contents.do?menuNo=200014>
성미산마을. <https://sungmisan.org/>.

유튜브(2018. 12. 03). 감옥같은 학교 건물을 당장 바꿔야 하는 이유
(유현준 교수, 세바시 1004회).

https://www.youtube.com/watch?v=QxGzwJd_Eno에서
2022. 12. 16. 인출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MMUNITY.
<https://www.ic.org/>

GLOBAL ECOVILLAGE NETWORK. <http://www.ecovillage.org>

<부록 1>

●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1. 공동체주택에 살고 있는 일인이 연구책임자의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게 한다.
2. 매월 1회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발표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발표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우희정입니다.

지도교수님은 한승희 교수님이시고 연구 주제는 ‘공동체주택 생활 문화 학습 과정 연구’입니다.

(1) 연구의 필요성

-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 중 하나인 ‘집’은 개인의 삶의 영역이자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쉼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집은 단순히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생활공관을 넘어서 투자와 자산 축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 ‘영끌’,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전세 난민’, ‘몸테크’ 등의 신조어는 집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 한국인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상자 안에 닫힌 구조로 획일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고 구조는 폐쇄적이며 이웃이라는 개념이 단절되었습니다.
- 집의 거주공간, 사람 및 공간과의 관계, 휴식과 회복이라는 본질적 의미에 충실하고자 다소 특별한 ‘공동체주택’이란 공간을 주거 형태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들은 어째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란 혜택, 아파트 공간의 편의성을 포기하면서 공동체 주택에 살기로 결정하였는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해야 하는 존재인가?

(2) 공동체학습 개념 설명

- 평생교육학은 학교교육 내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외 개인의 인지적 발달을 넘어 공동체 내에서 상호교류를 통한 학습과 집단이 주체가 되어 학습을 통해 진화하는 과정인 공동체학습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 공동체학습은 공동체 내에서의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학습하며 각 개인의 성장이 공동체 문화에 영향을 미쳐 공동체 자체가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선행연구 설명

- 유민선(2013): 마을공동체 형성 전 과정에 나타난 집단학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미산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허준(2006): 부안 핵폐기장 유치 반대운동에 나타난 공동체학습 과정의 특성
- 김민호(2014): 지역개발 반대 운동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시민성 학습: 밀양 송전탑과 강정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례
- 김경애(2007): 공동경험 구성과정에 대한 설명가능성 - 경험학습론과 공동체학습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연구절차와 방법 설명

- 본 연구는 개인의 인지적 학습 과정에 집중하는 연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무형식학습 과정을 경험연구로 관찰합니다.
- 공동체주택 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학습을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 질적연구(정성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는 대상의 질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입니다. 대상의 양적 측면에 주목하는 양적 연구와는 대비되어 질적 연구는 수치화되지 않은 자료(비통계적, 비수학적, 비수치적), 인터뷰, 관찰 결과, 문서, 그림 역사 기록 등을 질적 자료에 사용합니다.
- 구성원들의 행동, 삶의 방식, 신념, 가치 등을 이해하고 자세히 기술하기

위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에 초점을 두는 질적연구인 문화기술지 Ethnography 방법론을 선택하였습니다.

(5) 문화기술지 연구기법 설명

- 참여관찰은 연구책임자가 특정 집단의 일상세계에 비교적 장기간 참여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 해석하는 것입니다.
- 심층면담은 참여관찰의 과정에서 연구책임자는 낯선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갖게 되고 관찰의 현장에서 그 의문들을 면담의 형태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참여관찰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음, 기록노트, 그림,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을 할 수 있으며 1~2시간이 소요됩니다.
- 현지자료조사는 현지민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비문서 자료입니다. 사진 또는 영상 자료와 연구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현지의 자료(문서, 책자, 각종 기록물, 홈페이지, 웹사이트, 각종 문화재 등)이 있고 연구참여자가 평소에 작성해 놓은 자료(일기, 편지, 수필, 시, 그림, 가계부, 작업일지, 보고서, 의견서, 컴퓨터 통신 기록, 메모, 사진, 블로그 및 미니홈피, SNS 기록물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각 가정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연구 동의서를 설명한 후 서명 받는다.

<부록 2>

연구참여사용 설명문(합살집 8호 주민)

연구 과제명 : 공동체주택 생활 문화 학습 과정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우희정(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공동체주택 생활 문화 학습 과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연구책임자의 연구 배경이 되는 합살집 8호 따공의 주민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우희정 연구원(01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공동체주택에서 주민들이 필연적으로 학습하는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주민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공동체주택에서 사는 13명의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되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 1) 연구책임자는 수시로 공동체주택을 방문하여 “공동공간”이 공유되고 공식적, 비공식적 “공동체활동”이 이루어지는 삶을 관찰할 것입니다.
- 2) 공동체주택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의 경우, 한달 한차례 전체회의와 두차례 임원회의를 참여관찰하고 사진 촬영 및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
- 2) 참여 관찰하는 동안 의문들이 생길 시 면담을 요청할 것입니다. 면담은 13명의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차례 1시간~1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차례 면담 후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요 인물들에게 추가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연구참여자가 평소에 작성해 놓은 자료(일기, 편지, 수필, 시, 그림, 가계부, 작업일지, 보고서, 의견서, 컴퓨터 통신 기록, 메모, 사진, 블로그 및 미니홈피 자료 등)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
- 4) 기록을 위해 사진, 영상, 녹취를 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연구 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IRB 승인 이후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중도 탈락 시 수집된 자료의 폐기를 원하시면 즉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중도 탈락 이전 자료는 연구 자료로 사용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상호학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석사과정 우희정(010-0000-0000)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사진, 녹음, 녹화 파일, 일기, 편지 등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우희정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보관이 될 것입니다. 사진, 녹음, 녹화 파일, 일기 편지 등의 수집된 자료와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우희정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 irb@snu.ac.kr

<부록 3>

연구 자료수집 내용

분류	주제	일련번호	내용(비고)
참여관찰	임원회의	1	각 세대 현관 명패 달기, 어린이 영화 상영, 방음시설 설치, 옥상꾸미기, 옥상 텃밭가꾸기 및 모종심기 행사
		2	오픈하우스 및 작은 음악회, 공동체 규약 마련, 남측 세대와 담장 설치 문제
		3	협동조합 설립, 방음실 악기 및 장비 설치, 오픈하우스와 작은음악회
		4	오픈하우스 준비
	전체회의	1	주차룰, 야간소음, 놀터사용안, 모래놀이터 위치, 따공화폐, 따공 명패 달기, 공동체주택 학습 연구 취지 설명
		2	오픈하우스 및 작은음악회 진행, 옥상 그늘막 설치, 공동체규약 회원에 대한 재정비
		3	공용공간 대관, 분리수거 방법, 쉼터 쓰레기통 및 커피머신 관리, 따공캠프 준비, 협동조합 교육
		4	주차공간 공유, 옥상 행사, 책장 구매, 공동체규약 정비, 장기수선 충당금
		5	대부도 여행 준비, 방음실 대관, 출판기념회 공연
		6	방음실 대관 비용, 총회 준비, 공용 물품 구입, 크리스마스 행사 계획, 함살집 행동대장 선출
	공동체활동	1	식목일 행사(옥상 텃밭가꾸기, 고기라면 끓여먹기)
		2	함살집 옥상 투어(1호 옥상 방문)

		3	오픈하우스(함살집 8호 설명회, 각 가구 방문, 작은음악회)
		4	어린이캠프(물놀이, 저녁식사, 코스 게임, 캠프)
		5	함살집 행동대장 모임(전국의 함살집 행동대장이 모여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체 생활의 노하우를 공유함)
		6	협동조합 교육
심층면담	토끼	1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진행함
	주주	2	
	밀크	3	
	하양이	4	
	나무, 아키(공동)	5	
	얼그레이	6	
	토마스	7	
	드래곤	8	
	햇살	9	
	토끼(2차)	10	
	주주(2차)	11	
현지자료 조사	공동체규약	-	전체 규약을 공유 받음
	토끼 SNS	1	공동체주택 입주민 모집, 공동체주택 생활
	토끼 카페	2	따공 공용공간 소개
	별님 카페	3	
	아키 카페	4	
	일빠 카페	5	어린이 캠프 후기
	거북이 카페	6	함살집 1호 옥상투어 후기
		7	함살집 8호 옥상투어 후기
8		함살집 행동대장 모임 후기	

<부록 4>

심층면담 질문 목록 1

1. 자기소개
2. 별명의 의미는? 공동체주택에서 '이름'의 의미는?
3. 공동체주택 참여 계기?
4. 공동체주택에 입주하기까지 가족 내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했나?
모두가 공동체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동의하고 들어온 것인가?
5. 공동체주택에 입주한 후 만족스러운 점과 만족스럽지 않은 점은?
6.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과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는가?
7. 각자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되 서로 대립하거나 고립되지 않는 방법은?
8. 가장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던 적은 언제인가?
(공동체주택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9. 갈등을 최소화하며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는 어떤 성격일까?
10. 8, 9번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과 방법이 있나?

심층면담 질문 목록2

1. 공동체주택만의 문화?
 - 1.1. 기존의 공동체주택과 공유하는 문화와 따공만의 문화?
2.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 2.1. 문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습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 2.2. 공동의 일을 처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 불만은 없는가?
 - 2.3. 주도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뭔가를 하려는 의지??
3. 대화는 어떤 대화를 주로 하는가?
4. 기존의 주거 형태는 무엇이었고, 그곳과 공동체주택의 차이점은?
5. 마을 주민으로서 하는 활동이 있는가?
 - 5.1. 책조아에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
 - 5.2. 마을 모임(옥상투어) 등을 하면서 배우는 것?
6. 공동체주택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 6.1. 공동체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 것 같은가?
7. 행사나 활동을 하는 이유는? 공동체주택 인증을 받기 위해서?
 - 7.1. 다양한 행사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행사? 그로부터 배운 것은?

Abstract

A Study on Co-Housing Living Culture Learning Process

Woo, Hee Jung

Major in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ventional pedagogy has mainly concentrated that school-aged students in school studied specific subjects while lifelong education has expanded the concept of 'Education' and 'Learning' by focusing on learning of everytime, everywhere and everyone. Lifelong education scholars have observed learning process of adult learners in a specific environment. Especially, they have revealed that individuals and communities have grown through lost "Communality" in a village community. This study has started that learning is the phenomenon of interaction with others beyond individual cognitive level in specific situation and environment.

Preceden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government system to activate community in a broad level of village. I call these types of government-centered, top down community model 'Meaning-Model'.

However, this study has paid attention to voluntary and bottom-up model, “Co-housing”, which is a ‘Fun-Model’.

Co-housing has been begun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individualized housing culture in a capitalistic society. It was one of the community movements like education, ecosystem, economy and medical system. While seventy-seven percent of the Korean population has lived in an apartment house, many people have suffered from human alienation and social solitary which came from the growth of single elderly households, single-person household and nuclear family.

This study has emphasized on the importance of “Communality” by concentrating on the concept of Co-housing with a critical mind to Korean housing culture. The case of this study is a “Warm-Hearted Place(WHP, tentative name)” which is the 8th “Happy Together House(HTH, tentative name)” located in Sungmisan Village Community in Mapogu, Seoul. The residents of WHP have lived in the co-housing since October, 2021. WHP has 7 households. And, there are 13 adults and 10 children in the building.

Research questions have been raised. First, what is the meaning of “Communality” which have naturally learned from living together in co-housing? This study has dealt with not ubiquitous and timeless communality but historical and locational “Communality.” Second, how the residents of co-housing have learned their own “Communality”? They have learned “Communality”, not from formal and intentional education but from living of co-housing, itself. Then what is the detailed process of learning which spends time and shares space?

Since this study has dealt with informal learning in everyday life, I us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ethnographical case study. I

participated and observed official meeting, informal events and community activities. I interviewed members with the questions from participatory observation. Because this study focused on the adult learners, study participants are 13 members except for the minors. With the focus on the official community rule which members have made by themselves, I collected local materials of personal social network service and HTH on-line community.

4th and 5th chapter of this study are the answers of the first question which has asked the meaning of “Communality”. In the 4th chapter, I have made the readers understand special co-housing living culture by describing everyday life of co-housing in detail. In the 5th chapter, I have explained “Communality” which clearly revealed through double-sidedness and contradiction in living together.

This study has defined the meaning of “Communality” of WHP residents. It is “Never give up” and “Together or Separate”, or ‘loose community’. Community members have chosen co-housing because they wanted to live together but they wanted to be respected about their own individuality at the same time. I defined the process of mediating and finding balance between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as “Communality”.

6th chapter of this study is the answer for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which is the learning process of “Communality” of WHP residents. Above all, I have described how members learn together by interacting each other. Firstly, they take non-formal classes when they have some problems which is related to their life. Secondly, with their community works, each member plays their own part spontaneously with responsibility. Thirdly, they learn from senior’s experience. They ask Sungmisan village community or senior members of 1th~7th HTH for help. Lastly, they learn each other

directly by experiencing different way of life.

Also, I analyzed the aspects of community learning in WHP through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CHAT). First of all, I have described four symptoms of contradiction and revealed that residents have experienced the contradictions which are suitable for each symptom. And, based on the meaning of four dimensions of contradictions, they have suffered from each dimension of contradiction. Most of all, I have explained that the residents have confronted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 which is a primary contradiction. Since they wanted to live together, they chose to live in co-housing, but they wanted to live alone at the same time.

Secondly, on the basis of clash with objects, I have explained how activity elements have changed in a activity system. Two objects, 'Living together' and 'Together or Separate' collide in the activity system. To overcome this contradiction, 'Subject', 'Mediating Artifacts', 'Rules', 'Community' and 'Division of Labor' are restructured. Through this process, residents can learn "Communality". I call this "Expansive Learning" which is important in this study.

Thirdly, as a result of this expansive learning, 'Growth of Community Culture' is made. As the elements of activity system are restructured and changed, community culture is grown to achieve new object, 'Together or Separate'. It is not from intentional effort that subject try to achieve object but from unintentional learning that meet Mediating Artifacts, Rules, Community and Division of Labor meet and contradiction in the activity system. Most importantly, these human and inhuman elements continually change, extend and recreate. This is the evidence that community is a living and learning creature.

Fourth, I have explained that since WHP is a fun-model, it cannot

be analyzed through the epistemological circulation process of expansive learning. In the lifelong education field, case studies analyzed by expansive learning are mainly top-down meaning model, which is a government-centered. The members of WHP had gathered life itself, to live more fun and romantic life, so it is a bottom-up and fun model. Therefore, WHP does not properly respond to circulation process of expansive learning because it is rhizomic and connected horizont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by analyzing mutual learning channels and aspects in the specific community movement, 'Co-housing', I have contributed to develop and expand the concept of 'Community learning'. Also, I have discovered that "Together or separate" of their object is double-bind, which is the primary contradiction of Activity Theory.

Second, since WHP is fun-model which is different from meaning-model, I have explained that it does not perfectly respond to circulation process of expansive learning. As community is fundamentally fun-model, we should take a look at this types of community and study learning process microscopically.

**keywords : Village community, Co-housing,
Community learning,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Communality, Ethnography**
Student Number : 2021-21767